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김 명 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청소년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국어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유튜브’ 영상에서 구현된 여성 혐오 범죄와
관련하여 -

2022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민 영

청소년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국어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 ‘유튜브’ 영상에서 구현된 여성 혐오 범죄와
관련하여 -

김명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민 영


인준서

이민영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2년 5월

심사위원장 강진호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명석 (서명 또는 인) 

심사위원 김혜련 (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젠더 감수성은 청소년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한 필수 자질이다. 인간을 성별로 구분 지어 차별과 여성혐오를 내비치는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곧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을 다지는 것이다. 따라서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교육 과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민주 시민 교육에도 합당한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교육방안을 구상하였다. 청소년이 디지털 매체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감지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교육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기 때문이다. 또한,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매체 중 하나인 ‘유튜브’를 선정하였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젠더 감수성과 관련하여 악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튜브’ 속 영상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을 제안하였다. II장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구 주제를 연관지어 국어교육과 ‘언어와 매체’ 교육에서 젠더 감수성 함양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III장에서 교과서 분석과 ‘유튜브’ 자료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IV장에서는 협동학습을 기반으로 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젠더 감수성 함양 교육이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청소년이 성평등한 가치관을 지닐 수 있는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젠더 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 2015 국어과 교육과정, 언어와 매체

목 차

논문 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2. 이론적 배경	4
3. 선행 연구 검토	12
II.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6
1. 2015 교육과정 분석	26
2. 『언어와 매체』 교과서 속 학습 활동 분석	37
1)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39
2) 매체 향유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	44
3)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학습 활동	50
III.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재 탐색	55
1. 교육 제재 선택 기준	55
2. 교육 제재 선택을 위한 유튜브 자료 분석	59

1)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유튜브 자료	59
2) 불법 촬영과 관련된 유튜브 자료	70
3) 단톡방 성희롱과 관련된 유튜브 자료	80
IV.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	89
1. 교육 방향 제안	89
2. 교육방안 실제	94
1)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법	94
2)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학습 방안	100
(1) 1차시 교수·학습	100
(2) 2차시 교수·학습	115
(3) 3차시 교수·학습	112
V. 결론	128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2015 교육과정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	26
<표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	35
<표 3> ‘유튜브’와 관련된 교과서별 학습 활동	39
<표 4> ‘지학사’ 교과서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①	40
<표 5> ‘지학사’ 교과서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②	42
<표 6> ‘비상’ 교과서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43
<표 7> 매체 향유 태도와 관련된 교과서별 학습 활동	45
<표 8> ‘창비’ 교과서 학습 활동	46
<표 9> ‘미래엔’ 교과서 학습 활동	49
<표 10>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교과서별 학습 활동	50
<표 11> ‘천재(민)’ 교과서 학습 활동	51
<표 12>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 상의 유의점	55
<표 13> 데이트 폭력 ‘관련성’ 관련 영상	59
<표 14> 데이트 폭력 ‘조회 수’ 관련 영상	62
<표 15> 데이트 폭력 ‘최신순’ 관련 영상	64

<표 16> 학습 자료 선정①(데이트 폭력)	65
<표 17> 동영상 댓글과 대댓글	68
<표 18> 불법 촬영 ‘관련성’ 관련 영상	70
<표 19> 불법 촬영 ‘조회 수’ 관련 영상	72
<표 20> 불법 촬영 ‘최신순’ 관련 영상	74
<표 21> 학습 자료 선정②(불법 촬영)	76
<표 22> 동영상 댓글과 대댓글	78
<표 23> 단톡방 성희롱 ‘관련성’ 관련 영상	80
<표 24> 단톡방 성희롱 ‘조회 수’ 관련 영상	82
<표 25> 단톡방 성희롱 ‘최신순’ 관련 영상	84
<표 26> 학습 자료 선정③ (단톡방 성희롱)	86
<표 27> 동영상 댓글과 대댓글	88
<표 28> 교사의 젠더 감수성 점검 체크리스트	97
<표 29> Co-op Co-op 협동 학습 단계	99
<표 30> 1차시 교수·학습	101
<표 31> 1차시 자기 평가표	105
<표 32>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 섬네일	108

<표 33>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 댓글 양상	109
<표 34> ‘군대 내 불법 촬영 사건’ 섬네일	111
<표 35> ‘군대 내 불법 촬영 사건’ 댓글 양상	112
<표 36> ‘단톡방 성희롱 사건’ 섬네일	113
<표 37> 2차시 교수·학습	115
<표 38> 개별 학습 소주제 예시 - 데이트 폭력	115
<표 39> 개별 학습 소주제 예시 - 불법 촬영	117
<표 40> 개별 학습 소주제 예시 - 단톡방 성희롱	118
<표 41> 3차시 교수·학습	122
<표 42> 3차시 자기 평가표	125
<표 43> 동료 평가표	127

I. 서 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이 연구는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과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유튜브’와 매체 향유 태도,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유튜브’ 영상 속에서 여성 혐오 범죄를 나타내고 있는 방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뉴 미디어 매체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섬네일과 댓글 소통 양상에 주목하여 ‘유튜브’ 영상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젠더 감수성 함양과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교육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표적인 유튜브 영상 자료를 교육제재로 사용하여 총 3차시의 교수·학습 방안의 개략적인 모습을 제시할 것이다.

디지털 사회가 대두되고 한국 사회는 급속도의 인터넷 성장으로 삶의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10대 한국 학생들이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한 연령층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로 학생들과 스마트폰은 매우 밀접한 관계이다.¹⁾ 이러한 디지털 사회 속에서 학습자들의 바람직한 국어 생활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이 디지털 매체를 접할 때 어떤 지식과 태도를 바탕으로 정보를 수용하고 분석, 평가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하여 매체 언어 교육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선택과목으로 ‘언어와 매체’가 신설되었으

1) 애플리케이션 분석업체 와이즈앱이 시행한 2021년 1월 국내 유튜브 월간 활성 사용자 수 조사 결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4568만 명 중 88%가 유튜브를 매월 1회 이상 이용했다. 그 중 50대 이상이 28.7%로 가장 많이 차지하며,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은 10대가 46시간 52분으로 가장 길었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매체 사용자가 연령층에 구애받지 않으며 평생 교육을 위해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3501> (접속 일자: 2022. 05. 08.)

며 교육부가 밝힌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문화적 변화에 반응하여 국어교육이 디지털 매체를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 체계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향유 태도 신장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국어교육에서 이루어진다면 학생들이 왜곡된 정보를 구별하고 타당한 관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며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살아가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국어’ 과목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역량들을 근거로 하여 강조된다.²⁾ 예를 들어 ‘자료·정보 활용 역량’은 학생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정보를 종합하고 재구성하여 지식으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며 이는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국어교육으로 충분히 함양할 수 있다. 또한,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학생이 주체적이고 비판적인 관점으로 자료, 글을 분석하고 자신의 창의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능력이며 이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학생들이 주체적인 언어생활을 위해 필수로 갖추어야 할 역량이다. 청소년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디지털 매체 사용에 필연적으로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성평등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구상해보려고 한다.

‘N번방 사건’과 같이 여성을 동등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성적으로 착취하는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는 사회 속에서 여성을 타자화하여 성적 욕구 충족의 도구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젠더 감수성을 전혀 지니지 않고 성(sex)을 돈벌이 수단으로 폄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성 혐오 콘텐츠를 무분별하게 생산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존재한다.

2) 2015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으로는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자료·정보 활용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 문화 향유 역량, 자기 성찰·계발 역량”이 있다.(교육부(b), 3쪽.)

청소년들이 혐오나 차별 표현을 ‘유튜브,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서 가장 많이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하며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온라인을 통한 혐오 표현 노출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³⁾ 여성을 타자화하고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 여성 혐오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고 현재 미디어에서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문제도 여성 혐오에서 기인한다. 학교 교육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학생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하지만 언어와 매체를 다루는 현재의 국어교육이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 함양을 고려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가? 본고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여 국어교육의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을 제공하려고 한다. 정체성 형성의 시기에 혐오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지니며 발달하기는 어렵다. 학생들이 주체적인 위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성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젠더 감수성을 지닐 수 있도록 성평등한 학교 문화를 갖추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미디어 사용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이 혐오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가를 알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며 성평등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추구하는 다양한 역량은 학생들이 성평등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앞서 살펴본 역량 외에도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은 인간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을 지향하는 길에 있어서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의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음성, 문자, 매체 등을 활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역량’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에 적절히 대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된다.

3) 김영한 외 3인,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2-13쪽.

정리하자면 이 연구는 국어교육을 통해 ‘젠더 감수성’이라는 정의적 영역과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인지적·정의적 영역의 발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어교육에서는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상호작용하며 존중, 배려하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 존중과 배려하는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위해서는 나와 다른 성별을 지닌 상대와의 차이를 인정하고 성평등한 가치관을 지닌 상태에서 상호작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학생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현재 국어교육의 폭을 심화, 확장 시켜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금 여기’의 교육을 지향해야 하는 국어교육의 성격을 고려하여 최근 심각한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여성 혐오, 젠더 감수성, 성평등과 같은 문제에 집중하려고 한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게 여기는 디지털 매체 중 ‘유튜브’를 활용하여 성차별적인 부분을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방안을 활용한다면 성평등한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 이론적 배경

1) 혐오와 젠더 감수성

사전적 의미의 ‘혐오’는 ‘싫어하고 미워함’이라는 뜻이다.⁴⁾ 사전적 의미로만 ‘혐오’를 사용한다면 개인 간의 심리적인 현상을 의미하겠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는 ‘혐오’는 상대를 타자화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차별적인 시각을 의미한다. 여성의 사회진출과 여성 혐오 간의 관계를 이야기한 백승대, 안도현(2017)은 남성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 구조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search/searchView.do>,
(접속 일자: 2022. 05. 08.)

는 사회로 변화하자 남성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는 공포심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을 여성 혐오의 원인이라고 규정한다.⁵⁾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2019)는 여성, 성 소수자, 이주민 등을 특정한 속성을 통해 유형화하여 열등한 존재로 규정하는 혐오가 만연하다고 이야기한다. 혐오에 대해 분노를 표현하고 약자를 위한 제도와 정책을 역차별로 매도하는 문제도 심각하다.⁶⁾ 따라서 혐오는 인간을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고 특정 기준을 바탕으로 경계를 지어 자신이 속하지 않는 경계 속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이다.

혐오 표현은 유형화된 대상들에게 분노를 표현하고 적대감을 표출하는 차별적 언행이다. 혐오 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은 공적 토론의 장에서 적대적인 표현을 하면서 상대방이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드러내지 못하게 만든다. 이는 공론장에서 적대적 표현을 공론화하여 왜곡된 견해를 심고 구성원들이 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하며 민주주의의 위협이 된다.⁷⁾ 그리고 혐오의 기반이 되는 심리는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가치관을 형성하며 한창 인지가 발달되는 단계인 청소년 시기에 혐오에 자주 노출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혐오 표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하다.

여성 혐오와 관련하여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를 ‘여성을 싫어하고 무시하는 감정’이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여성 혐오’는 단순히 여성을 싫어하는 감정이 아니다. 앞서 살펴본 ‘혐오’에 따르면 여성을 대상화하고 타자화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태도이다. 여성 혐오를 ‘타자화’의 관점에서 살펴본 대표적인 연구는 우에노 치즈코(2012)가 있다. 우에노 치즈코(2012)는 ‘차별’에 관하여 “차별이란 어떤 이를 타자화함으로써 그것을 공유하는 다른

5) 백승대, 안도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205-235쪽.

6) 국가인권위원회, 「혐오 표현 Hate Speech 리포트」, 2019, 14-16쪽.

7) 이승현,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10-13쪽.

이와 동일화하는 행위이다.”라고 정의하였다.⁸⁾

성차별은 남성들이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이해할 수 없는 제3의 존재로 타자화할 때 나타난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주체라는 사실은 절대적이다. 또한, ‘남성’과 ‘여성’에서 ‘성(sex)’은 단순히 육체적인 특징에 따라 구별하기 위해 붙인 단어일 뿐 이것은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즉, 남성이 여성을 타자화하여 나타나는 성차별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편견에 기반한 ‘여성화되는 것’은 남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으로 남성은 여성들과 구별되는 남성으로서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즉, 사회에서 통용되는 ‘남성스러움’은 여성들을 남성들의 지배하에 두기 위한 하나의 기제이다. 남성들이 ‘남자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라는 말에서 ‘이 정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성적 주체의 힘을 잃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여성스러움’의 억압 속에 가두려는 것이다.

‘여성 혐오’에 대항하여 제기된 ‘역차별’은 여성을 도구로 전락해 버리는 혐오 때문에 생기는 ‘남성스러움’의 강요이다.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 분석을 바탕으로 역차별 담론을 다룬 김수아(2017)에 의하면 역차별 담론은 평등 개념에 관한 사유와 성찰을 막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⁹⁾ 역차별 담론은 기회만 같게 주어진다면 구조적으로 인한 차별의 결과는 능력 부족이라는 인식에 기인하여 젠더 권력 관계를 부정한다. 그래서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성차별하고 있는 양상을 개인의 능력 탓으로 돌린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여혐-남혐 논쟁’에서 미러링을 통한 표현이 ‘남성혐오’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하여 김감미 외 4인(2019)은 ‘미러링’ 전략으로 여성의 분노를 표출하는 결과라고 이야기한다.¹⁰⁾ 자극적인 ‘미러링’ 표현을

8)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42쪽.

9) 김수아,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페미니즘 주제 토론 가능성- 역차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5-45쪽.

10) 김감미 외 4인(2019)에 따르면 미러링 전략은 남성 커뮤니티 발화 방식을 패러디한 발화이

근거로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담론은 여성이 약자인 사회에서 ‘여성 혐오’의 ‘혐오’의 정의와 관련하여 논의해 볼 여지가 있다.

우에노 치즈코(2012)는 여성 혐오를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성적 주체로 절대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여성의 객체화, 타자화 -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여성 멸시-”라고 정의를 하였다.¹¹⁾ 즉, 남성들은 남성들 간의 연대 속에서 ‘남성스럽지 않은’ 남성을 배제하고 여성들을 차별하면서 그들만이 원하는 성적 이원화 사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차별을 기반에 둔 남성들 간의 유대는 여성을 성적 대상화 하면서 여성 혐오는 견고해진다. 이러한 성적 대상화는 여성을 동등한 주체가 아닌 객체로 바라보고 남성의 소유물로 인식하게 만든다. 따라서 학생들이 성적 대상화를 단순히 재미있는 음담패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상대의 인권을 짓밟고 고통스러워하는 피해자를 만들어 내는 성희롱이라고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성 혐오를 해결할 방법으로는 ‘신체의 타자화’를 그만두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여성에게만 강요되는 ‘성, 임신, 출산, 육아’를 여성의 영역에 한정 짓는 것을 그만두어야 하고 남성들은 ‘남성스러움’에 대한 강박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¹²⁾ 여성을 대상화함으로써 얻어지는 남성의 권력은 허상일 뿐 자신이 ‘남성일 수 없다’라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한다. 여성 혐오와 싸우는 주체는 오직 여성만이 아닌 남성도 같이 포함된다. 남성도 여성 혐오적인 생각과 행동에서 벗어나야 자신이 ‘남성이 되지 않게 된다’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자신을 자연스럽게 바라보게 될 것이다.

본고는 ‘여성 혐오’를 ‘여성을 타자화하여 고유한 개성을 인정하지 않고 여성스러움의 규범에 가두는 적대감’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이는 여성이 유전적, 신체적으로 부여받은 성(sex)을 이유로 차별받는 것에 중점을 둔 개

며 기존의 남성 중심적 토론에 대한 반항을 내비치는 말화 방식이다.

11) 위의 책, 37쪽.

12) 위의 책, 301-302쪽.

념이다. 그리고 고정관념에 기인한 젠더 규범을 여성에게 강요하는 사회를 반영하였으며 혐오가 특정 대상을 유형화한 적대적 표현이라는 것도 고려한 정의이다. 여성 혐오에 관한 정의를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할 교육방안에서 다룰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독방 성희롱’ 범죄를 살펴보고 한다. 유튜브 영상에서 구현된 이러한 여성 혐오 범죄는 여성을 어떻게 타자화하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언행이 성적 대상화에 해당이 되는지 등을 다루기 위해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질문을 제시하여 토의해 보는 방향으로 교육방안을 구상해보려고 한다.

젠더 감수성은 ‘성인지 감수성, 성인지 관점’이라고도 불리며 합의된 정의가 아닌 학자별로 다양하게 정의되는 개념이다. 젠더 감수성 정의는 크게 성차별적 상황을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인지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성평등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 능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젠더 감수성을 성차별적 상황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실천적 능력으로 정의할 수 있다.¹³⁾ 어떤 부분이 성차별인지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나다움어린이책의 젠더 감수성을 분석한 서지은, 양성은(2021)은 젠더 감수성을 “모든 성별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 상황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의지와 행동능력을 의미한다.”라고 정의하였다.¹⁴⁾ 젠더 감수성을 단순히 인식에서 머무는 개념이 아니라 행동능력까지 살펴본 것은 학자들이 정의한 젠더 감수성의 공통점이다. 젠더 감수성은 올바른 성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필요하고 실제 일상에서 성차별적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실천까지 연결되어야 한다. 아직까지 온전한 성평등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젠더 감

13) 김양례, 「여성 스포츠리더 교육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 한국여성체육학회, 2019, 1-14쪽.

14) 서지은, 양성은, 「포괄적 성교육 개념에 근거한 나다움어린이책의 젠더감수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한국콘텐츠학회, 2021, 593-607쪽.

수성을 지니고 궁극적인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젠더 감수성은 실천 의지와 행동까지도 포괄해야 한다.

성차별 상황에 대한 민감한 인식과 성평등 정책까지 다룬 김순구(2021)는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젠더 감수성을 연구 도구로 사용하였다.¹⁵⁾ 김순구(2021)는 젠더 감수성이 부족하면 창의성 저하, 성적 자기결정권 획득의 어려움 등이 발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래서 건강한 성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젠더 감수성을 바탕으로 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젠더 감수성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학자들은 젠더 감수성을 온전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 문화를 위해 필요한 인식과 실천 의지로 바라보았다.

본고는 젠더 감수성을 ‘성차별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실천 의지를 가지며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려고 한다. 이는 교육을 목적으로 만든 인위적인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생활에서 성차별적이라고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당당한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정의이다. 성차별적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을 오히려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사회가 잘못된 것이고 문제를 제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야 한다.

국어교육은 학생들이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는 온라인 공간에 부딪히는 성차별적 상황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길러주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바탕으로 함양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유연적 사고를 통해 성차별 문제를 바라보는 젠더 감수성 신장과도 관련이 있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15) 김순구,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 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 한국산학기술학회, 2021, 268-278쪽.

2)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매체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교 교육에서 학생들이 친숙하게 여기는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들은 디지털 매체에 높은 흥미를 느끼고 주로 디지털 매체에서 정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에 친숙한 모습을 보인다.¹⁶⁾ 이러한 사회·문화적 모습에 따른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새로운 유형이 등장했으며 미디어 리터러시는 ‘매체 문식성, 복합 양식 문식성, 신 문식성, 디지털 문식성’ 등의 용어가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하겠지만 선행연구에서 말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개념을 정리할 때는 각 연구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대로 적으려고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을 때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정보를 활용하는 전반적인 능력에 관심을 두었다. 그래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활용하는 역량으로 정의하였다 (Gilster:1997, Larsson:2000, 이순영 외(2013:118)에서 재인용), 이러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정교화하여 미디어 리터러시를 “디지털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지, 작동, 사회문화, 정서적 기능의 복합체”로 사회·문화적 역량으로 확장된 미디어 리터러시를 규정하였다.¹⁷⁾

또한,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용할 때 비판적인 판단 능력을 강조한 관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바라볼 수 있다. 리터러시 개념을 정의할 때 사회·문화적 맥락, 비판적 세상 읽기를 고려하여 바라본 것처럼 미디어 텍스트를 수용할 때는 표면적인 내용 이외에 이데올로기, 사회적 가치관

16)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매체별 이용률에서 전자책을 이용한 비율이 초·중·고 모두 증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2020), 11쪽.)

17) 이순영 외 2인,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 문식 활동에 대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인식 연구」, 『교육종합연구』, 제11권 제4호, 교육종합연구원, 2013, 118쪽.

등 이면에 담긴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현선(2004)은 미디어가 마치 문법적 구조를 가지고 문자 언어처럼 의미를 구성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바라보며 미디어 리터러시를 설명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의 특징을 ‘복합 양식성, 사회문화 소통 구조, 문화 향유 능력, 소통 기술’의 방면으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¹⁸⁾ 디지털 매체의 텍스트는 ‘복합 양식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즉 문자, 음성 이외에 그림, 시각, 소리, 영상 언어 등으로 구성된 복합 양식 언어를 미디어 리터러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미디어에도 문자 언어나 음성 언어에 적용하는 의미 작용이 있다고 보고 ‘언어’에 관한 시각을 확장하였다.

다음으로 문화 향유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비판적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다. 정현선(2004)은 대중 매체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이야기하며 성찰적인 태도로 미디어를 수용한다면 사회적 담론 형성, 문화 자원의 역할을 하는 미디어 문화의 성격을 부각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하였다. 따라서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텍스트를 수용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수용과 생산, 비판적 인식의 교육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소통 기술에 대한 성찰 능력으로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복합적인 성격의 상호작용을 이야기한다. 인터넷은 시공간적 제약을 넘어서 매체로 ‘매개된 상호작용’이며 정보의 수용자가 정해지지 않는 공간이다. 그러나 정보의 생산자가 수용자의 반응을 직접 살피기 어려운 ‘유사’ 상호작용이다. 또한, 인터넷은 정보를 자유롭게 복제할 수 있으며 공유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의식한 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성찰의 태도를 길러야 한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 생태계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살펴

18) 정현선(2004)에서 이야기한 디지털 문식성의 하위 범주를 토대로 디지털 문식성의 특징을 재구성하였다.

본 원진숙(2020)은 미디어 리터러시를 “변화된 디지털 문식 환경에서 학습자가 디지털 기술 및 다양한 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하여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유의미한 정보로 생산, 유통, 공유 과정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디지털 시민의식”으로 정의하였다.¹⁹⁾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미디어 리터러시 성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인간으로서의 창의성, 주체성을 잃지 않는 교육의 조화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인간이 디지털 매체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복합 양식 텍스트를 비판적·창의적 태도로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과 자신의 의미 작용 행위를 책임감 있게 성찰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정의는 이 연구에서 제안할 교육방안의 기본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학생들이 복합 양식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텍스트 속 기호들이 어떤 생산자의 창작 의도 속에서 어떻게 결합하여 의미를 생성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생성된 의미를 바탕으로 상호작용을 할 때 성찰적인 부분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젠더 감수성을 결합한 교육은 학생들이 비판적 성찰의 태도를 바탕으로 하여 책임감 있게 매체를 향유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3. 선행연구

1) 여성 혐오와 매체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가 만연한 세대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문제 해결 방향을 고찰한 연구들로는 김수아(2015), 엄진(2016), 김민서(2019), 김지수, 윤석민(2019), 김경희 외 2인(2020), 김영한 외 3인(2020), 배상률 외 2인(2020),

19) 원진숙,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 문식성 교육의 혁신」, 『한국초등교육』 31권 특집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0, 162쪽.

홍지아, 정사강(2020) 등이 있다. 이 연구들을 ‘온라인상 여성 혐오’에 중점을 둔 연구들과 연구 대상을 청소년에게 초점을 두고 청소년들의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온라인상 여성 혐오’에 대해 전반적으로 연구한 선행연구로 김수아(2015), 이정념(2016), 이승현(2016), 엄진(2016), 김지수, 윤석민(2019), 김경희 외 2인(2020)가 있다. 김수아(2015)는 2015년 이후로 사회의 주요 논제로 대두된 ‘여성 혐오’에 주목하여 온라인상 여성 혐오 표현을 유형별로 분석했다.²⁰⁾ 여성 혐오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비판받는 커뮤니티 게시판과 포털 사이트의 뉴스 댓글 등을 살펴보고 대중들이 여성을 얼마나 쉽게 비하하고 있는지를 표현에 초점을 두어 밝혔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성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체적 특징을 대상화하여 비하하는 발언들로 여성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있다. 김수아(2015)는 이러한 표현들이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보인다는 것은 여성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고 여성 혐오를 조장하며 선동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지적한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을 법적 규제로 제지하는 것과 함께 여성 주체들이 온라인상에서 가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는 기회가 많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을 체계적으로 분류한 후 온라인의 성격과 여성 혐오 표현이 결합하여 생기는 문제들을 짚었으며 사이버 공간이 여성들에게 안전하지 않음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인터넷 게시판의 여성 혐오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엄진(2016)은 여성을 배척하고 성적 대상화하는 대표적인 사이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²¹⁾ 이 사이트의 대표적인 담론인 ‘김치녀’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와 관련지어 분석하였는데, 물질의 중요성은 커진 사회에

20)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 한국여성연구소, 2015, 279-317쪽.

21)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193-236쪽.

서 경제적으로 불안한 위치의 남성들이 문제의 원인을 여성에게 돌려 여성을 비하한다고 보았다. 또한, 이 사이트는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을 둔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을 배척하는 모습과 다르게 그들이 정의한 ‘개념녀’에 속하는 여성을 원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스스로 모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사회에서 이 사이트와 거리두기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그 속에 담긴 여성 혐오에는 동의하고 있는 현실을 문제로 삼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여성 혐오 표현이 특정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사회 전체적으로 만연한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온라인상 혐오 표현이 만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김지수, 윤석민(2019)은 인터넷 개인방송의 수익 구조와 여성 혐오 발언의 관계를 밝혀 실효성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²⁾ ‘유튜브’ 창작자들은 살아남기 위해 사람들의 관심을 이끌 전략을 구사하는데 그중 하나가 여성 혐오 발언이다. 김지수, 윤석민(2019)은 토크와 캠방 방송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87%의 비율의 방송에서 여성 혐오 표현이 등장하였으며 시청자와 창작자가 적극적으로 혐오 발언에 동조하는 양상이 대부분이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미디어 기기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내려가고 있는 가운데,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자연스럽게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연구자의 제언에 동의하는 바이며, 학생들이 여성 혐오 표현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함을 보여 주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김경희 외 2인(2020)은 대학생들의 에세이 작성을 통해 온라인상 혐오 표현에 노출된 경험을 살펴보고 온라인상 혐오 표현의 원인을 규명하였으며

22) 김지수, 윤석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회』 33, 한국방송학회, 2019, 45-79쪽.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²³⁾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미디어 사회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소통 능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의 부족은 곧 비판적 인식의 결여로 이어진다. 온라인상에서 혐오 표현을 구별하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인지하며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차별과 혐오가 담긴 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대로 수용한 결과가 지금의 혐오 표현이 만연한 미디어 공간이 되었기 때문이다.²⁴⁾ 현재도 계속 생산되는 여성 혐오 표현이 담긴 미디어를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본고는 젠더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결합한 교육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온라인에서 보이는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원인을 규명하고 혐오 표현이 일으키는 문제들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특히 인터넷 게시판에서 보이는 혐오 표현의 실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실증적인 연구 자료로서 기능하며 여성 혐오 표현이 나타나는 양상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면서 실효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된 기간이 아직 길지가 않기 때문에 법, 학교 교육, 사회 교육 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해결 방향 제안 정도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 범주로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양상과 그들이 접하는 여성 혐오 표현에 관한 연구로 김민서(2019), 김영한, 이유진, 조아미, 임성택(2020), 배상률, 이창호, 이정림(2020), 홍지아, 정사강(2020)이 있다.

23) 김경희 외 2인,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출경험 사례 및 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한국콘텐츠학회, 2020, 499-519쪽.

24) 김경희 외 2인(2019)는 무비판적인 수용과 혐오 표현이 담긴 미디어 생산의 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의무 교육기관인 학교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김민서(2019)는 청소년의 미디어 이용 양상을 인터넷 1인 방송에 초점을 두어 살펴보고 인터넷 1인 방송 시청 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였다.²⁵⁾ 청소년들은 다양한 주제의 방송을 보고 대리만족을 하며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는 점 등 1인 방송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한편, 욕설, 무례한 표현, 무리한 음식 섭취, 허위 정보 등 1인 방송의 부정적인 면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과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청소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를 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표본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며 연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한 연구로 배상률 외 2인(2020)과 김영한 외 3인(2020)은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배상률 외 2인(2020)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미디어 이용 실태를 조사하여 유튜브가 가장 오래 이용하는²⁶⁾ 미디어이며 부모의 미디어 지도에 대해서는 학부모는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지만, 학생들은 부모의 제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²⁷⁾ 또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 방향과 정책 과제를 제안하였다.²⁸⁾ 이 연구는 학교에서 보호주의에서 벗어나서 사회 발달과 발맞추며 실

25) 김민서, 「청소년의 인터넷 1인 방송 시청 경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청소년지도학과, 2019, 1-67쪽.

26)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87.7%가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하루 평균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4시간 이상인 초등학생의 비율이 22.2%에 달했다. 유튜브는 초등학생이 가장 오랜 시간 이용하는 미디어로, 초등학생의 90.3%가 이용하고 있었고, 이들 중 43.5%는 매일 이용하고 있었다.”라고 한다. (배상률 외 2인, 2020, 5쪽.)

27) 배상률 외 2인,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475쪽.

28) 배상률 외 2인(2020)은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 마련, 청소년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강화, 부모 교육 및 부모-자녀 간 유대감 증진,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제안하였다.(배상률 외 2인, 2020, 6-7쪽.)

시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혐오 표현에 관한 대처 방법이나 혐오 표현의 확산과 효과에 대한 교육을 제안했다는 점이다. 특히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튜브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비판적 사고를 발휘하기 위해 비판적 리터러시 교육을 강화를 제안한 부분은 본 연구와 결을 같이하고 있다.

김영한 외 3인(2020)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인식하고 있는 정도와 혐오 표현의 사회적 영향에 동의하는 정도, 혐오 표현의 심각성, 혐오 표현의 가해 정도, 혐오 표현의 생산 수단 및 전달자, 혐오 표현의 정책적 대응방안, 혐오 표현의 심리적 피해 행위 및 혐오 표현의 동기’에 대하여 설문 조사를 하였다.²⁹⁾ 페미니스트에 관한 혐오에 대해서는 남자의 비율이 높고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동의하는 정도가 높아졌다. 고등학교의 경우 3.35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혐오 표현에 노출되는 정도가 심각하며 비판적인 관점으로 수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³⁰⁾ 또한, 고등학교에서도 페미니스트에 대한 혐오 정도가 높은 것은 본고의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특히 이 결과는 언어 표현을 다루는 국어과에서 매체 수업 시간에 미디어와 혐오 표현을 다루어야 할 당위성을 높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학교에서의 미디어 교육과 성평등간의 관계를 짚어주며 해결 방향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교는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여 줄 의무가 있고, 성평등 교육에 반발을 보일 수 있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을 수업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온라인상 여성 혐오 표현 사례를 다루면서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토론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수업 문화를

29) 김영한 외 3인,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413쪽.

30) 김영한 외 3인(2020)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혐오 표현을 접하는 경우가 79.1%로 가장 높다고 밝혔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축할 방안을 구안해야 한다.³¹⁾ 국어교육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학습 자료, 수업 방법, 내용, 방향 등을 구상해야 할 시점이며 본고는 예비 국어 교사로서 젠더 감수성을 신장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제안하려고 한다.

2) 국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국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의 관계를 주제로 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한 교수·학습의 방향을 제시한 선행연구로는 정혜승(2008b), 방상호(2017), 이삼형(2017), 윤여탁(2018) 등이 있다.

정혜승(2008b)은 국어 교과서의 내용 선정 방식이 복합양식 텍스트의 속성을 제대로 학습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텍스트를 영역 통합적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³²⁾ 그리고 Suhur(1984:251, 정혜승(2008b: 159)에서 재인용)의 교육과정 모델을 변형하여 학습자가 텍스트를 음악, 사진, 그림 등의 매체로 변환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학습자가 상위 인지 능력을 활용하여 자신의 언어 수행을 점검, 조절할 수 있는 경험하는 데 기여한다고 밝혔다.

방상호(2017)는 문식성의 개념이 전통적 문식성 개념과 확연히 차이가 나는 쪽으로 변하는 것인지 전통적 문식성에서 확장되어 발전하는 것인지를 살펴보았다.³³⁾ 미디어 리터러시의 특성을 ‘복합 양식성, 하이퍼텍스트성, 상호작용성, 협력성’으로 정리하였고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대두되기 이전부

31) 최윤정, 이종혁(2021)은 학교 교육에서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비판하면서 지속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판적 이해력을 기를 수 있는 토론 등의 활동을 제안하였다.

32) 정혜승(b), 「문식성(Literacy)의 변화와 기호학적 관점의 국어과 교육과정 모델」, 『교육과정 연구』 26권 4호, 한국교육과정학회, 2008, 149-172쪽.

33) 방상호, 「문식성 변화와 디지털 읽기·쓰기 수업의 방향」, 『한국어문교육』 23권 0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7, 5-32쪽.

터 리터러시의 특성이었을 뿐, 기술 발달로 인해 이러한 특성을 활발히 전개하는 것이라고 논하였다. 따라서 바람직한 디지털 읽기·쓰기 수업을 위해서는 전통적 리터러시 개념과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통합하여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멀티미디어 서평 쓰기 수업’을³⁴⁾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복합 양식으로 실제 독자와 소통하고 인터넷상의 예상 독자를 염두에 둔 글을 쓸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다.

이삼형(2017)은 급격한 매체 발달로 인해 독자들의 독서 환경, 방법, 특성 등이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독서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³⁵⁾ 그리고 학교가 매체를 독서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독서의 본질인 독서 목적은 유지해야 한다고 말하였다.³⁶⁾ 정보 수집, 교양, 문제 해결 등 다양한 독서 목적이 존재하지만, 국어교육에서는 지식과 교양 중심의 독서에만 치중하였다는 것을 독서 교육의 문제로 꼽았다. 그래서 정보화 시대에 맞는 독서 방법을 통한 삶을 위한 독서와 학습자들이 주체적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비판적 읽기’³⁷⁾ 교육을 논의하였다.

윤여탁(2018)은 미디어와 국어교육이 통합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각각의 정체성 보존에 초점을 맞추었다. 국어 교과와 본질은 ‘도구 교과, 이념 교과, 문화 교과, 예술 교과’로³⁸⁾ 정리하였고 이러한 특성이 교육의 범위를 넓혀주고 다른 교과와의 융합을 가능하게 만든다고 하였다. 또한, 윤여탁(2018)

34) 방상호(2017)은 Reinking&Watkins(2000)를 인용하여 ‘멀티미디어 서평 쓰기 수업’을 제시하였다. 이는 학생들이 과제로 느끼는 독후감 쓰기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며 인터넷을 활용하여 서평을 쓴다면 실제적인 읽기 맥락이 형성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진 수업 형태이다. (방상호, 2017, 22-25쪽.)

35) 이삼형, 「학교 변화와 독서 교육」, 『독서연구』 42권, 한국독서학회, 2017, 9-28쪽.

36) 독서 환경, 방법 등이 변하여도 인간이 독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에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고 종합’하는 것이다. (이삼형, 2017, 14쪽.)

37) ‘비판적 읽기’를 ‘글에 나타나지 않은 필자의 의도나 행간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활동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이삼형, 2017, 19쪽.)

38) 윤여탁, 「국어교육의 융·복합적 특성과 문식성」, 『국어교육학연구』 53권 1호, 국어교육학회, 2018, 41-44쪽.

은 문학교육에서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고 언어로 표현하는 활동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위해 디지털 매체를 통하여 소통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윤여탁(2018)은 논의 마지막 부분에 새로운 사회에 맞추어 교육의 변화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지만 국어교육의 본질인 ‘인간의 소통’은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였다.

국어교육의 고유성 보존은 전통적 리터러시 개념과의 통합을 지향한 디지털 읽기·쓰기 수업 연구인 방상호(2017)와 독서 교육의 본질을 지키며 매체를 매개로 한 언어생활을 논의한 이삼형(2017)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교육의 주체가 단순히 매체의 특성에 집중하여 피상적인 매체 언어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며 국어교육의 역할을 탐구해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국어 과목의 개성을 살리면서 미디어 리터러시가 어떠한 방식으로 융합이 되면 좋을지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국어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관련지은 연구들은 사회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학생들이 문화를 즐기고 생산하는 긍정적인 주체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문화 창조의 기반인 국어를 다루는 국어교육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급격하게 학생들의 삶을 차지하고 있는 ‘유튜브’를 교육 제재로 삼아서 실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유튜브’를 교육 제재로 삼아서 복합 양식 텍스트의 특성을 분석하는 것을 통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인지적인 영역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유튜브’ 댓글 양상을 분석하는 활동을 젠더 감수성과 연관지어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 국어교육의 본질적 성격 중 하나인 ‘인간의 소통’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3) 국어교육과 성평등 교육

본고는 국어교육에서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국어교육에서의 성평등 교육을 다룬 선행연구를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성평등 교육은 젠더 감수성을 지녀서 성차별적 문제를 인지하고 성평등한 문화를 위해 실천하는 주체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김자혜(2002), 정지혜(2004), 김주연(2018), 장진화(2019), 장민혁(2020), 이원지(2021), 최유숙(2021) 등이 있다. 먼저 소설 작품과 성평등 교육을 다룬 연구로는 김자혜(2002), 정지혜(2004), 장진화(2019), 이원지(2021)가 있다. 김자혜(2002)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여성을 다룬 현진건의 소설 「빈처」와 임옥인의 소설 「후처가」에서 등장한 여성을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었다.³⁹⁾ 「빈처」의 아내는 가부장적인 남성에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여성으로 구분되었고 「후처가」의 주인공은 가족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는 의지적인 여성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작품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자신이 ‘아내’라면 남편의 태도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묻고 토의하는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성별 불평등을 예민하게 인지하고 여성과 남성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지혜(2004)는 김동인의 소설 「감자」에서 보이는 남성들의 폭력으로 몰락하는 여성인 ‘복녀’의 모습에 관하여 교사와 학생이 토의하는 수업을 구상하였다.⁴⁰⁾ 교사가 학생들에게 주인공의 행동을 페미니즘 관점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보도록 하며 작가가 이 작품을 왜 썼을지 생각하게 만든다.

39) 김자혜,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의 페미니즘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1-76쪽.

40) 정지혜,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학교육 방법 - 김동인의 감자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1- 89쪽.

또한, 학생들이 자신이 ‘복녀’라면 어떻게 대처해 나갔을지를 상상하게 하면서 작품이 창작된 시대와 여성 문제를 관련지어 이해하고 이를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하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한다.

김자혜(2002)와 정지혜(2004)가 구상한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학교육의 양상은 비슷하다. 학생들이 여성 인물에 집중하게 만들며 그 속에 담긴 작가의 가치관을 파악하며 이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본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고민하게 만든다. 그리고 학생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성차별 사례를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두 연구가 선정한 작품 속 여성들의 모습에서 불평등을 파악하는 교육 방법은 학생들에게 실제적인 성평등 교육을 제공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재 학생들과 가장 밀접한 온라인상에서 볼 수 있는 여성 혐오, 여성 혐오 표현 등을 가지고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을 해야 한다.

장진화(2019)는 박완서의 연작 소설 「엄마의 말뚝」을 문학 교육의 제재로 선정하여 이 작품에 담긴 페미니즘의 문제의식을 학습자들에게 전달하는데 초점을 두었다.⁴¹⁾ 이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학생들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한 학습 활동을 구안했다는 점이다. 또한, 국어 교과서에서 박완서의 소설을 주로 전후 소설의 성격으로 다루었다는 점을 문제로 삼고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성을 페미니즘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장진화(2019)는 직소 모형을⁴²⁾ 변형한 모둠 활동을 통해 연작 소설의 유기성과 작품 내용을 이해하고 하브루타 학습을⁴³⁾ 진행하여 소설 속

41) 장진화, 「페미니즘 소설 교육방안 연구 -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연작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9, 1-157쪽.

42) 직소 모형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할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모집단의 학생들이 각자 맡은 주제별로 전문가 집단으로 흩어져 그 주제를 철저하게 공부한 다음, 다시 자기 소속 집단으로 돌아와서 각자가 공부한 주제를 모집단 동료들에게 가르쳐 주고 평가를 받은 후에 집단별로 항상 점수에 근거하여 보상을 받는 교수·학습 모형이다.”(최미숙(2009), 49쪽.)

43) 하브루타 모형은 ‘논쟁 중심’과 ‘친구 가르치기’ 모형으로 나뉘는데, 수업 중에 동료 학습자

‘여성의 삶’에 관해 짝과 함께 이야기하게 하며 이를 바탕으로 ‘남성’을 가장으로 내세우는 전근대적인 사회 구조의 한계와 어머니의 모순적인 의식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차시의 수업에서는 「엄마의 말뚝」에서 배운 내용을 다른 소설, 드라마 등에 적용하여 학생들이 성차별적인 사회가 여성, 남성과 관계없이 모두 억압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한다. 즉, 학생들이 교실 내에서 배운 내용을 교실 밖의 사회에도 연결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교육 연구 자료로서 의의가 있다.

이원지(2021)은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수록된 현대소설을 젠더 감수성을 바탕으로 비판적으로 읽고 학생들이 재구성한 의미를 ‘다시 쓰기’ 활동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할 방안을 연구하였다.⁴⁴⁾ 문학 교수·학습 방법 중 대화적 방식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다양한 관점을 접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작에 담긴 젠더 규범을 자신만의 관점으로 바꿔보는 활동을 구성하였다. 즉, 이 연구는 ‘대화하기’와 ‘다시 쓰기’ 활동에서 모두 학습자가 다양한 각도에서 성차별 문제를 고찰할 수 있다는 장점을 부각하여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하였다.

서정 문학인 규방가사에서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적 활용의 가능성을 이야기한 장민혁(2020)은 주로 여성들의 가사라고 알려진 규방가사가 아닌 남성 화자가 등장하는 규방가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참신하다.⁴⁵⁾ 장민혁(2020)은 젠더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감정이입, 개방성, 비폭력, 자기성찰’의 요소가 남성 화자의 규방가사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작품들에 주목할 필요성을 제안한다.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로 규방가사를 구분하여 각각의 특징을 활용한 젠더 감수성 신장 교

와 대화하고 토론하는 모든 과정이 해당할 수 있다(추성경, 손은주(2019), 77-81쪽.)

44) 이원지,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 다시쓰기 교육방안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21, 1-90쪽.

45) 장민혁,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규방가사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20, 1-91쪽.

육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계녀가인 <여아술피라>는 학생들이 부모와 딸의 입장에서 공감하고 감정이입을 할 만한 요소들이 다분해서 젠더 감수성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자질인 ‘감정이입’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탄식이인 <망실이스>는 여성의 탄식과 깊이는 다르지만, 자신의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자기성찰’을 경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먼저 생각을 전달하는 화전가 작품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파악하거나 남성들이 여성들을 조롱하는 구절을 바꿔 쓰는 활동을 통해 ‘개방성’을 경험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문학교육을 기반으로 한 교육적 방안들이지만 그 속에 담긴 연구자들의 관점들은 국어과의 다른 영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이원지(2021)에 제시된 텍스트 선정 체크리스트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도 참고하여 수업에 적합한 자료를 선정할 수 있다.⁴⁶⁾

국어 교과서가 성평등한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 김주연(2018)은 성차별적인 인식에 초점을 맞추어 교과서에서 여성을 표현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⁴⁷⁾ 교과서는 모범적인 텍스트로서의 권위를 가지는 자료이기 때문에 교과서를 집필할 때에는 학생들에게 불평등한 인식을 심어주는 활동이나 제재, 삽화 등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 여성에게 모성 강요, 전근대적인 여성 표현, 여성의 비중 축소 등 성차별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과 남성의 동등하고 다양한 모습 보여주기, 모성을 여성에게 강요하지 말기, 여성이라는 이유로 여성의 활약을 축소하지 말기, 교사의 여성에 대한 인식 공부’를 들었다. 이 연구는 교과서에 아직까지 시대착오적인

46) 이원지는 “불평등한 사회구조, 성역할 고정관념, 젠더 규범의 억압”을 선정 요소로 삼아 텍스트를 선정하였다.(이원지, 2021, 31쪽.)

47) 김주연,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연구 -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흔적이 남아 있다는 아쉬움을 보여주면서 집필진과 교사의 올바른 여성에 대한 인식이 곧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 신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유숙(2021)은 대학교 교양 교육에서 미디어상 혐오 표현에 대한 대처 방안을 제안한 연구이다.⁴⁸⁾ 해결 방안으로 ‘글쓰기, 말하기, 대체 표현 바꾸기’를 들었는데, 이는 의사소통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국어과에서 충분히 참고할 만한 연구이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다. 미디어상의 혐오 표현을 적절한 단어로 대체하는 글쓰기 교육은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르게 쓰기’에 대한 생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말하기 교육은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혐오 표현에 대응하는 표현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인권 의식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의사소통 능력과 함께 젠더 감수성까지 기를 수 있는 방안으로 상대의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춘 민주 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여기까지 국어교육과 성평등 교육을 관련 지어서 살펴보았다. 대체로 시대 변화에 따른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어교육에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가장 가깝게 접하는 미디어를 중점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삼은 선행연구는 아직 부족하다. 젠더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온라인과 현실 세계에서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는 실상을 학교 교육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즉, 학교 교육은 ‘유튜브’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부분을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까지 기를 수 있도록 교육 경험 제공해야 한다.

48) 최유숙, 「미디어상의 혐오표현과 해결방안으로서의 대응표현 연구: 교양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5,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285-334쪽.

II.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1. 2015 교육과정 분석

국어교육에서의 젠더 감수성 함양의 필요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2015 교육과정 총론과 성취기준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가 고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개정 방향과 연관 지어 국어교육에서 더욱 유념해야 할 부분을 정리하고 젠더 감수성 성장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에 적용해 보려고 한다. 먼저 2015 교육과정의 총론에서 밝힌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표 1> 2015 교육과정 총론 ‘추구하는 인간상’⁴⁹⁾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가’에서 말하는 ‘자주적인 사람’이란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자아개념은 ‘나는 누구인가’에 관해 스스로 결론을 내린 주관적인 견해이다.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주로 친구, 부모님, 선생님 등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신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49)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6. 33쪽.

지각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람 대 사람의 대면적인 상호작용 이외에도 매체를 통해 바라보는 세상에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와 관련된 성과 관련된 자아개념과 관련지어 보자면 학생들이 남성으로서의 나, 여성으로서의 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사람은 자신의 성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는다면 성과 관련된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게 된다. 그리고 사회가 인간을 굳어진 성 고정관념에 가둔다면 이 또한 부정적인 자아개념으로 이어진다.

성 고정관념을 생산하는 원인으로 매체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 사회인지 학습이론을 주창한 반두라(1973, 신명희(2020:233)에서 재인용)의 ‘모델의 형태에 따른 공격성 모방 반응’ 실험을 통해 ‘실제 모델, 영상 모델, 만화 모델’ 순으로 학생들의 모방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⁵⁰⁾ 즉, 이 실험을 통해 영상과 같은 매체가 학생들의 발달에 끼치는 위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사회 시대의 도래 이후로 인간과 디지털 매체는 떨어트릴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매체 속 모델들의 차별 표현과 혐오표현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지 못한 채 접하는 학생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차별에 노출되고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환경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학생들이 매체 속 문화의 기저에 깔린 차별 표현, 비하 표현, 성적 대상화, 성차별 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누리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나’에서 말하는 ‘창의적인 사람’은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바탕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고 개방적인 태도로 임하며 창의적인 것을 창출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총론 해설(2015)에서는 창의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기초 지식과 전문 지식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리적이고

50) 위의 책, 233쪽.

비판적인 관점에서 열린 자세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⁵¹⁾ 그리고 확산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로 새로운 것을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을 창의적인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학생이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성 역할 고정관념은 학생이 자신의 능력과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데 방해물이 된다.⁵²⁾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디지털 매체이다. 학생들은 가장 익숙하고 자주 접하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매체 사용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매체 속 문화와 같은 추상적인 부분까지 나름대로 문제를 발견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거나 담론 형성을⁵³⁾ 위해서도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비록 사회 문제 해결이 구체적이고 직관적인 결과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결과물’의 범위를 확장해서 개인과 사회의 인식 변화까지도 포함한다면 이는 사람이 사회 맥락의 변화에 적응하고 디지털 매체를 알맞게 사용하여 그들의 문제에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창의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지털 매체는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를 유발하는 도구이자 학생들이 자유롭게 즐겁게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나 디지털 매체는 학생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성 역할 고정관념을 내면화시킬 정도로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학생들이 자신의 매체 생활을 성찰하고 열린 시각을 통해 주체적으로 매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51) 교육부(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2020, 34쪽.

52) 만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과학 교과에 있어서 뛰어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여학생이 과학 교과 시간에 ‘나는 여자니깐 과학을 못 한다.’라는 사고로 하게 만든다면 이는 최소한 여학생이 과학 분야와 관련해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만약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꼼꼼하고 감성적이다.’라는 고정관념이 있는 상태에서 남학생이 예술 교과 시간에 ‘나는 남자니깐 여자보다 못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면 이는 최소한 남학생이 예술 분야와 관련해서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위축되게 만든다.

53) ‘스쿨 미투’와 같이 대중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주로 SNS에서 해시태그 운동을 통해서 학교의 문제에 주목하도록 만든다.

길러 창의적인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

‘다’에서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은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된다. 사회에서 온전한 인간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교양을 쌓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양’의 요소는 인류의 문화유산과 같은 지적이고 심미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수도 있지만,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정에서 말하는 ‘교양 있는 사람’의 ‘교양’을 성 평등 가치관으로 보았다. 학교에서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존중하는 사람으로 자라도록 만든다. 그리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학생들이 상대의 관점과 처지를 이해하고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고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위한 교육 경험을 제공한다.

공감적인 이해 능력은 대면적 의사소통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지만 매체 속에서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모두가 갖추어야 할 자질이다. 지금 사회는 여러 종류의 갈등을 겪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는 젠더 갈등이다. ‘젠더 갈등’은 나와 상대가 동등한 위치일 때 나타나는 갈등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이 지니고 있던 권력은 성차별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는 현대 사회에서도 아직도 여성을 억압하는 수단이자 폭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남아 있다. 오래전부터 여성들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실이든 미디어상이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여성들의 연대는 미투 운동, 불법 촬영 해결 촉구 시위 등으로 이어졌고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성 평등을 위해 많은 이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각고의 노력에도 기울임에도 성차별은 여전히 남아 있고 이제는 남성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 시점에서 ‘젠더 갈등’이 대두된다.

‘젠더 갈등’은 공감적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근거이다. 사람들이 성 평등을 외치는 것은 생존하기 위해서이다. 생존을 위한 분투를 역차별로 단정을 짓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왜 성평등을 외치는가를 이해하고 공감해야 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외치는 노력이 역차별로 이어진다는 왜곡된 생각을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검토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 ‘젠더 갈등’은 미디어상에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에서 시작된 논란은 현실 사회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국어교육은 매체를 향유하는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능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성 평등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지 않도록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며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젠더 감수성 신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라’에서 제시한 ‘더불어 사는 사람’은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공동체의 가치를 따르고 나아가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 민주 시민 사회는 모든 이들이 동등한 위치에 있을 때 실현될 수 있고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온전한 성 평등은 필수이다. 국어교육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 기능, 태도를 가르쳐야 한다. 성 평등은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의 성장을 위한 교육 내용 중에 주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더불어 사는 사람’은 사회성 발달과 관련이 깊다. 사회성은 인간이 배려와 나눔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게 만든다. 인간은 가정에서 시작해서 학교로 이어지고 사회로 확장되는 사회화의 과정을 거친다. 즉, 사회 속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공동체가 요구하는 지식, 기능, 문화, 태도, 가치 등을 갖추어야 하는데, 브론펜브레너(2013, 신명희(2020:77)에서 재인용)의 생태학적 체계 모델에 의하면 대중 매체는 ‘외체계’로서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⁵⁴⁾ 그리고 대중

54) 신명희, 강소연 외 7인, 『교육심리학』, 학지사, 2020, 77쪽.

매체에서 영향을 받은 미시 체계의 사람들이 아동에게 다시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대중 매체에서 접하는 경험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사는 데 있어서 성평등을 지향하는 것과 같이 바람직한 방향이어야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금까지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연구 주제를 관련지어 분석해 보았다. 2015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가 학생들이 성평등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교육과도 관련지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내세운 비전인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은⁵⁵⁾ 2015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에서 발전된 것이다. 이 비전을 젠더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방향으로 교육과정을 개선하였다. 민주 시민 교육을 위해서 ‘평화, 성 평등, 인권, 문화 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을⁵⁶⁾ 함양하는 것을 주요 요소로 꼽았다. 즉, 학교 교육에서도 성 평등과 인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민주 시민 교육의 주요 영역인 ‘민주주의와 사회적 현안, 비판적 사고, 민주적 의사결정, 시민의 참여와 실천 등’에서⁵⁷⁾ ‘비판적 사고’는 이 연구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요소이다. 마찬가지로 민주 시민 교육의 내용 요소 중 ‘미디어 리터러시와⁵⁸⁾ 사회적 공감과 의사소통’은 학생들의 삶과 더욱 밀접한 교육을 위한 시도로 성 평등을 위

55) 교육부(c),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2021, 9쪽.

56) 위의 책, 15쪽.

57) 위의 책, 15쪽.

58)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는 디지털 소양에 대한 개념을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였다.(교육부(c), 2021, 13쪽.)

해 필요한 내용이다.⁵⁹⁾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이 매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 특성과 관련된 지식을 기반으로 매체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윤리적인 자세, 특히 성평등한 사람으로서 매체를 향유할 수 있도록 매체 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해 나가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평등을 연계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이 매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을 때 자신과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한다. 또한,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단순히 예민한 것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은 연구 주제를 국어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과 관련 지어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 먼저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은 텍스트 생산과 수집, 분석, 평가의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무엇인지와 텍스트가 은연중에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이 아닌지 등을 따져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의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시각이 중요하다. 평가가 끝난 후 재구성된 텍스트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학습자의 상위 인지이다. 특히 신뢰성,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 등을 기준으로 텍스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수용자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상위 인지 능력이 매체 수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디지털 매체는 누구나 텍스트를 생산할 수 있는 열린 공간

59)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에서는 “평화, 인권, 성평등, 문화다양성, 지속가능성 등을 개인과 공동체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태도를 함양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연계 강화”라고 하면서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교육부(c), 2021, 15 쪽.)

이고 대량의 정보가 경계선 없이 확산하는 공간이다. 누구든지 접근 가능한 공간이기에 학생들은 디지털 매체에서 접하는 미디어 텍스트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생산해 내는 텍스트가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책임감 있게 매체 생활에 임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창의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창의성은 지식을 기반으로 유용하고 가치 있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인데, 가치 있는 것은 곧 윤리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있을 때 성립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유튜브 속의 영상물을 단순히 재미로 즐기는 것에 대한 경계심을 길러주는 것을 다루기 때문에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과 관련이 깊다.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은 궁극적으로 성 평등을 지향하는 국어교육을 위한 본 연구와 가장 연관된 부분이다. 2015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은 “음성 언어, 문자 언어, 기호와 매체 등을 활용하여 생각과 느낌, 경험을 표현하거나 이해하면서 의미를 구성하고 자아와 타인, 세계의 관계를 점검·조정하는 능력”라고⁶⁰⁾ 정의하였다. 그리고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공동체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상호 협력하며 관계를 맺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라고⁶¹⁾ 정의하였다. 이를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중에서 ‘자주적인 사람’과 연관을 지어 본다면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진 자기 주도적인 사람이라면 갖출 수 있는 역량이다. 또한, 의사소통 역량을 갖춘다면 자주적인 사람이 될 수 있어서 둘은 서로 영향을 주는 상호 영향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의사소통 역량에서도 매체를 활용하는 것을 언급했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기준이 필요한데, 성 평등이 점검 기준 중 하나라고 할

60) 교육부(b),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2015. 3쪽.

61) 위의 책, 3쪽.

수 있다. 관계를 형성하고 점검한다는 것은 곧 민주 시민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자질을 갖추는 것인데, 민주 시민으로서 상호 연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배려하며 표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정한 공감은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인식 속에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의사소통 역량 함양을 위해서는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자아와 타인을 동등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존중하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은 공동체의 가치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공동체의 가치는 문화권마다 각각 다양한 요소를 들겠지만, 표면적으로 ‘인권, 평등’을 모두 지향한다는 점에서는 같다. 하지만 사람들이 일장에서 접하는 부분이 진정한 평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 성차별은 전 세계적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계속 외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디지털 매체가 발달한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매체로 인해서 유발되는 성차별이 만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의 가치인 ‘평등’을 진정으로 존중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학습자의 삶과 더욱 밀접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위해서 매체 교육 속에서의 성 평등 교육이 필요하다. 2015 교육과정 당시보다 2022년도 현재는 디지털 매체 기술이 급격하게 발달하였고 ‘유튜브’의 위상도 현저히 높아졌다. 하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민감하고 유연하게 적응하고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의 젠더 감수성을 신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여 성차별로 인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어교육에서 추구하는 핵심 역량은 성취기준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된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을 학년별로 쏙아 보고 위계성이 드러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성취기준

<p>[9국 02-07] 매체에 드러난 다양한 표현 방법과 의도를 평가하며 읽는다.⁶²⁾</p>	<p>[10국 02-02] 매체에 드러난 필자의 관점이나 표현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며 읽는다.⁶³⁾</p>	<p>[12 언매 03-06] 매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⁶⁴⁾</p>
--	---	---

먼저 중학교 읽기 성취기준 ‘[9국 02-07]’에서는 글 속에 제시된 도표, 그래프, 사진 등 시각 자료부터 동영상 자료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매체의 개념에서 시작하여 매체의 특징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매체 자료를 사용하는 기본 능력을 기르는 성취기준이다. 그리고 표현 방법이 글의 주제와 목적에 적절한가와 관련된 효과를 판단하는 성취기준이기 때문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출발점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이러한 성취기준을 통해 매체를 읽고 쓰는 경험을 하고 ‘[10국 02-02]’ 성취기준을 통해 읽기 영역에서 심화 된 내용으로 구성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받는다. 교육과정의 위계성에 따라 이전 학년 때 배운 내용을 기반으로 매체를 보는 열린 시각을 키워가기 위한 성취기준으로 매체 자료의 구성 요소를 분석하여 필자의 관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필자의 관점과 표현 방법이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를 점검하는 데까지 나아간다. 비판적 사고 역량을 기르는 데 적합한 성취기준으로서 학생들이 텍스트를 표면적인 내용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텍스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이데올로기까지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이

62) 위의 책, 44쪽.

63) 위의 책, 59쪽.

64) 위의 책, 114쪽.

주체적인 매체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후에 고등학교 선택과목 ‘언어와 매체’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범위를 문화까지 확장하여 학생들의 삶과 좀 더 밀접한 교육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성취기준으로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 성취기준은 대중문화의 특성을 이해하고 대중문화 속 상업성, 지배적 이데올로기, 통속성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한다. 그리고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면서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이 성취기준에 초점을 두고 교육 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학생들이 대중문화를 향유하면서 젠더 감수성을 지니고 바라보아야 할 문제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성 혐오 범죄를 통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인식하고 이를 ‘유튜브’라는 영상 매체에서는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유튜브’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 중 하나이며 시공간의 제약이 없을뿐더러 수용자들 간의 소통도 활발한 공간이다. ‘유튜브’ 영상의 주제가 여성 혐오 범죄라는 것과 ‘유튜브’ 영상의 복합 양식적 특징이 여성과 남성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젠더 감수성 향상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방식이다. 또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 양상을 분석하면서 성차별적 표현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과 함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차별적인 사회 구조를 변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는 방향으로 수업이 진행된다면 교육과정에서 언급한 ‘대중문화의 부정적인 측면의 최소화’라는 목표에도 부합할 것이다. ‘유튜브’라는 매체를 젠더 감수성과 연관 지어 보는 교육은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정체성 형성과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2. 『언어와 매체』 교과서 속 학습 활동 분석

이제까지 국어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성취기준을 통해 젠더 감수성을 신장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에 관하여 이야기하였다. 지금부터는 현재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실현된 매체 교육과 젠더 감수성 신장 교육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어와 매체’ 교과서는 12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선택과목이다. 12학년은 보통 고등학교 2~3학년 군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학생들이 매체 향유 태도를 학교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이다. 현재 디지털 매체 환경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앞으로 발전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며 살아가는 주체로서 성장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학교는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초연결 시대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태도를 갖추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국어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매체를 향유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익명을 무기 삼아 혐오와 차별을 보이는 행태에 대해서 학생들이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무의식중에 가진 성차별적 의식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2, 3학년이 되기 전에 경험한 매체 교육을 통해 매체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전까지 경험한 성 평등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은 각자 나름대로 성 평등과 관련된 의식이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언어와 매체’에서는 학생들과 가장 익숙한 도구인 매체를 활용하여 자신의 의식 속에 내면화된 성차별적 시각을 의식화하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벨 후스(2017)는 성 평등 사회를 위해서는 여성들이 성차별적 사고를 성찰하고 성 평등한 사고로 전환하여 태도를 바꾸는 ‘의식화’가 필요하다고 말

하였다.⁶⁵⁾ 이러한 ‘의식화’는 여성들이 불평등을 인지하고 이를 깨뜨리기 위한 동력을 얻는 데 필요한 개념으로 제시되었지만, 여성과 함께 남성들도 ‘의식화’를 통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 시각을 반성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언어와 매체’ 교과에서는 매체 교육과 성 평등 교육을 결합하여 ‘의식화’를 통해 자신이 현재를 살아가는 방식을 반성하고 공감과 공존의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이야기의 장을 열어 주어야 한다. 따라서 혐오를 키우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언어 사용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 ‘언어와 매체’ 교과를 선택했다.

교육 제재의 중심은 ‘유튜브’로 삼았다. ‘유튜브’는 학생들이 가장 친숙하고 활발하게 사용하는 매체이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영향을 주고받는 학생들은 무의식중에 불평등한 사회에 맞닥뜨리게 된다. 만일 학생이 성평등한 시각을 가진 채 비판적으로 ‘유튜브’ 영상의 표현과 내용을 바라본다면 교육과정에서 목표로 하는 주체적인 매체 향유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학생이 성차별적인 시각을 가진 채 혹은 단순히 유희를 목적으로 혐오를 게임처럼 즐긴다면 국어교육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그래서 본고는 ‘유튜브’가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하는 매체라는 이유로 수업 제재로 삼았다.

따라서 ‘유튜브’와 ‘젠더 감수성’을 기준으로 삼아 ‘언어와 매체’ 교과서 학습 활동을 분석하려고 한다. 현재 ‘언어와 매체’ 교과서는 ‘지학사, 비상, 창비, 미래엔, 천재(민)’이라는 출판사에서 발간된다. 본고는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매체 향유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학습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각 출판사의 학습 활동을 간단히 재구성하였다. 그리고 각 기준별로 2개씩 선정한 학습 활동 실현 양상을 자세히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65) 벨 훅스, 이경아 옮김, 『모두의 페미니즘』, 문학동네, 2017, 38-39쪽.

1)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먼저 ‘유튜브’와 관련된 학습 활동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교과서에서 ‘유튜브’를 직접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인 방송’이나 ‘영상 공유 프로그램’으로 명명하면서 이와 같은 매체가 대중문화에 끼친 영향에 관해 이야기하는 교과서가 존재하였다. 1인 방송과 같은 매체의 발달이 대중문화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본 후에는 이를 향유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교과서도 존재하였다. 다음은 각 교과서별로 ‘유튜브’와 관련된 학습 활동의 양상을 정리한 표이다.

<표 3> ‘유튜브’와 관련된 교과서별 학습 활동

교과서 출판사	학습 활동
지학사	1인 방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1인 방송 주제와 제작 맥락 구성 동영상 공유 사이트가 대중문화 발달에 끼친 영향
비상	1인 방송과 같은 매체의 변화가 사회의 소통 현상에 끼친 영향 뉴 미디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 탐구
창비	공익 광고 영상의 표현 방법과 효과 1인 미디어의 개념과 특징, 매체 문화를 향유하는 바람직한 태도 외교 사절단으로서 1인 미디어 자료 만들기
미래엔	‘유튜브’와 같이 매체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례 탐구
천재(민)	온라인 댓글과 관련된 영상을 보고 매체 자료 생산이 매체 문화 형성에 끼치는 영향 생각하기

‘유튜브’와 관련된 학습 활동에서는 주로 ‘유튜브’와 같은 1인 미디어의 특징을 살펴보고 매체 문화 형성에 끼치는 영향을 탐색해 보는 활동이 제시되고 있다. 본고는 ‘지학사’와 ‘비상’ 교과서를 선택하여 학습 활동을 분석하려고 한다. 이 두 개의 교과서에서 1인 미디어를 부각하여 독립된 학습 활동으로 구현해 놓았기 때문이다. 먼저 지학사 교과서는 성취기준 “[12언매

-03-05]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를 바탕으로 1인 방송을 다루고 있다.⁶⁶⁾ 다음은 교과서에 수록된 1인 방송 관련 글 제재이다.

<표 4> ‘지학사’ 교과서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①

기자: 인기 연예인이 미용과 최신 유행을 주제로 1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벼운 주제를 가지고 사적인 모습과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보여 주는 이 영상은 조회 수가 2만 건을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이처럼 특정 1인이 주체가 돼 다양한 주제를 갖고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작되는 개인 방송이 하나의 방송 콘텐츠 분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정적인 내용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1인 방송은 더욱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터뷰] 한국콘텐츠진흥원 책임 연구원: 젊은 세대는 이미 인터넷이나 이동 통신 기기를 통한 동영상 이용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인터넷 개인 방송은 국경에 제한 없이 세계로 확산할 수 있기에 재미있고 창의력을 갖춘 개인 방송 콘텐츠는 한류 콘텐츠의 새로운 원천이 될 가능성이 큼니다.

- 에스비에스(SBS) 2015년 7월 2일 방송

(1) (가) 와 (나) 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요약해 보자.

(2) 자신의 경험을 참고하여 (가) 와 (나) 에 나타난 ‘누리 소통망(SNS)’과 ‘1인 방송 매체’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적어 보자.

(3) 모듈을 이루어 ‘바람직한 매체 문화와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의해 보자.⁶⁷⁾

윗글은 창의성 발달, 자유로운 주제, 편리한 쌍방향 소통 등을 들어 1인 방송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선정성을 언급하면서 가벼운 정도로 다루고 있다. 이는 매체에 관해 부정적인 측면은 최소화하려는 교수·학습 방향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다른 성취기준에서 비판적 향유와 매체 언어생활 성찰과 개선을 다루기 때문에 가볍게 언급하는 정도로 지나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윗글을 읽고 1인 방송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과 관련된 배경지식을 활성화하여 이야기를 나눌 수

66) 앞의 책, 114쪽.

67) 지학사, 『언어와 매체』, 2019, 190쪽.

있다. 첫 번째 학습 활동으로는 ‘읽글을 요약하기’가 제시되어 있다. ‘요약하기’는 학생들이 글의 내용을 해석하고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리터러시 교육에 해당한다.

두 번째 학습 활동은 자신의 경험과 관련하여 1인 방송 매체와 관련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떠올려 보는 활동이다. 이는 학생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학습 활동으로 매체의 양면적인 효과를 분석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여 매체를 누리는 주체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반이 된다. 1인 방송과 같은 매체가 대중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며 발전 가능성을 다룬 기사의 논조가 대체로 긍정적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현대 사회에서의 매체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다. 세 번째 학습 활동은 모둠 활동으로 바람직한 매체 문화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학습이다. 성취기준에 따르면 바람직한 매체 문화와 발전 방향을 다루는 교수학습에서는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다루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학습 활동이 ‘존중과 배려’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수록된 자료로는 미흡하다. 그래서 세 번째 활동에서 학습자 간 토의 활동이 ‘존중과 배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표 5> ‘지학사’ 교과서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 ②



(1) (가) 와 (나) 의 특징에 대한 설명을 알맞게 연결해 보자.
 (2) 대중문화의 발달 과정에서 (나) 의 등장이 끼친 영향은 무엇일지 말해보자⁶⁸⁾

다음에 제시된 학습 자료는 전통극 공연과 동영상 공유 사이트를 보여 주는 사진이다. 시공간의 제약이 존재하는 전통극과 다르게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대량으로 영상을 전파할 수 있는 동영상 공유 사이트의 특징을 도출해 내는 활동이다.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는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상업성을 띠고 있다는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사람들이 댓글로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구어의 상호교섭성 성격이 매체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대중문화의 발달 과정과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유튜브’를 제시한 것은 학습자의 수준과 실생활의 맥락을 고려하여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를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이 학습 활동은 대중 매체의 대량 확산과 전달과 같은 특징 외에 해당하는 성취기준과 명확한 관계가 없어도 상업성을 학생들이 인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학생들이 매체의 상업성에서 이어지는 성 상품화와 같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 학습 활동은 ‘유튜브’의 장단점을 함께 다루었으며 교과서 자체에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보다 토의와 대화로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그래서 학습자 참여형 수업의 제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68) 위의 책, 191쪽.

<표 6> ‘비상’ 교과서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69)

3 뉴 미디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탐구해 보자.

(1) 다음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타나는 뉴 미디어의 특성과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파악해 보자.

- '마이 리틀 텔레비전' (엠비시(MBC))

비상 교과서는 성취기준 “[12언매 01-03] 의사소통 매개체로서 매체의 유형과 특성을 이해한다.”를 바탕으로 1인 방송을 다루고 있다.⁷⁰⁾ ‘마이 리틀 텔레비전’은 ‘유튜브’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지만 ‘유튜브’와 같은 뉴 미디어기 때문에 ‘유튜브’ 관련 학습 활동에 포함하였다. 이 학습 제재는 학습자의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교과서를 접하는 것은 그 방송이 한창 인기 있던 때가 아닐 수 있기에 학생들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해당 내용을 교육하는 시점에 대두된 사회적 쟁점과 관련된 매체 자료로 수업

69) 비상, 『언어와 매체』, 2019, 30-31쪽.

70) 교육부(b),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2015, 109쪽.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위의 학습 활동은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성격이 결합한 뉴 미디어의 특성을 이해하고 매체 언어의 복합 양식성을 이야기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학생들은 해당 내용을 영상으로 감상한 후 효과음, 자막, 이모티콘, 대사 등이 결합한 장면이 구성한 의미를 시청자들이 수용하는 양상을 통해 복합 양식성의 의미 전달 방식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복합 양식적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는 기반이 된다. 그리고 인터넷 생방송 중에 생산자가 시청자들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 ‘유튜브’가 ‘의사소통 매개체’라는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 이처럼 뉴 미디어와 복합 양식성의 특성을 짚어본 후에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매체를 선정하여 복합 양식성을 찾아 발표하는 활동이 있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들이 뉴 미디어 매체를 이론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생들의 실생활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매체 향유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

지금부터 살펴볼 학습 활동은 비판적·주체적 향유 태도를 기르는 성취기준 “[12 언매-03-06] 매체 언어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되는 문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한다.”와 관련된 활동이다.⁷¹⁾ 이러한 성취기준은 상업성, 통속성, 지배적 이데올로기 등 ‘유튜브’에서 구성하는 정보의 구성 과정을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준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 속에 담긴 성차별적 시각을 인지하고 이에 대해 학습자 간의 대화를 통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내는 활동이 가능하다.

대중 매체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향유와 관련된 학습 활동은 대중 매체

71) 위의 책, 114쪽.

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읽기 자료를 제시한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수용할 때의 주의점을 토의를 통해 정리하는 식으로 마무리한다. 교과서에서는 대중 매체 속에 담긴 외모 지상주의, 상업성, 통속성 등을 탐구하기 위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교과서별로 대중문화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향유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을 정리한 표이다.

<표 7> 매체 향유 태도와 관련된 교과서별 학습 활동

교과서 출판사	학습 활동
지학사	대중문화를 주체적으로 향유하기 위한 올바른 태도 토의하기
비상	대중 매체의 영향력 이야기하기 대중문화를 수용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주제로 토의하기 대중문화를 감상하고 댓글을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기
창비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 마련하기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문화적 영향 정리하기
미래엔	대중 매체의 영향력과 관련된 사례 탐구하기 간접 광고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대중문화의 상업성 탐구하기 대중문화에 나타난 지배적 이데올로기와 통속성에 관해 탐구하기
천재(민)	대중문화의 장점과 문제점 생각하기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방법 마련하기

대중문화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향유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에서는 먼저 대중 매체의 영향력을 이해하는 사례를 통해 대중 매체의 장단점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활동으로 마무리를 한다. 본고는 ‘창비’와 ‘미래엔’ 교과서를 선택하였다. 두 교과서에서 제시한 학습 활동에서 좀 더 감수성 신장과 관련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창비 교과서에서는 인간과 우정을 나누는 존재인 킹콩이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되는 영화 <킹콩>을 ‘게이트 키핑’에⁷²⁾ 초점을 두어서 보

72) ‘게이트 키핑’이란 뉴스 생산자가 뉴스를 취사선택하여 만들어 내는 과정을 뜻한다. 뉴스를

여 주고 있다. 영화감독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연 속에서 살던 킹콩을 데려온 후 킹콩이 도망치자 킹콩을 인간에게 위협적인 존재로 만드는 뉴스의 모습이 제시된다.

<표 8> ‘창비’ 교과서 학습 활동73)

2 다음 자료를 보고 뉴스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마련해 보자. ▶

(가) 무엇이 뉴스가 되는가

Thumbnail 1: A gorilla with a speech bubble saying "서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The West is so beautiful.)

Thumbnail 2: A woman with a speech bubble saying "제발 쓰지 마세요!" (Please don't use it!).

Thumbnail 3: A rescue scene with text: "미국 뉴욕에 거대 괴수 출현 인간인 여성 1명 납치" (A giant monster appears in New York, USA. One female human is kidnapped.)

Thumbnail 4: A woman with text: "괴수 공군과 교전 중 납치 여성 구조 요청" (In the middle of a battle with the monster army, a request for rescue of the kidnapped woman.)

Thumbnail 5: A woman with text: "<사회> 재산 피해에 뉴욕시 주민 2만명만 각국에서 구호 활동 이어져" (In the social aspect, only 20,000 residents in New York City are engaged in relief activities in each country due to property damage.)

Thumbnail 6: A woman with text: "<경제> 괴수를 잡는 초산 전투기 자기 국내 도입 검토 중" (In the economic aspect, the introduction of super-sonic fighters to catch the monster is under review.)

Thumbnail 7: A woman with text: "<연예> 괴수를 유인한 1인방의 매력은 누구?" (In the entertainment aspect, who is the one who lured the monster? What is their charm?)

Thumbnail 8: Text: "뉴스가 된 사실들 그리고 뉴스가 되지 못한 진실들" (Facts that became news and truths that did not become news.)

Thumbnail 9: Text: "게이트 키핑 (gate keeping) 뉴스 매체 조직 내에서 기자나 편집자와 같은 뉴스 결정권자에 의해 뉴스가 취사선택되는 과정을 말한다." (Gatekeeping: A process by which news is selected by news decision-makers such as journalists or editors within news media organizations.)

- 이비에스(EBS), 『지식 채널 e』

학습 활동 세 번째 사진에서 주인공이 “제발 쓰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대사와는 다르게 뉴스 자막은 “납치 여성 구조 요청”으로 나타나고 있다. 게이트 키핑 과정에서 자극적인 내용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실을 왜

취사선택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의 신념, 가치가 반영되기 때문에 뉴스 수용자들은 비판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내용을 이해해야 한다.
73) 창비, 『언어와 매체』, 2019, 168-173쪽.

곡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학생들은 대중매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필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제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매체의 이면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도록 할 수 있다. 위의 각 분야의 뉴스 장면의 제목이 각기 다른 것을 보면서 학생들은 같은 사건을 두고 정치적, 상업적 의도에 따라 다르게 표현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그리고 매체 자료의 생산자의 관점과 표현 의도가 수용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교사는 대중 매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상업적 의도에 영향을 받은 수용자가 자신이 해석한 의미를 설득, 유희, 왜곡 등 어떤 목적으로 진과할 수 있는지를 탐구해 보도록 만들 수 있다.

이 학습 활동은 영화 <킹콩>과 연관 지어 ‘게이트 키핑’의 개념을 제시한 후에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가짜 뉴스 판별법을 제공한다. 그리고 가짜 뉴스와 관련된 읽기 자료를 통해 ‘돈’을 목적으로 한 자극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을 추구하는 가짜 뉴스의 문제점을 제시한다. 오직 이윤만 목적인 뉴스를 통해 일어나는 문제점으로 젠더 갈등을 들 수 있다. ‘유튜브’에는 ‘사이버 렉카’를 주축으로 가짜 뉴스를 이슈화하여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렉카(wrecker)’는 견인차라는 뜻으로 온라인 상에서 이슈가 발생한다면 이를 짜깁기하여 영상을 만들어 조회 수를 올리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를 말한다.⁷⁴⁾ 자극적인 제목과 선정적인 섬네일로 수용자들의 선택을 받는 사이버 렉카의 영상은 현대판 마녀사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사이버 렉카의 말을 있는 그대로 믿고 당사자의 ‘유튜브’나 SNS 등에 심각한 악성 댓글을 달며 피해를 준다. 근거 없는 비방과 비난은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비난이 정당하다는 합리화를 통해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다. 학교 교육에서 과거 악성 댓글을 달지 않기 등 정보 윤리 교육을 진행했다면 이제는 학생들이 ‘유

74) SBS 방송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사이버 렉카’들이 중립성과 객관성, 교양, 윤리가 없는 채로 오직 ‘돈’을 목적으로 하는 방송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다는 실태를 보여준다.

튜브' 속 정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해당 학습 활동은 가짜 뉴스 구별 방법을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성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학습 활동 사진 속에 '연예: 괴수를 유인한 금발의 매혹녀는 누구?'라는 제목이 여성의 외모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 여성이 킹콩을 유혹했다고 왜곡하면서 '~녀'라고 폄하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학생들은 이렇게 성차별적인 시각으로 만들어진 자극적이고 편향된 자료를 그대로 받아들여 폭력적으로 남을 비난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비판과 비난을 구별해야 하고 비판이 아니라 내가 심판을 내려야 하고 응징하고 싶다는 생각에 몰입하여 무차별적인 공격을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미래엔 교과서는 본 연구 주제와 가장 관련이 깊은 학습 활동이 구현되어 있다. 먼저 대중문화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과 관련된 읽기 자료가 수록되어 있다. 읽기 자료에는 대중문화의 빠른 전달 속도와 파급력, 사회적 문제에 관한 관심, 여론 형성과 의견 공유 등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윤 추구를 위한 상업적 의도, 통속성, 흥미 위주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자극적인 영상, 지배적 이데올로기 반영과 같은 단점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대중문화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태도의 중요성으로 설명을 마무리하였다.

<표 9> ‘미래엔’ 교과서 학습 활동75)

(1) <슈렉>의 두 주인공을 공주와 왕자가 등장하는 다른 동화와 비교해 보자.

○ <대공작>, <백야공주>, <그대는 숲속의 공주> 등

- 동화 제목
- 등장인물의 특징과 역할
- 줄거리
- <슈렉>과 비교하기


(2) (1)의 활동을 바탕으로 <슈렉>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 의식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자.

<슈렉>은 다른 동화들에 흔히 등장하던 남성들을 모두 패러디하면서 비꼬고 있어, 고정 관념을 뒤집는 인물의 외모와 성격은 관객들에게 새롭게 다가왔을 거야.

몇 가지 새로운 설정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 슈렉은 공주를 구출하는 상투, 피오나는 구출을 기다리는 공주라는 기존 동화 속 역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3)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사회적 통념이 드러나는 사례를 찾아보고, 이를 새롭게 써 보자.

내가 찾은 사례	↓
새롭게 써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물 소개 • 줄거리



위의 학습 활동은 연구 주제와 가장 관련 깊은 학습 활동으로 <슈렉>에서 나타난 남성과 여성에 대한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판단하는 활동이다. 슈렉은 사회에서 아름다운 여성으로 규정짓는 모습이던 기존의 공주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온다. 그리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행복한 결말을 맞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작품이다. ‘공주는 아름다워야 한다.’라는 외모와 관련된 고정관념을 뒤집은 작품으로서 높게 평가되지만, 기존의 공주처럼 남자 주인공의 도움을 받는 역할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슈렉>에서 그리는 여성과 남성의 지배적 가치를 분석해 보는 활동은 학생들이 평소 자기의식 속에서 남성과 여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성찰해 보도록 한다. 이러한 활동은 내면의 성차별적 시각을 의식적으로

75) 미래엔, 『언어와 매체』, 2020, 178쪽.

되돌아보는 ‘의식화’에 해당하기 때문에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편견을 무너뜨리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위의 학습 활동은 교육 제제가 애니메이션이지만 이를 ‘유튜브’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다. 앞서 학습 활동에서 짚어 준 상업성, 통속성,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모두 ‘유튜브’에서 찾아볼 수 있고 특히 성차별, 여성 혐오와 같은 문제를 다룰 수 있다. 학생들은 자신이 평소에 수동적으로 매체에서 불평등한 시각 속에서 만들어진 여성과 남성을 수용하는 것은 아닌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3)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학습 활동

교과서를 만들 때 성차별적인 제재, 삽화 등을 담지 않도록 검토하는 과정은 필수이다. 그래서 본고가 살펴본 ‘언어와 매체’ 교과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성차별적인 부분은 없었다. 하지만 성 평등을 직접 다룬 학습 활동도 없었다. 차별과 혐오를 읽기 자료에서 언급하는 부분은 ‘비상’과 ‘천재(민)’ 교과서에 있었지만 다른 교과서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표 10>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교과서별 학습 활동

교과서 출판사	학습 활동
비상	수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차별 표현, 전달 방식 점검하기
천재(민)	차별 표현, 혐오 표현의 문제점, 차별 표현 삼가는 언어 윤리 의식

먼저 ‘비상’ 교과서는 “또한 수용자의 성별을 고려하여 편협하거나 차별적인 내용은 없는지, 전달 방식은 적합한지를 판단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⁷⁶⁾ 교과서에서 ‘성별’과 ‘차별’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76) 비상, 『언어와 매체』, 2019, 174쪽.

둔 학습 활동이 없더라도 교과서를 재구성한다면 이 내용을 토대로 젠더 감수성 신장과 매체 향유 태도를 융합한 수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천재(민)’ 교과서는 매체 언어가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차별 표현이나 특정 집단을 혐오하는 표현, 욕설, 저주 등의 언어폭력은 그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심각한 경우 대인 기피증이나 우울증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다.⁷⁷⁾ 또한, 매체 언어 생활을 성찰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좀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표 11> 천재(민) 교과서 학습 활동⁷⁸⁾

다음으로, 남과 소통할 때에는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갈등을 조정할 줄 알고, 건전한 비판을 주고받으려는 태도를 길러야 한다. 또한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폭력적인 언어 표현이나 차별적인 인식이 드러나는 언어 표현을 삼가려는 높은 언어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매체 언어생활을 늘 돌아보며 자신의 언어가 정제되고 신중하게 표현되었는지, 남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을 한 것은 아닌지 성찰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의 출처를 정확히 밝히며, 다른 사람이 생산한 자료를 표절, 왜곡,

윗글은 앞서 ‘사이버 렉카’와 비판과 비난을 이야기했을 때와 관련지을 수 있다.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접한 정보를 진위를 판단하지도 않고 악성 댓글을 달며 근거 없이 남을 비방하는 행위를 게임처럼 하는 것은 직접 폭력을 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건전한 비판과 조건 없는 비난을 구별하여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해야 한다.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해야 한다는 내용은 학생들이 ‘유튜브’에서 댓글을 다는 행위와 같이 평소의 매체 언어생활이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단 댓글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남긴 댓글을 보면서 이

77) 천재(민), 『언어와 매체』, 2019, 135쪽.

78) 위의 책, 141쪽.

것이 과연 건전한 비판인지 혹은 비난인지를 구별하고 혐오에서 비롯된 댓글은 아닌지를 따져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혐오와 차별에서 비롯된 댓글을 보면서 이러한 댓글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무엇인지를 토의해 보는 기회도 필요하다. 성 평등 의식은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부분이고 ‘유튜브’에서 유발된 혐오 표현이 문제 시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 교육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

2015 교육과정이 실시된 때보다 ‘유튜브’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커진 상황이기에 때문에 교과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 ‘유튜브’ 이외의 매체도 배워야 하므로 젠더 감수성과 ‘유튜브’를 관련 지은 학습 활동까지 담기에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미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에서 ‘존중과 배려’의 태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존중과 배려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에 필요한 요소 중 하나인 젠더 감수성 신장을 다루는 것은 적절하다.⁷⁹⁾

지금까지 세 가지 기준을 통해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방안에 적용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교과서에서 구현된 ‘유튜브’와 같은 매체 특성의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적절하게 수록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실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구상해야 한다. 교과서 학습 활동은 궁극적으로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교육 내용을 실천할 수 있을 때 의의가 있다. 교사가 학생들의 실천 토대를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교과서 속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내용은 현재 사회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성 평등 문제와 연관 지어서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습 활동을 하고 난 뒤 일상생활에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수업을 구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과 가까운 ‘유튜브’를 사용할 수 있다. ‘유튜브’는 쌍방향적 의사소통 성격이 두드러지고 생산자와 수용자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관관계가 뚜렷한 매체이다. 그리고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79)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에서는 “매체 언어를 사용할 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라고 하면서 존중과 배려의 태도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젠더 감수성은 존중과 배려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기에 필수 요소이다. (교육부(b), 115쪽.)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인 수단 중 하나이다.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한다면 생산자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성차별적인 부분이나 그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학생들이 인지하고 이를 댓글에 표현하는 것과 같은 실천을 통해서 대중문화를 긍정적인 쪽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학생들이 ‘유튜브’를 활용한 젠더 감수성 신장 교육을 경험한 후에는 학교 밖에서 배운 것을 적용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내세우고 소통함으로써 국어교육에서 지향하는 공동체 대인관계 역량과 같은 핵심 역량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특히 학생들의 동기 유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매체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수업을 구상해야 한다. 최근의 자료와 매체를 사용하는 것이 학생들의 동기와 흥미 유발에 효과적이다. 그리고 당시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시의성 있는 문제를 다룬 것이 학생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데 도움이 된다. 최근에 여성 혐오 범죄가 크게 문제 되는 상황이다.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과 같은 범죄가 왜 여성 피해자가 많은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관련지어 이야기해 보아야 한다. 여성 혐오 범죄와 관련된 ‘유튜브’ 자료를 통해 사회구조의 문제는 무엇인지, 이 과정에서 성 평등 가치관이 왜 중요한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평소에 남자, 여자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등 자유롭게 성 평등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가 제안하는 수업의 교육 목표는 학생들이 성 평등을 올바르게 인지하고 젠더 감수성을 갖춘 상태로 미디어상의 정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역량을 기르는 것이다. 학생들의 흥미 유발에 좋은 도구인 매체를 활용하면 학생들이 성 평등이라는 가치에 어렵지 않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를 교육 제재로 삼으려 한다.

세 번째로 교과서 분석 결과 차별, 혐오,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학습 활동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을 내세우는 국어교육에서 조금 더 학생들의 실생활과 관련 짓는 교육이 필요

하다. ‘유튜브’를 통해 성차별과 젠더 감수성을 다루는 교육은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교육을 위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성 평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성 평등이 여성 우월주의나 남성들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성 평등은 인간을 억압하는 구속에서 벗어나기 위해 모두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을 위해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토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그리고 필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여 텍스트를 해석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학습 활동이 필요하다. 토의 활동은 학생들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수집하고 동료 학습자에게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 텍스트를 분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그리고 요약한 내용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상대를 고려하면서 말하고 상대의 말을 듣고 공감하는 태도를 통해 정의적인 영역도 교육할 수 있다. 젠더 감수성은 성차별을 알아차리는 인지적인 영역과 사회적 약자의 고통에 공감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통해 길러진다. 그리고 교육을 통해 배운 것을 일상생활에서 꾸준히 실천하면서 내면화하는 과정을 통해 젠더 감수성이 길러진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강조하는 공감과 존중, 배려의 태도는 젠더 감수성을 내면화하는 데 필요하고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성 평등과 관련해서 배운 내용을 실천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는 점에서 젠더 감수성 신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과서 속 학습 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더해 ‘유튜브’와 젠더 감수성 신장에 초점을 맞추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드는 방향으로 교육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Ⅲ.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재 탐색

1. 교육 제재 선택 기준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분석 결과,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해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유튜브’를 활용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업 자료로 ‘유튜브’를 활용하기 위해서 먼저 교과용 도서 개발 기준을 고려하려고 한다. 교과용 도서 개발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12>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 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 |
|---|
| (4) 학습 내용은 특정 지역, 인물, 성, 상품, 기관, 종교 등을 왜곡, 비방, 옹호하거나 집필자 개인의 편견이 들어가지 않도록 선정한다.
(아) 학습자 자료를 포함하여 학습자가 실제 국어 생활과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태도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한다.
(자) 국가, 민족, 인종, 성, 지역, 계층, 종교, 이념, 인물, 상품, 기관, 신체적, 정신적 특성 등의 측면에서 편견을 갖게 할 수 있는 제재를 피하고, 타인의 삶 및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넓힐 수 있는 제재를 선정한다. ⁸⁰⁾ |
|---|

위의 기준에 따르면 학습 내용은 성과 관련된 내용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학생들이 기존에 가진 성과 관련된 인식, 가치관을 되돌아보고 성 평등한 가치관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교육방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두 번째 기준을 살펴보면 학습 자료가 학습자의 실제 매체 언어생활을 점검하는 데 도움이 돼야

80)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 상의 유의점 및 검정 기준』, 2015, 136-137쪽.

하고 스스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자세를 형성하도록 하는 데 목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선 교과서 학습 활동 분석 세 번째 기준에서 본 ‘천재(민)’ 교과서에서는 차별 표현이나 남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래엔’ 교과서에서 제시한 ‘슈렉’과 관련된 학습 활동 마지막 문제에는 영화나 드라마 등 다양한 매체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통념을 찾아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교사가 이 활동을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토의와 같은 활동으로 재구성하고 학생들의 삶에 비추어 보는 방향으로 마무리한다면 학습자의 실제 매체 언어생활을 개선하는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

마지막 기준은 성과 관련된 편견이 담긴 제재는 피하고 타인의 삶에 대한 공감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자료를 선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공감’은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성 평등 교육을 학교현장에서 실시했을 때, 학생들의 반감이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김수자(2019)는 남학생들이 역차별을 말하면서 현대 사회는 오히려 남성들이 더 힘들다는 의견을 내세우면서 억울해하고 있다고 말한다.⁸¹⁾ 아버지 세대의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남성이 확실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회에 사는 현대의 남학생들은 남성이라고 해서 힘을 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한다. 이런 의견에 공감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는 가부장제 사회에서 만들어 낸 ‘남성’의 역할이고 없어져야 할 ‘남자다움’이다. 아직도 성차별은 존재하고 있고 그 성차별의 피해자가 오직 여성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학생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인지했을 때 학교 교육에서 성차별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 ‘여자다움’과 ‘남자다움’의 폭력으로 인한 서로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성과 관련

81)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교육비평, 2019, 94-125쪽.

된 편견을 없애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인 공감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연구 주제와 관련된 교과용 도서 개발 기준을 살펴보았다. 학습자가 성과 관련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차별에 반대하고 온전한 평등을 지향하는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면서 ‘유튜브’를 학습 도구로 선정하였다. ‘유튜브’ 속에서 여성 혐오 범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룰 것이다. 학습 내용 세부 주제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이다. 이러한 세부 주제 설정 이유는 학생들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자 시의성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10대 학생들이 피해자가 혹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 자신도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죄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서 가부장제 사회 속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가볍게 생각했던 의도를 가지지 않았든 간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성차별적 고정관념에서 비롯된 언어폭력은 매체 언어생활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신의 언행을 되돌아보고 혐오를 낳는 존재가 되지 않도록 반성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세부 주제를 선정할 때에는 교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먼저 ‘유튜브’ 자료로 다룰 세부 주제는 젠더 감수성 함양의 출발점이 될 뿐이지 성차별과 관련된 2차 가해로 이어지거나 범죄 사실을 자극적으로 다루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세부 주제는 주로 여성이 피해자이고 남성이 가해자인 구도이다. 물론 이를 통해 남성과 여성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인식할 수 있지만, 남성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남성성’에 대한 규범을 만들어 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부 주제는 여성 혐오 범죄 중에서 선택을 하였

다.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의 피해자의 대다수가 여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교육이 여성이 곧 피해자라는 명제를 확정 짓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오히려 젠더 감수성을 왜곡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세부 주제로 ‘남성성’에 대한 성차별적 인식을 다룰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차별’을 주장하는 이들이 남성만 군대에 가는 것을 성차별로 말하는 현상을 다루어 보는 것을 교수·학습 방안에 포함하였다.

‘유튜브’에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을 검색한 후에는 ‘유튜브’ ‘섬네일’을 살펴보고 한다. ‘섬네일’은 독자들의 관심을 유발하는 책의 표지와 같이 ‘유튜브’ 속 영상의 표지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섬네일’은 영어로 엄지손톱(thumbnail)을 의미하는데, 작은 그림으로 사람들을 유인하는 용도로 쓰인다. 유튜버들은 사람들이 눈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섬네일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한다. 때로는 유튜버들이 영상의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차별적 요소를 넣거나 성적 대상화를 통해 관심을 유발하는 때도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섬네일을 분석해 보려고 한다.

먼저 ‘유튜브’에 세부 주제를 검색한 후 ‘관련성, 조회 수, 최신순’ 별로 영상을 2개씩 선정하였다. 이 기준들은 ‘유튜브’에서 현재 영상을 정렬하는 순서의 기준이다. 영상을 선정한 이후에는 수용자 유인 요인인 섬네일의 사진, 이미지, 자막과 함께 영상의 제목을 살펴볼 것이다. 섬네일 분석 이후에는 영상의 내용을 정리한 후 ‘유튜브’ 영상에서 여성 혐오 범죄를 어떻게 비추어 주고 있는지 보려고 한다. 또한, 영상에 달린 댓글과 대댓글을 살펴본 후 이러한 내용이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긍정적인 면이나 부정적인 면을 짚어보려고 한다. 선정된 영상들은 IV장에서 제안할 교육방안의 내용의 밑바탕으로 활용할 것이다. 각 세부 주제별로 대표적

인 교수·학습 자료를 1개씩 선정하여 자세히 분석한 후 이를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방향을 제안하려고 한다. ‘유튜브’ 영상은 흥미 위주의 개인 유튜버 영상을 쓰기보다는 언론 매체나 시사 교양 유튜버 등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물론 오락, 흥미 목적의 ‘유튜브’ 영상이 학생들의 성차별적 가치관을 고착화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교육 자료로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선정적이거나 오락적으로 접근하는 영상은 최대한 제거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선정하였다.

2. 교육 제재 선택을 위한 ‘유튜브’ 자료 분석

1)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유튜브’ 자료

<표 13> 데이트 폭력 ‘관련성’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관련성	 <p>[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156회]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 (2021.12.19) 조회수 4.3만회 · 2개월 전 MBCNEWS</p> <p>데이트 폭력을 1인칭 시점에서 느껴본다면? 누군가를 때리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자말자 / 닷페이스 조회수 163만회 · 5년 전 닷페이스</p>

첫 번째로 ‘관련성’을 기준으로 하여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영상을 뽑아 보았다. ‘MBC 뉴스’와⁸²⁾ ‘닷 페이스’의⁸³⁾ 영상의 섬네일을 분석하려고 한다.

82) <https://youtu.be/dWU0NFmYF1U> (접속일자: 2022. 02. 23.)

‘MBC’ 뉴스의 영상은 데이트 폭력 사건의 피해 사실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기자들의 대화를 통해 교제하는 관계에서의 싸움을 대수롭지 않게 치부하는 잘못이며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임을 알려주는 내용이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데이트 폭력 근절 캠페인과 관련 법안을 제정하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은 주로 데이트 폭력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내용과 처벌 수위를 높여 달라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람들이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예방과 처벌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MBC 뉴스’의 썬네일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구도의 이미지와 자막으로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를 담고 있다. 그리고 제목 또한 ‘데이트 폭력인가 교제 살인인가’라고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이미지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주제에 가장 최적화된 이미지라고 볼 수 있고 사건에 관심을 유도할 수도 있다. 뉴스와 같은 공익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가 아닌 자극적인 것만을 원하는 영상일 때 이런 이미지를 쓰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관련 영상은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구도가 많은데, 왜 여성 피해자가 대다수인지 사회 구조와 연관 지어 생각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데이트 폭력은 구조적 차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고 교제 관계에 있어서 갖추어야 할 올바른 태도까지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닷 페이스’의 영상은 썬네일에 데이트 폭력 피해자의 휴대 전화 이미지와 제목 “데이트 폭력을 일인칭 시점에서 느껴본다면? 누군가를 때리는 걸 사랑이라고 부르지 말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 영상의 썬네일은 가해자와 피해자 구도를 벗어났다.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은 생산자의 의도와는 다르게 자극적인 성격이 두드러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단순히 전화번호를 누르는 이미지만 사용하였는데 오히려 조회 수가 높다. 첫 번째 영상과 5년의 간격이 있지만 유의미한 조회 수는 영상의 제목과 전화번호를 누르


83) <https://youtu.be/w4MCb6MHb4E> (접속일자: 2022. 02 .23.)

는 이미지가 결합하여 수용자들이 호기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이 영상은 가해자가 언어폭력을 행사한 후 사과를 한 이후에 ‘너 없으면 나 진짜 죽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협박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돌변하는 가해자의 언행은 집 앞으로 찾아와서 불안감 조성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가해자는 ‘너 하는 거에 따라 모든 게 결정되는 거야’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기도 한다. 해당 영상은 ‘1366’이라는 서울지역 여성 긴급전화 번호를 알려 주는 것과 함께 데이트 폭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극복하려 하지 말라는 자막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 영상을 본 사람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댓글을 달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달래야 하는 고통을 걱정하기도 한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행동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평소에 연인이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라는 경고성 댓글을 달기도 한다. 피해자의 기분을 느낄 수 있게 만든 영상이라는 평가를 담은 댓글도 존재한다. 이 영상은 데이트 폭력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영상이다. 교사는 해당 영상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며 데이트 폭력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표 14> 데이트 폭력 ‘조회 수’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조회 수	 <p>KBS[추적60분] 악마가 된 연인-데이트 폭력_20180502 다시보기 조회수 201만회 · 3년 전 KBS시사직격</p>
	 <p>때리고 밟고...데이트 폭력' 동영상 공개에 공분 / YTN 조회수 163만회 · 4년 전 YTN news</p>

두 번째로 ‘조회 수’를 기준으로 하여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영상을 꼽아 보았다. 첫 번째 영상의 내용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사례를 담고 있다.⁸⁴⁾ 데이트 폭력 상황을 초반에 연달아 보여 주면서 사건의 심각성을 부각하고 영국의 ‘클리어법’(폭력의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정폭력 정보공개 청구제도)과 같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은 피해자를 안타까워하는 댓글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에 대한 분노가 주를 이루었다. 피해자를 탓하는 2차 가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분노를 드러내는 댓글이 대부분이었다. 2차 가해를 하는 댓글은 학생들이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두 번째 영상의 내용은 자신을 무시하는 언행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였다는 가해자의 입장과 목격자와의 인터뷰를 담고 있다.⁸⁵⁾ 그리고 숨방망이 처벌에

84) <https://youtu.be/RFI70SioRQw> (접속일자: 2022. 02. 23.)

85) <https://youtu.be/00LHblcWWX4> (접속일자: 2022. 02. 23.)

대한 문제, 법적 처벌이 실효성 있는가의 문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피해 대처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 때문에 감행하는 것 같으니 범죄를 지칭하는 언어를 바꾸자는 반응이다. ‘몰래카메라’의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므로 ‘불법 촬영’으로 바꾼 것처럼 ‘데이트 폭력’이라고 명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주제로 토의할 수 있는 활동을 구상해 볼 수 있다.

‘KBS 시사 직격’의 섬네일은 위에서 살펴본 ‘MBC 뉴스’의 섬네일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그림자 구도이다. ‘YTN 뉴스’의 영상은 실제 사건의 CCTV 영상이 섬네일로 사용되었다. 두 개의 영상이 게시된 날짜가 1년이라는 시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조회 수를 비교하는 것보다 섬네일 이미지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보려고 한다. CCTV 영상은 사람들이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위해 피해자의 가족이 공개하는 때도 존재하는데, 이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해서 사회 구조적으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암시한다. 피해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가해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CCTV나 피해자 가해자의 구도는 사건에 관심을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중들의 눈을 끄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부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자극적인 요소에 초점을 맞추는 것과 같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표 15> 데이트 폭력 ‘최신순’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최신순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div style="width: 45%;">  </div> <div style="width: 50%;"> <p>'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구속영장 반려 이틀 만에 범행" / YTN 조회수 6.4천회 · 7일 전</p> <p>YTN news</p> </div>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margin-top: 10px;"> <div style="width: 45%;">  </div> <div style="width: 50%;"> <p>'신변보호 여성' 또 살해..."구속영장 반려로 석방 이틀 만에 범행" / YTN 조회수 4.6천회 · 7일 전</p> <p>YTN news</p> </div> </div>

세 번째로 ‘최신순’을 기준으로 하여 ‘데이트 폭력’에 관한 영상을 꼽아 보았다.⁸⁶⁾ 사건 관련 영상이라는 것과 처벌과 범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는 댓글은 위에서 살펴본 영상들과 다를 바가 없다. 특히 두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앞서 살펴본 영상의 섬네일과는 다른 양상이 보인다는 것이다. 두 영상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도의 영상이 아닌 경찰 통제선, 경찰관과 경찰차가 담긴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앞선 영상들의 섬네일에 담긴 사진은 장단점이 공존하는 사진이었다. 하지만 위의 영상들의 제목과 경찰과 관련된 사진만으로도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제목에서 “또 살해”라고 표현한 것은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매우 문제가 되는 와중에 피해가 늘어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양상을 단순히 가해자 개인의 범죄 사실로만 바라볼 수 있는가에 관해서 고민해 보고 데이트 폭력과 성차별적 사회 구조를 관련지어 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결론 내릴 수 있다.

86) <https://youtu.be/db8f2QXXFaA> (접속일자: 2022. 02. 23.)
<https://youtu.be/HShzHO3Xo-g> (접속일자: 2022. 02. 23.)

<표 16> 학습 자료 선정①(데이트 폭력)



<우리 사회의 모든 폭력이 사라지도록 작은 실천을 통해 안전한 일상을 만듭니다>

-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계기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젠더 폭력에 유독 전보다 젠더 폭력에 관해서 많이 접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캠페인이라면 같이 힘을 보태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 데이트 폭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유는?

저도 그랬었고 이게 범죄인지 사랑인지에 대해서 그 경계선에 있는 애매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분명히 범죄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서 많은 분이 아직도 헛갈려하는 분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관대한 인식, 달라져야 할 것들은?

이런 관대한 분위기 때문에 자칫하면 범죄의 이유를 피해자한테서 찾을 수 있거든요. 범죄라는 건 엄연히 가해자의 잘못인데 ‘그 범죄가 일어난 이유는 너 때문이야’라는 불필요한 시선까지 받게 되어야 하니까 그건 너무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가해자들이 본인이 가진 결핍을 타인에게서 충족하려고 하다가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결핍이 있는지조차 인지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배운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상처를 덜 주는 건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배우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울 수 있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거나 하는 실질적인 해결방안들이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 전효성이 꿈꾸는 <안전한 대한민국>

어두워지면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내가 오늘도 안전하게 살아서 잘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집에 잘 들어갔어?’ 안부 인사를 묻잖아요.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게 아닌데 우리는 당연하게 그런 걸 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하고 다니고 싶을 때 다닐 수 있고 사랑하고 싶

을 때 사랑하고 헤어지고 싶을 때 헤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회가 안전한 사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키겠습니다! 자유가 있는 안전한 일상을 그립니다
폭력 없는 안전한 일상을 그립니다⁸⁷⁾

위의 영상의 섬네일은 인터뷰 대상의 사진, “데이트 폭력 사랑? 범죄”라는 자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제목은 “희망 그림 캠페인, 데이트 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는 전효성”이다. 영상 내용에서 데이트 폭력이 사랑이 아니고 분명히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하고 관대하게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자막을 섬네일에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사회는 데이트 폭력을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이나 데이트 폭력과 같은 범죄를 단순히 개인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남아 있으므로 데이트 폭력이 범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짚어준 부분이 의의가 있다. 이 영상은 학생들의 경우에 적용해 보면 교제 관계에 있는 두 학생이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는 곧 범죄라는 사실과 교사나 보호자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영상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표현 방법을 이야기해 보고 삶에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구상할 수 있다.

댓글에서 영상의 내용과 관련하여 대댓글을 달며 논의하는 부분까지도 짚어보려고 한다. 댓글은 수용자 간의 자유로운 소통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 게시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동영상이 2022년 2월 23일까

87) 여성가족부, “희망 그림 캠페인 8편 ‘데이트 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는 ☆’” <https://youtu.be/erKy-yIZf0M> (접속 일자: 2022. 05. 08.)

지 45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 이 영상은 데이트 폭력은 엄연히 가해자의 잘못이며 데이트 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각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주로 말한다. 여성이 피해자인 데이트 폭력이 확률적으로도 심각하므로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한정 짓고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 영상은 ‘우리 사회의 모든 폭력이 사라지도록’을 내걸고 있는 캠페인이며 피해자를 여성으로만 한정 지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여성 혐오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로 인해 여성 피해자가 많다는 결과가 생기는 구도와 여성들이 피해자라고 이미지화되는 것은 인과관계를 바꾼 것이다. 이는 ‘여자다움’과 ‘피해자다움’이 결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따라서 교사는 젠더 감수성 신장은 사회 구성원이 성차별적 사회를 개선하여 억압에서 해방하는 원동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구도를 만드는 것에 목적을 두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님을 학생들이 확실하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댓글에서는 동영상과 여성 연예인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으며 엄연히 여성들이 위험을 느낀다는 댓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의 일종으로 보는 댓글까지도 달렸다. 다음은 영상에 달린 댓글 중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다.⁸⁸⁾

88) 여성가족부, “희망 그림 캠페인 8편 ‘데이트 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는 ☆’” <https://youtu.be/erKy-yIZf0M> (접속 일자: 2022. 05. 08.)

<표 17> 동영상 댓글과 대댓글⁸⁹⁾

번호	댓글 내용	공감수
A	“집에 잘 들어갔어?”라는 영상의 대사에 달린 댓글	
	- 이걸 누가 저만 의미로 쓰냐 ㅋㅋㅋㅋ	823
	- 헛소리를 당당하게하는중	189
	- 킹정ㅋㅋㅋㅋㅋㅋㅋㅋ 겁나 당당하게 하네	69
B	ㄹㅇ 정신병인 듯 ㅋㅋ 이래서 딴따라들은 아는척 배운척하면 역겹다는거임 언어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 기초라도 알면 저런 이야기를 할까 배운게 없으면 앞으로 배울려고 노력이라도 하던가 머가디 텅텅빈거 다티남 ㄹㅇ	63
C	남자들끼리도 잘 들어갔냐는 말 안부처럼 하는데 ㅋㅋㅋ 미치겠네 야가주깍	35
D	저 개소리 듣고 나 진짜 구라안치고 현실로 우와.....그랬음 와....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집 잘들어갔어?가 도대체 안부인사가 아니면 뭐야...?잠정적 가해자를 피하고 숨어서 24시간 걸려서 복귀한거야???? (중략)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1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	6
E	눈썹안그린거 킹받네;;	170

이러한 댓글들은 뉴스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분노를 외치던 댓글들과 다르게 영상 내용과 대상을 비하하는 내용이다.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피해자가 존재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과 남성이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음에도 타당한 이유 없이 비난하는 반응을 볼 수 있다. A 댓글을 보면 “집에 잘 들어갔어?”라는 대사를 보고 헛소리로 치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B 댓글은 정신병이라는 표현으로 인터뷰 대상과 정신병 자체도 비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 댓글은 “집에 잘 들어갔어?”라는 말을 남자들끼리도 안부처럼 한다고 말하면서 비꼬는 태도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 댓글에 대해서 공감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사람들이 이런 댓글을

89) 이 표는 위의 동영상에 달린 댓글과 대댓글 중 영상의 중심 내용과 거리가 멀거나 혐오를 비추는 표현 중 일부를 담은 것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댓글이지만 본고의 논문은 철저히 댓글 내용만 보기 위해 댓글을 순서대로 알파벳으로 번호를 붙였다. 댓글은 필요한 부분들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수정하지 않았다.

다는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공감 능력 부족과 성차별적 사회구조에 대한 부정성을 꼽을 수 있다. 귀갓길에 일어난 범죄는 분명히 존재하고 가해자가 전연인인 경우도 많다. “집에 잘 들어갔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안부 그 이상의 의미로 상대의 안전을 확인하는 의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C나 D 댓글처럼 자신의 경우를 기준으로 삼아서 상대를 비꼬는 표현을 하는 것은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A 댓글과 B 댓글도 마찬가지이다. 테이트 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이 많다는 이유를 고려해 본다면 사회 구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교육방안 제안 부분에서는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는 성차별과 관련한 영상을 학생들이 수용하고 이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대화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온라인 공간에서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혐오 표현에 노출되고 이에 영향을 받아 성과 관련하여 고정관념에 갇힌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교사와 학생들이 인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SNS상에서 이 영상에 관해서 악성 댓글이 달린다는 것을 문제 삼아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해당 영상을 2021년 11월 11일에 검색한 이후로 3개월이 지난 2022년 2월 23일에 검색했을 때, 영상 내용에 동조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댓글이 상위에 보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무분별과 비난과 폄하로 가득 찼던 댓글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쪽으로 변한 것은 매체 생활의 선한 기능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II장에서 교과서 분석 결과로 실천적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짚었다. 이 영상을 학습 자료로 활용한다면 학생들이 문제점을 짚어본 후 개선 방향을 동료 학습자와 함께 탐구해 보고 해당 영상에 댓글을 다는 식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 학습자들의 실제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자세를 기르는 능력을 기르고 긍정적인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다.

2) 불법 촬영

<표 18> 불법 촬영 ‘관련성’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관련성	<div data-bbox="427 622 818 835">  <p>[밀착카메라] 교묘한 불법촬영...숨은 렌즈 찾는 실험해보니 / JTBC 뉴스룸 조회수 15만회 · 7개월 전 JTBC News</p> </div> <div data-bbox="427 846 818 1059">  <p>"차 키가 왜 여기서?"..'불법 촬영 천국' 불명예 / SBS 조회수 1.7만회 · 7개월 전 SBS 뉴스</p> </div>

두 번째 세부 주제는 ‘불법 촬영’이다. 먼저 ‘관련성’을 기준으로 ‘JTBC 뉴스’와⁹⁰⁾ ‘SBS 뉴스’의⁹¹⁾ 영상을 선정하였다. ‘JTBC 뉴스’의 영상의 내용은 교묘한 불법 촬영 도구를 사용한 불법 촬영 사례를 담고 있다. 기자가 초소형 카메라의 규제 없는 판매와 구매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사무실 속에서 소형 카메라를 찾을 수 있는가를 실험한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실험 결과 촬영 도구 5개 중에서 최대 2개를 찾아내었고 이는 일반인이 발견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하게 발전된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즉, 사람들이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도 카메라를 찾을 수 없는 것은 평소 일상에서는 아예 발견할 수 없어 범죄 사실을 인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 영상의 섬네일은 “교묘한 불법 촬영... 숨은 렌즈 찾는 실험해 보니”라는 자막과 실험 장

90) <https://youtu.be/OAWvxlljwM> (접속일자: 2022. 02. 23.)

91) https://youtu.be/dpuB_i8jOpQ (접속일자: 2022. 02. 23.)

면의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섬네일의 자막은 불법 촬영이 만연하다는 것과 불법 촬영 가해자들이 얼마나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상황인지 깨닫게 한다. 제목에 있는 ‘실험’이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실험 결과에 관심을 가지고 해당 영상을 눌러 감상할 수 있게 만든다. 댓글의 내용은 소형 카메라 판매 금지법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요구가 대부분이었다.

‘SBS 뉴스’ 영상의 내용은 차 열쇠를 사용한 불법 촬영과 한국이 불법 촬영 ‘천국’이라는 국제적 인권 단체의 보고서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영상에서 현재 변형 소형 카메라가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실태가 심각하고 카메라를 전자 상가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댓글은 디지털 강국의 명예를 지닌 한국의 이면이라는 것과 처벌 강화와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서는 사람들이 대댓글을 통해 의견을 공유하고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 학습자가 이해한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 영상의 섬네일은 불법 촬영의 수단인 차 열쇠의 사진과 “친구 집에서 샤워하다 뭐지? 차 키의 정체”라는 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의문문 문장과 ‘정체’라는 단어는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표현이다. 이러한 특성은 복합 양식성 특성을 공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표 19> 불법 촬영 ‘조회 수’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조회 수	 <p>[단독] '클라우드' 복원해보니... 불법 촬영 영상 '줄줄이' : (2021.05.17/뉴스데스크/MBC) 조회수 336만회 · 9개월 전</p> <p>MBC NEWS</p>
	 <p>[단독] '번쩍' 이상한 샤워장 거울...반대편에선 불법 촬영 / SBS : 조회수 121만회 · 1개월 전</p> <p>SBS 뉴스</p>

두 번째 기준인 ‘조회 수’를 기준으로 ‘MBC 뉴스’와⁹²⁾ ‘SBS 뉴스’의⁹³⁾ 영상을 선정하였다. ‘MBC 뉴스’는 불법 촬영 영상을 발견한 수사 결과와 피해자의 항고에 관한 내용이다. 댓글에서 피해자의 명복을 비는 댓글과 처벌 강화 요구, 약한 처벌과 미흡한 수사에 대한 분노, 가족들의 슬픔에 대한 공감을 살펴볼 수 있다. 섬네일로는 가해자의 사진과 “클라우드 복원해보니... 불법 촬영 영상 ‘줄줄이’”라는 자막으로 이루어져 있다. 섬네일에 가해자의 사진을 넣은 것은 사람들이 피해자에 주목하여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고 가해자에 집중하여 범죄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여론을 형성하도록 만든다.

‘SBS’ 뉴스 영상은 공장 사진이 샤워장에 특수한 거울을 설치하여 불법 촬영을 했다는 사실과 피해자 보호 조치를 했다는 내용이다. 댓글로는 공장에서 방화가 일어나 사건 현장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92) <https://youtu.be/M2CtUXI5ack> (접속일자: 2022. 02. 23.)

93) <https://youtu.be/j-I4KGHq34s> (접속일자: 2022. 02. 23.)

것과 범죄와 관련된 뉴스가 많은 것에 피로감을 느껴 훈훈한 기사를 보고 싶다는 반응이 있다. 그리고 불법 촬영 도구를 구할 수 있는 경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관련성’과 관련한 첫 번째 영상에서 활용한 실험 도구와 두 번째 영상에서의 차 열쇠는 사람들이 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데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조희 수’와 관련된 영상에서도 거울을 범죄에 사용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두 영상이 1년이 채 되지 않아 백만 대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범죄 도구를 섬네일에 담는 것과 ‘이상한’ 것과 같은 표현은 사람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유발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어 사람들을 유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댓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오히려 불법 촬영 도구에 대한 정보와 구매 경로를 찾아보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단점도 있다. ‘데이트 폭력’에서 섬네일의 이중적인 면모를 살펴본 것과 같은 양상이다. 따라서 교사가 ‘유튜브’ 자료를 활용하여 수업을 구상할 때는 학습자가 ‘유튜브’를 수용하고 생산하는 주체로서 고려해야 할 부분과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해 보는 방향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표 20> 불법 촬영 ‘최신순’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최신순	<div data-bbox="424 495 810 748"> <p>2022 마포구 불법촬영 시민감시단 모집 안내 / 2월 22일 : 조회수 13회 · 1일 전 my Mapo마포구</p> </div> <div data-bbox="424 801 810 1048"> <p>[자막뉴스] 길거리서 여성 신체 불법 촬영하던 남성, 시민들이 : 잡았다! / KBS 2022.02.24. 조회수 6.4천회 · 2주 전 KBS News</p> </div>

세 번째 분류 기준은 ‘최신순’이다. ‘최신순’을 기준으로 ‘my Mapo 마포구’의 영상과⁹⁴⁾ ‘KBS 뉴스’의⁹⁵⁾ 영상을 선정하였다. 앞선 기준에서 살펴본 영상은 주로 불법 촬영 범죄와 관련된 뉴스였다. 하지만 ‘최신순’으로 본 영상은 불법 촬영을 예방하거나 시민이 범인을 잡은 내용이다. 첫 번째 영상은 불법 촬영 시민감시단이 활동하는 사진과 “불법 촬영 멈춰! 시민감시단 모집”이라는 자막으로 섬네일이 구성되어 있다. 이 영상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기기를 확인하는 시민단의 내용과 시민단 신청 방법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댓글에서 주목할 점은 세금으로 쓸데없는 짓을 한다는 댓글이다. 이 댓글은 불법 촬영 영상 범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한국이 국제적으로 불법 촬영 천국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쓸데없는 짓’으로 치부하


94) <https://youtu.be/8zcO-HMbbno> (접속일자: 2022. 02. 23.)

95) <https://youtu.be/XKIF3rIIKA4> (접속일자: 2022. 02. 23.)

고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댓글을 보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하며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불법 촬영이 피해자들 동의 없이 성적 대상화 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성적 대상화’ 자체도 ‘남성성’과 ‘여성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영상은 범죄 상황의 사진, 가해자를 잡은 시민의 사진과 “길거리서 몰래 촬영하다 용감한 시민들에게 ‘딱’”이라는 자막으로 섬네일이 구성되어 있다. 해당 영상은 범죄 상황과 가해자를 잡은 시민과의 인터뷰, 경찰에게 가해자의 휴대 전화를 전달했다는 인터뷰의 내용이다. 댓글에서는 범죄자를 잡은 시민을 칭찬하면서 불법 촬영의 심각성을 토로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범죄자를 잡은 시민을 보면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 이외에도 학습자들이 불법 촬영물을 공유하고 시청하는 행위도 범죄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불법 촬영이 곧 피해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너뜨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행위라는 것과 촬영물이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학습자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에 더해 학습자들이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에 관해서 편견을 지니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고 그러한 편견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거시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 21> 학습 자료 선정②(불법 촬영)



불법촬영 폴더마다 여군 이름...부대는 "전역할 건데" / SBS :
조회수 55만회 · 8개월 전

SBS NEWS SBS 뉴스

여군 불법촬영 후 이름별 정리 적발되자 "전역할 건데" 1:59

<앵커>

공군에서 또 다른 성범죄가 있었고 이번에도 가해자 감싸기만 급급했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한 남성 부사관이 여군 숙소에 무단으로 들어가 속옷과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했는데, 군은 이 부사관이 전역할 것이라며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운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4일, 공군 제19전투비행단 소속 군사경찰인 A 하사는 여군 숙소에 몰래 침입해 불법 촬영을 하다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A 하사의 휴대 전화와 USB를 포렌식 한 결과, 피해 여군들의 실명을 제목으로 한 폴더가 5개 이상 나왔고, 폴더마다 여군의 속옷과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사진과 영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군인권센터가 밝힌 불법 촬영 피해자는 최소 5명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피해자가 다수이고, 얼마나 더 있을지 모르며, 불법 촬영물을 어디에, 어떻게 소지하고 있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소속 부대는 A 하사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A 하사의 전역이 올해 8월로 얼마 남지 않았고, 전출시킬 부대도 마땅치 않다'라며 되려 A 하사를 감싸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야 조치를 취했는데, A 하사의 근무지를 정문 초소에서 후문 위병소로 바꿨을 뿐이었습니다.

사실상 피해자와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게다가 A 하사가 수사를 담당하는 군사경찰 소속이라, 제 식구 감싸기를 제대로 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장 : 외부의 통제와 관리 감독이 돼야 하는데, 그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자정은 안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계속 은폐하고 축소할 수밖에 없고...]

논란이 커지자 공군은 "약 한 달 동안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지 않은 게 맞다"라며 "사건을 공군본부 중앙수사대로 이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⁹⁶⁾

위의 영상은 군대 내의 불법 촬영 사건과 사건에 대한 군대의 후속 조치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불법 촬영이 일어나는 공간을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상의 섬네일은 가해자를 표현하고 있는 이미지와 군대 생활관 사진, 자막 “여군 불법 촬영 후 이름별 정리, 적발되자 ‘전역할 건데’”로 구성되어 있다. 앞서서 불법 촬영 관련 영상이 범죄 도구 사진을 보여 주었던 것과는 다르다. 이는 범죄 사건을 가해자에 주목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섬네일에서의 자막은 영상 제작자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하고 사람들의 감각을 자극하며 압축된 표현이어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여군 불법 촬영 후 이름별 정리”라는 표현은 영상의 중심 내용을 표현하고 있다.

범죄 사건 관련 기사나 뉴스 영상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는 ‘여군’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필요성과 적절성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기사문에서 성과 관련된 범죄를 알리는 기사에서 피해자의 나이, 성별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서 수용자 유인 용도로 일부러 부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행위는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제목을 설정할 때에도 필자가 주의해야 할 부분이다. 이는 ‘유튜브’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피해자를 지칭하는 ‘여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관점과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는 관점이 공존할 텐데, 이는 토론과 같은 활동 주제로 활용할 수 있다.

96) SBS 뉴스, <불법 촬영 폴더마다 여군 이름…부대는 “전역할 건데”- 남성 부사관이 여군 숙소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 “불법 촬영 피해자 최소 5명”>,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1605 (접속 일자: 2022. 02. 23.)

영상의 댓글 양상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2> 동영상 댓글과 대댓글⁹⁷⁾

번호	댓글 내용	공감 수
A	진짜 군대 내 성범죄 문제 줄줄이 터져 나오네 ㅋㅋㅋ 문제 생기면 덮으려한 놈들부터 파면시켜야 문제가 안생기지 진짜 더럽다	196
B	곧 전역할건데 -> 아... 우리 부대에서 사건사고나면 안된다구요 ㅠㅠㅠ ㅠ	851
C	경찰쪽에서도 여경들 화장실 용변장면 불법촬영한 사건도 있었죠. 같은 남경들이 쉬쉬하며 성범죄 저지른 남경 감싸주다 처벌이 흐지부지 넘어갔던걸로 아는데 성범죄 처벌 제대로 좀 합시다. 성범죄자 인권이 강해질수록 정상적인 사람들만 피해봅니다 - 그런 경찰에 왜 처 기어 들어가는데??? 니네 평소 주장이면 겁나서 남자랑 못살겠다고 여성 전용 임대 주택 잇잖아 경찰 성범죄 많다면서 여경은 왜케 지원 물리냐???	200
D	같은 공군인데 왜 누구는 감싸주고 왜 누구는 관심병사 취급이냐고 심지어 범죄자인데? 그냥 다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 그냥 여군이 왜 필요하냐 - 언젠 아몰랑 여자도 군대가!!! 빼애엮거리다가 이젠 여군이 왜 필요하냐고 지랄ㅋㅋㅋ 하나만 해라 - 여성징병제도입하라고할때는언제고이제필요없다네!	1000
E	이런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지...다들 이런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깐 여기까지 온거다 - 그래 남자엔번방 피해자 1000명은 공론화도 안되는 나라^^	1900

A 댓글은 군대 내에서 성범죄가 많다는 사실과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를 가해자 개인에 치중하는 것 이외에 여성 피해자가 많다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여성과 남성 간의 권력 관계가 가부장제 사회에서 어떻게 고착화되어 왔는가와 현실 사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97) SBS 뉴스, <불법 촬영 폴터마다 여군 이름...부대는 "전역할 건데"- 남성 부사관이 여군 숙소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 "불법 촬영 피해자 최소 5명",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1605 (접속 일자: 2022. 02. 23.)

B 댓글은 ‘전역할 건데’라는 태도로 일관했던 군대의 입장을 부대에서 사고 나는 것을 회피하는 태도로 해석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군대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고 ‘군대’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D 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살펴보면 여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 제기과 이를 두고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태도를 내비치었던 것에 대한 태도와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타나 있다. 성차별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보통 남성들은 군대를 왜 남성들만 가야 하나라는 주장을 펼친다. 그리고 이 주장은 여성도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여성이 군대에 가야 하는 것과 관련된 논의를 이야기하기 전에 왜 ‘남성’들만 군대에 가야 했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군대는 남성들에게 ‘남자다움’을 강제로 주입하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은 권력을 가진 존재였고 이는 군대에 남성이 가는 것과 이어졌다. 만약 남성과 여성에 관한 차별적인 인식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재와 다른 군대의 모습이 펼쳐졌을 것이다. 그러므로 군대에 가는 성별을 두고 부당함을 요구한다면 그 원인을 여성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차별로 인한 결과를 남성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군대’라는 주제를 통해 이야기해 볼 수 있다.

C 댓글에서는 경찰관이 불법 촬영하는 사건도 있다고 말하면서 성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을 담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댓글을 보면 이러한 범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이 경찰에 지원하냐는 무분별한 비난이 펼쳐진다. 군대나 경찰과 같은 남성들의 비율이 현저히 많은 조직이 존재한다. 이 직업들이 왜 남성들이 많은지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가부장제 사회에서 기인한 성차별과 관련이 있다. 성범죄가 벌어지는 곳에 여성이 왜 지원하냐는 식의 C 댓글과 같은 사고방식은 사건 자체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비방하는 것에 치중한 태도이다. 학습자들은 이런 댓글을 보면서 쓰기 윤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성희롱 내용이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이 미칠 수 있는 영향과 관련된 부분이다. 말풍선 속의 내용이 사건의 심각성에 관한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는 할 수 있어도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해당 영상의 댓글에서는 처벌 강화를 요청하는 댓글과 성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이 영상이 중학생에서 일어난 것은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교육이었는가를 반성하게 만든다.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성희롱이 장난이 아니라 상대를 성적 대상화 하는 범죄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방식이 어떤 점에서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대학교에서 벌어진 단톡방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⁹⁹⁾ 첫 번째 영상과 비교해보면 섬네일에서 단톡방의 대화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막은 따로 없지만, 단톡방 사진만 보더라도 무슨 사건인지 유추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문제가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영상에서 다룰 만한 점은 제목이다. “단톡방의 내용 보니”로 끝맺고 있는 제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관점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성희롱 내용에 사람들을 집중시키는 표현 방식이 적절한가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는 어려운 제목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료를 수업에 활용한다면 생산자의 표현 방법과 의도, 관점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활동을 구상할 수 있다.

99) <https://youtu.be/9dBa8j4anJo> (접속일자: 2022. 02. 23.)

<표 24> 단독방 성희롱 ‘조희수’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조희수		<p>단독방 성희롱 '애 어때?' [좀 예민해도 괜찮아] EP2 : 조희수 206만회 · 3년 전</p> <p>tvN D STUDIO</p> <p>※주의※ 남자들 단독방 진짜 다~ 이렇다고? 드드 [연애의 참견3] : 조희수 104만회 · 1년 전</p> <p>KBS N</p>

첫 번째 영상은 'tvN D STUDIO'에서 만든 웹드라마이다.¹⁰⁰⁾ 단독방 성희롱과 관련해서 피해자의 친구가 피해자를 지지하면서 위로하는 장면을 통해서 피해자 주변인의 태도, 방관 죄를 다루고 있다. 이 영상에서 방관 죄를 다루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성희롱이 범죄라는 것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막상 단독방에서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아무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도 방관자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루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젠더 감수성이 자신의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성 평등을 기준으로 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대화 양상을 성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만약 자신이 단독방 성희롱을 목격했다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면 학생의 바람직한 매체 향유 태도를 개선할 수 있다.

이 영상의 섬네일은 피해자의 사진과 “좀 예민해도 괜찮아 2화, 단독방 성희롱 애 어때?”라는 자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좀 예민해도 괜찮아”라는

100) https://youtu.be/c-R_GPMawWc (접속일자: 2022. 02. 23.)

제목은 범죄 상황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피해자가 오히려 예민하다는 식으로 2차 가해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서 적절한 제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섬네일에 피해자의 얼굴과 ‘애 어때?’라는 자막이 결합하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피해자를 평가하는 상황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피해자를 평가하는 가해자의 발언이 오히려 성적 대상화, 성희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생산자는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영상의 댓글에서는 현실을 잘 반영했다는 드라마라는 칭찬, 시의성 있는 문제를 다룬 드라마라는 평가, 대학에서 비일비재한 문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를 두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학습자들은 왜 이런 범죄가 비일비재한가에 관해서 사회 구조적인 문제, 개인 문제 등 여러 관점에서 원인을 이야기해 볼 수 있다.

두 번째 영상은 ‘KBS N’에서 하는 연예 관련 고민 프로그램 ‘연애의 참견’ 영상이다.¹⁰¹⁾ 섬네일은 악마의 뿔을 달고 있는 출연자의 사진과 단톡방 성희롱 내용에 강조 표시를 한 사진, “뉴스 봤지? 이러다 감빵 가는 거야~”라는 자막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목은 “19금 주의, 남자들 단톡방 진짜 이렇다고? ㄷㄷ”이다. 이 프로그램이 예능 분야이기 때문에 뉴스와는 다르게 재미와 흥미를 추구하는 경향이 더 크다. 하지만 단순히 연인 간의 고민이 아닌 범죄를 다루고 있다면 해당 화의 섬네일을 만들 때는 좀 더 조심해야 한다. 성희롱 내용에 굳이 붉은색으로 강조 표시를 할 필요가 있었는데 관해서는 사건 피해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9금 주의’ 표시를 사용할 때는 여러 목적이 있지만 보통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성적인 분위기를 즐길 때나 흥미 유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성적 대상화의 문제가 생길 수

101) <https://youtu.be/KF0Kn2PyOtM> (접속일자: 2022. 02. 23.)

있다는 여지가 있는데, 하물며 단톡방 성희롱이라는 범죄 사건을 두고 ‘19금 주의’ 표시가 필요했냐는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즉,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영상을 대상으로 하여 최대한 예민하게 접근해 보는 것도 젠더 감수성을 신장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예민하게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가 비판적 인식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여상의 댓글에서는 가해자의 성별과 관련된 일반화에 관한 논쟁이 일어났다. 영상의 제목에서 “남자들 단톡방은 다 이렇다고?”라고 한 것처럼 ‘남자’와 단톡방 성희롱 문제를 대응시켰기 때문이다. 여성이 주로 피해자가 되는 상황이 문제라는 의견에 대해서 남성들도 피해자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여성과 남성의 또 다른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대다수 피해자가 왜 여성인지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야지 여성과 남성의 갈등으로 이어진다면 문제의 본질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5> 단톡방 성희롱 ‘최신순’ 관련 영상

분류 기준	섬네일과 제목
최신순	<div data-bbox="419 1339 807 1554">  <p>[제보는 MBC] "누드 사진 확보해 협박"...항공대 학생들의 단톡방 성희롱 (2021.09.02/뉴스데스크/MBC) 조회수 9.6만회 · 5개월 전</p> </div> <div data-bbox="419 1576 807 1794">  <p>"준강간 고" "술 먹어 데려와라"...현직 경찰들 단톡방 '성희롱' 의혹 / JTBC 뉴스ON 조회수 2.6천회 · 9개월 전</p> </di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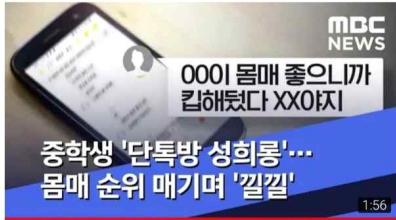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최신순’을 기준으로 한 영상이다. 첫 번째 영상은 가해 사실과 대화방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학교의 징계 조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있다.¹⁰²⁾ 피해자는 성별, 나이와 상관없이 다수의 사람이었으며 댓글에서는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가해자들은 취직이 금지되어야 한다는 의견,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섬네일은 단톡방 성희롱 내용이 없었고 고발하는 대자보의 이미지의 제목에 강조 표시를 한 사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자막에서 “nud 사진 확보해 협박”이라는 내용을 표현하고 있으므로 단톡방 성희롱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불법 촬영 피해자의 영상을 검색하는 2차 가해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수정해야 할 제목으로 보인다.

두 번째 영상은 가해자들의 이미지와 단톡방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고 “여경 겨냥 ‘음란 대화’ 난무한 충격의 단톡방”이라는 자막으로 섬네일이 구성되어 있다.¹⁰³⁾ 제목에서 ‘여경’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음란 대화’라고 범죄 사실을 압축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목이 성희롱 내용을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의 현주소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댓글에서는 범죄에 대한 분노와 함께 범죄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댓글도 존재한다.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교사를 처벌하라는 댓글이었는데, 해당 영상이 성범죄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면 부적절한 댓글이다. 이러한 댓글을 두고서 교수학습 내용에서 댓글을 다는 것과 관련한 쓰기 윤리에 대해서도 다루어 볼 수 있다.

102) <https://youtu.be/j-QEAKpM0IU> (접속일자: 2022. 02. 23.)

103) <https://youtu.be/V4YHw2plfTU> (접속일자: 2022. 02. 23.)

<표 26> 학습 자료 선정③ (단톡방 성희롱)



중학생 '단톡방 성희롱'... 몸매 순위 매기며 '낄낄'
(2019.12.07/뉴스투데이/MBC)
조회수 1.4만회 · 2년 전

MBC NEWS

<앵커>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무려 1년 동안 여학생뿐 아니라 선생님까지 겨냥한 성적 혐오 발언들이 오갔다는데요, 남효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에 있는 한 중학교 3학년 남학생 15명이 만든 단체 대화방입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몸매가 좋다'며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을 스스럼없이 늘어놓습니다.

여학생들의 순위를 매기며 성행위를 암시하기도 합니다.

외모를 따져가며, 다른 여학생을 혐오하는 발언도 오갑니다.

이 학생들은 대화방에서 무려 1년 동안 일상적으로 성희롱 대화를 주고 받았습니다.

[해당 중학교 학생 A]

"이건 선을 너무 넘은 거 같아요. 한두 번이 아니라 무차별적으로 아무한테나 그렇게 했으니까."

심지어 자신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해당 중학교 학생 B]

"XX 쌤, XX 쌤이랑 XX 쌤 아내를 (희롱)하고... 좀 심하게..."

우연히 이 대화방을 목격한 한 여학생이 놀라 친구들에게 알렸고, 학교는 발각 뒤집혔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해 확인한 피해 여학생만 33명.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위를 열어 해당 남학생 일부를 강제 전학시키는 등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피해 여학생 1명이 자신을 희롱한 남학생 1명을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지난 달 29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친고죄인 '모욕죄'를 적용했는데, 피해 학생의 부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피해 여학생의 신고가 잇따라 수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조사에선 디지털 공간에서 언어적 성희롱과 폭력을 경험했다는 여자 중·고교생들은 10명 중에 4명에 달합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¹⁰⁴⁾

학습 자료로 활용할 '유튜브' 영상 자료로 중학교에서 일어난 단톡방 관련 영상을 선정하였다. 영상의 썸네일과 내용, 댓글은 '관련성' 관련 기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로 성희롱 내용을 썸네일에 넣은 것에 관한 문제, 성희롱과 장난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는 문제, 젠더 감수성을 신장할 수 있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매체에서 성적 요구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사회에서는 관습적으로 남성은 성적 욕구가 활발해서 해소할 필요가 있고 여성은 남성보다 성적 욕구가 적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왔다. 이는 여성에게 정조 관념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사회적 통념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이러한 통념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나누는 기준이 되어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심각하게는 아무렇지 않게 성희롱을 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유튜브'와 같은 디지털 매체에서 여성 혐오 발언을 쉽게 접하고 이를 문제의식 없이 친구와의 대화에서 재미 삼아 말하고 친구가 여성 혐오 발언을 접하게 만드는 이러한 순환 구조를 깨뜨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젠더 감수성 신장을 갖추고 매체를 향유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교사는 학생들이 문제의 심각성과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04) MBC 뉴스, <중학생 '단톡방 성희롱' ... 몸매 순위 매기며 '깰깰'>,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35719_28983.html
(접속일자: 2022. 02. 23.)

<표 27> 동영상 댓글과 대댓글¹⁰⁵⁾

번호	댓글 내용	공감수
A	차별 수준을 높여라	52
B	시바 제가 이런 학교에 다녔다는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	6
C	이게 학교냐? 우리학교 ㄹㅇ 뭐하자는...	7
D	근데 걸려서 이러지 모든학교에서 한 그룹씩 있음	2
E	이거 실화예요. 대놓고 하는세끼도 있음	21

위의 표에서 C나 D, E와 같이 학생 연령대의 시청자가 쓴 것으로 추론할 수 있는 댓글의 내용을 보면 일부 학생들은 이미 단톡방 성희롱이 범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 혹은 재미를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사실 카카오톡이 있기 전부터 성희롱은 존재했는데, 단톡방이라는 온라인 매체와 결합하여 더 큰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과 같은 단톡방은 익명의 사람들이 시공간에 제약 없이 성희롱을 저지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자료의 대량 전달과 급속한 전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A 댓글처럼 차별 수준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젠더 감수성을 신장을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젠더 감수성을 갖추고 있을 때 성희롱을 범죄라고 인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젠더 감수성을 갖추었을 때, 성범죄에 대해서 권력 관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유튜브’에서 단톡방 성희롱과 같은 사건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학습자들이 발견한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105) MBC 뉴스, <중학생 ‘단톡방 성희롱’ ... 몸매 순위 매기며 ‘깎깎’>,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35719_28983.html (접속일자: 2022. 02. 23.)

IV.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

1. 교육 방향 제안

지금까지 ‘언어와 매체’ 교과서와 ‘유튜브’ 자료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젠더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안해보려고 한다.

첫 번째는 실제성을 고려한 ‘유튜브’ 자료의 활용 방향성이다. II장에서 본고는 학생들에게 친숙한 매체인 ‘유튜브’를 활용한 수업이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동기를 높이는 데 있어 효과가 있다고 말하였다. 학교에서 ‘유튜브’ 자료를 활용한 동기 유발은 이미 많이 관찰할 수 있는 모습이다. 이제 학생들의 ‘유튜브’ 자료 그 자체에 집중해서 매체 향유 능력을 기르는 사회적 요구가 커진 상황이다. 본고는 ‘비판적, 주체적 향유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유튜브’ 속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문제 삼고 있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과 같이 학생들의 삶과 이제 떼어낼 수 없는 여성 혐오 범죄를 세부 주제로 하여 ‘유튜브’ 영상을 분석하는 과제를 제시하려고 한다. ‘유튜브’에서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그려내고 있는지 섬네일을 분석하여 복합 양식 텍스트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비판하는 과제이다. ‘유튜브’ 섬네일은 영상 생산자의 창작 의도가 최대한 응축된 텍스트이다. 학생들은 섬네일을 보고 생산자의 가치와 관점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영상이 전하고자 하는 정보를 성평등 가치관을 바탕으로 수용해야 한다.

이러한 비판적 사고 능력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발달시킬 수 있

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비판적 사고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이원섭(2014)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비판적 사고 능력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말하였다.¹⁰⁶⁾ 즉, 교사는 학생들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조화와 존중, 공감의 매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력 신장 교육을 계획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유튜브’ 썸네일과 댓글을 분석한 결과로 ‘유튜브’에서 여성 혐오 범죄를 다루는 양상을 살펴본 후 이를 동료 학습자와 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유튜브’는 사회적 여론을 형성하는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는 매체이다. ‘유튜브’에서 데이트 폭력과 같은 사건을 다룬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여성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조적 해결 방안 요구 등 사회적 여론을 댓글을 통해 활발하게 생성하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난 이후 사람들은 영상을 보고 자유롭게 댓글과 대댓글에 대한 대댓글을 달며 인터넷상에서 상호작용을 한다. ‘유튜브’ 댓글과 대댓글의 양상을 활용한 교육으로는 사람들의 영상 수용 양상 살펴보기, 논쟁의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분석하여 자신의 의견 개진하기, 구조적 차별 문제와 관련지어 보는 것에 초점을 두려고 한다.

두 번째의 교육 방향은 젠더 감수성 신장에 더욱 강조점을 둔 협동 학습이다. 협동 학습을 위해서 학생들은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와 목적에 맞게 선별하는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영상의 썸네일과 내용을 분석하고 요약하는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매체를 수용하고 수용 결과를 자신의 언어로 정리한다. 그 이후에는 동료 학습자와 교사에게 요약 결과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토의에 참여한다. 협동 학습에서 학생들은 자신과 다른 가치관을 지닌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다. 상호작용을 통해 평소 성차

106) 이원섭,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 중 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한국콘텐츠학회, 2014, 795-809 쪽.

별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알아차릴 수 있다. 협동 학습을 통해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사용하는 표현을 성찰해 볼 수 있으며 상대의 이야기를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을 학습 자료로 사용하여 젠더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교육협동 학습은 김수자(2019)에서 제시한 성평등 교육 방향을 참고하려고 한다.¹⁰⁷⁾ 성평등에 초점을 맞춘 교육은 교사와 학생의 수평적 관계를 바탕으로 한 학습자 중심 교육이다. 특히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 교사 또한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수업이다.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문제의식 없이 사용했던 성차별적인 표현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낮은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을 시작해야 한다. 계속 강조했듯이 젠더 감수성 신장을 비판적 사고 능력에서 비롯되며 성차별적인 상황으로 의심되는 상황을 끊임없이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된다. 예민하게 바라보는 것은 왜 성차별적인 상황이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알게 된 것을 적용하여 성차별적 시선에서 만들어진 ‘유튜브’ 영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곧 삶과 삶의 일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여학생과 남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곧 성평등을 지향한다. 성평등 교육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억압받아오던 여성들의 주체성 자각과 해방을 위해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 교육이 여성들만을 위한 것이며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냐는 반론은 명백히 거짓이다. 남성과 여성의 불균형한 권력 구도는 여성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남성에게도 이중의 부담을 지워주기 때문에 불평등한 사회 내에서는 여성과 남성 모두 행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성은 가장이기 때문에 월급을 더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성차별적인 관습에서 비롯된 남성과

107)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교육비평, 2019, 94-125쪽.

여성의 연봉 차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고 충분히 능력이 있는 여성을 두고 남성에게 기회를 더 주는 직장의 잘못된 관습도 여성과 남성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부담을 남성에게만 쌓아주는 비효율적인 결론을 자아낸다. 학생들은 여성과 남성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세 번째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어휘 이해하기, 요약하기, 대화하기’이다. 먼저 ‘어휘 이해하기’는 리터러시 능력의 기본 구성 요건이다. 학생들은 인터넷 영상을 구성하는 문자, 이미지, 음악 등의 기호를 인식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학생들이 기호를 결합하여 의미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어휘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수월하다. 어휘 능력은 학생들이 어휘를 얼마나 많이, 잘 알고 있느냐와도 관련이 있지만, 어휘가 사용되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어휘 사용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태도에서 길러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미디어 텍스트에 사용된 어휘에 차별적 시선이나 혐오가 스며들어 있지는 않은지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행동을 통해 혹시 자신은 ‘유튜브’와 같은 매체에서 만든 성차별적인 표현을 은연중에 흥밋거리로 삼고 있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따라서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학습의 도구로 삼는 교육방안을 제시할 때, 먼저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를 찾아 뜻을 조사하는 활동 이후에 영상이나 댓글에서 차별 표현, 혐오 표현이 있는지 확인하는 활동을 제안하려고 한다. 이러한 학습 활동은 리터러시 교육의 근본적인 부분인 어휘력 향상에 더해 젠더 감수성 함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요약하기’ 활동은 학생들이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텍스트를 해석하고 해석한 결과를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활동이다. 학생들은 중학교 국어 독서 영역에서 요약하며 읽기를 배웠기 때문에 요약하기와 관련된 교육 내용은 선수 학습된 상태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서는 학생들

이 영상 텍스트를 요약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영상 텍스트는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를 결합하여 최대한 친절하게 정보를 구성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을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새로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다. 이는 인터넷 매체 발달의 이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용자들이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기만 할 수 있다는 부작용에도 해당한다. 요약하기는 학생들이 영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방법이다. 학생이 영상에 담긴 정보를 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재구성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휘력, 비판적 향유 능력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생이 영상에서 쓰인 표현에 신경을 쓰는 상황에서 요약하기를 진행한다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성이 필수로 필요한 상황이 된다. 젠더 감수성 함양 교육의 과정에서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을 선택하고, 텍스트를 분석하며 자료를 요약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들이 성평등한 관점을 토대로 영상의 내용을 수용하고 결과를 요약한다면 영상을 단순하게 감상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에서는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향유하는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요약하기와 같이 최대한 학생들이 활동하는 방향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약하기 활동은 대화하기 활동으로 이어져야 한다. 요약한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 독자를 고려하며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독자를 고려한 표현을 사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즉, 상위인지를 통해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점검하고 평가한 것을 바탕으로 독자가 이해하기 쉬운 쪽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조절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대화를 준비하고 대화를 하는 도중에도 학생들은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젠더 감수성 신장을 목표로 하는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요약하

고 대화하기 활동에서는 요약 결과와 함께 성차별적인 표현과 같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상대에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왜 문제가 되는지 충분한 근거를 들어서 말해야 한다. 따라서 대화하기 활동은 학생들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영상 텍스트를 풍부하게 접하도록 만든다. 풍부한 경험은 학생들이 영상의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질 수 있도록 만든다. 이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비판적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매체를 향유하는 태도를 갖추는 결과로 이어진다.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매체 향유 태도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활동을 통해 리터러시를 효과적으로 발달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미디어 리터러시는 기본적인 어휘력에 더해 텍스트 요약하기, 요약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화하는 과정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사회에서 성과 관련하여 강요하는 정상을 낮설게 바라보는 태도, 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기르기 위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본고는 학생들과 가장 친숙한 매체 중 하나인 ‘유튜브’를 선택하여 교육방안을 구상하였다.

2. 교육방안 실제

1)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방법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방법으로 협동 학습을 선택하였다. 협동 학습은 학습자 중심 방법으로 이질적인 학습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집단을 결성하여 협력을 통해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협동 학습은 강의식 수업의 교수 중심 수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학생들이 수업의 주체가 되는 것에 중점을 둔 학습 방법이

다. 협동 학습을 선택한 근거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자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들 수 있다.¹⁰⁸⁾ 학습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계획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실제 삶의 맥락과 연계된 학습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투브’를 제재로 삼아 학습자가 실제 매체 문화생활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협동 학습을 계획하였다.

본고가 제시하는 교육방안의 궁극적인 학습 목표는 성평등한 인간으로서의 성장이다. 성평등과 같은 바람직한 가치관의 함양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대중문화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향유”을 근거로 설정하였다. 또한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에서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면서 학생들이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어야 함을 교수·학습 방향으로 제시하였다.¹⁰⁹⁾ 따라서 학생들이 협동 학습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매체 언어생활을 성찰하고 이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하여 ‘성평등’이라는 바람직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바를 실제 매체 언어생활에서 실천하도록 권장하여 교육을 통해서 알게 된 것과 실제 삶을 일치시키는 방향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방향도 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다.¹¹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육방안은 학생들이 평소 ‘평등, 남녀차별, 여성 혐오’와 같이 성평등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요소들에 가지고 있는 생각을 떠

108)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학습자 참여형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한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학습자가 창의성을 살려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수업을 권장하고 있다. (교육부(b), 118쪽.)

109)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도록 교수·학습을 계획하고 운영한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언어문화 발전을 위한 가치 교육으로서의 국어교육의 성격을 살리고 있다. (교육부(b), 118쪽.)

110) 국어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에서 “수업에서 배운 정의적인 내용을 실제 언어생활에 적용하도록 하여, 인성 요소가 지식 학습으로 그치지 않고 학습자에게 내면화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라고 언급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성평등한 사람으로서 성장하도록 국어교육이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러한 교육이 학교 밖에서도 이어질 수 있도록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b), 119쪽.)

올려보고 이를 친구들과 나누어 보는 활동에서 시작한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혹시 자신이 편견이 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 볼 수 있고 혹은 친구가 지닌 잘못된 생각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도 있다. 교사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학생들이 남성과 여성 중 누가 더 힘들다고 갈등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 수업은 공감과 조화를 기반에 둔 평등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협동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동료 학습자 간 사회적 관계를 맺는 기술을 배우며 협력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진정한 성평등을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때 학습 목표를 온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협동 학습에서의 유의점을 고려하여 수업해야 한다. 협동 학습은 학습자 참여 수업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의의가 있는 수업이다. 하지만 교사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서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 등 교사의 충분한 능력이 필요하다.

‘성평등’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 자체에 반감을 가지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교사의 젠더 감수성, 성평등 교육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는 수업 전에 사진의 젠더 감수성의 수준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

<표 28> 교사의 젠더 감수성 점검 체크리스트¹¹¹⁾

질문 내용
애인은 따로 의사를 묻지 않고도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관계이다.
바람직한 사회는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 나누어진 사회이다.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사람은 성관계에 대해서도 개방적일 것이다.
마음에 드는 상대의 SNS에서 사진을 저장하고 사진에 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다.
남성의 성욕은 여성보다 크다.
여성의 임신 중절은 결혼할 때 밝혀야 할 사항이다.
성폭력 가해자는 전과자이거나 사회부적응자이다.
비만이나 과체중은 자기 관리의 실패물이다.
성매매가 금지될수록 성폭력은 증가할 것이다.
비(미)혼모, 비(미)혼부, 이혼 가정은 불완전한 가정이다.
‘몸매 좋은데’는 성희롱이 아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다.

위의 체크리스트의 질문은 성별 고정관념과 관련된 내용이다. 교사는 필요에 따라 질문을 구성하여 교사 자신의 젠더 감수성 수준을 파악한 후 검사 결과에 따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나 동료 장학 등을 통해 교사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젠더 감수성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교사가 성평등에 관해 왜곡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젠더 감수성 교육이 오히려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다. 교사가 성평등 교육에 대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면 학생들이 교육 목적과 내용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다. 교사가 성평등 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동기가 있을 때 수업 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들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사는 협동 학습에서 우려되는 상황을 예상하고 수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시점에서 개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의 역할과 관련된 구

11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에서 제공한 ‘젠더 감수성 체크리스트’를 재구성하여 만들었다. 이 체크리스트는 질문을 학생의 수준에 맞추어 재구성한 후 학생들의 젠더 감수성 수준을 파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https://bogun.nodong.org/xe/khmwu_6_1/485690
(접속일자: 2022. 06. 11.)

체적인 방안을 사전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먼저 교사는 이 수업이 ‘여성
과 남성 중에 누가 더 힘든가?’라며 성별로 대답하는 구도의 대화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어야 한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젠
더 규범에 갇힌 피해자가 된다는 것을 도입 단계에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성차별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교사는 학생들
에게 이를 부정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해 주어야 한다. 교사
는 학생들이 성차별적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성별 고정관념의 예시를 들어 주고 성별을 바꾸었을
때 사회적 인식이 동일한지 생각해 보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112)

협동 학습을 운용할 때에는 교사의 역할 이외에도 학습자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유의점이 존재한다. ‘무임승차 효과, 봉 효과’가 대표적인
유의점이다. ‘무임승차 효과’는 조원들이 모두 참여해야 하는 협동 활동에서
한 학생이 참여하지 않아서 다른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중되며 주로 학습 능
력이 높은 학습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동
학습에서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도입한다. 협동 학습에서는 한 번의 평가로
점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개별점수, 집단점수, 발전 점수를 모두 고려하
여 집단 간의 경쟁을 유도하여 참여율을 높인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 평가
와 동료 평가를 한다. 이는 평가의 주체를 다양화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
이는 것과 동료 평가로 학습자의 참여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봉 효과’는 ‘무임승차 효과’와 반대의 경우로 학습 능력이 높은 학습자가
자신의 성과가 다른 학습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꺼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협동 학습의 모든
과정은 학습지에 기록될 것이며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모두 고려하여 최
대한 합리적으로 평가를 할 것이라고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수업은

112)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교육비평, 2019, 114쪽.

시험 점수와 같이 정량적인 능력에 따라 좌지우지되지 않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해야 한다. 또한, 발전 점수가 있으므로 동료 학습자와 협력하여 서로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함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협동 학습은 ‘Co-op Co-op’ 협동 학습이다. 일명 ‘코프 코프 학습’은 학생들의 자주성을 최대한 자극하여 사고력을 발달시키는 교수·학습 방법이다. ‘코프 코프 학습’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운용된다.

<표 29> Co-op Co-op 협동 학습 단계¹¹³⁾

단계 1	학급 모두가 전체적인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단계 2	토론 이후에 세부 주제를 나누고 각자 원하는 주제를 다루는 소집단에 속한다.
단계 3	소집단에서는 토의를 통해 그 소주제를 더 작은 소주제로 나누어 각자 맡은 부분을 조사해 온다.
단계 4	소집단에서 토의를 통해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발표를 준비한다.
단계 5	발표 이후에 교사는 평가를 진행한다.

위에 제시된 단계를 통해 ‘코프 코프 학습’은 주요 주제와 세부 주제, 소주제와 같이 학습 내용을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을 지향한다. 본 연구는 젠더 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주요 주제로 선정하였다. 세부 주제로는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을 선정하여 ‘유튜브’ 학습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학생들이 3개의 세부 주제 중에서 각자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소주제를 스스로 생각하고 선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소주제는 학생들이 작성할 한 편의 글에 대한 주제로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을 주제에 맞게 선정하여 타당하고 신뢰할 만한 근거를 들어 자유롭게 글을 쓰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리터러시 교육의 성격에 맞게 자신이 생성한 내용을 다른 이에게 설명하면서 언어 활용 능력을 기를

113) 신명희, 강소연 외 7인, 『교육심리학』, 학지사, 2020, 323쪽.

수 있도록 한다. 소집단에서 이루어진 토의는 전체 학급을 대상으로 한 발표를 위한 기착지로서 동일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담당한다. 협동 학습을 모두 마친 이후에는 교사는 학생들이 작성한 학습지를 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서 평가한다. 평가할 때는 학생들이 긍정적으로 서로에게 의존하며 목표를 향해 나아갔는지, 수업을 통한 발전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와 같이 학생의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평가하도록 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협동 학습 기본적인 부분을 짚어보았다. 협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성평등을 꺼리지 않고 편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수업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이야기해도 좋을 정도로 최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을 고려하여 교육방안을 계획하였다. 학생들의 실제적인 삶을 고려하여 ‘유튜브’를 학습 제재로 선택한 것과 학습자 간 협력을 통해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협동 학습을 선정은 학생들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학습 방안

(1) 1차시 교수·학습 방안

본 연구에서 계획한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은 총 3차시로 구성되어 있다.¹¹⁴⁾ 1차시는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성찰하기, 유튜브 비판적으로 분석하기를 바탕으로 개별 학습을 위한 기반을 쌓는 데 초점을 두었다. 2차시는 1차시 수업에서 경험한 바를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유튜브에서 드러나는 성차별적인 요소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한 편의 글을

114) 수업의 차시는 수업 상황에 맞추어 융통성 있게 조절하는 것이 좋다. 최소한 3차시는 되어야 학생들이 토의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될 수 있고 1차시 정도 더 늘려서 학생들이 협동 학습에서 느끼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완성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3차시는 개별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동료 학습자와의 소통을 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지금부터는 ‘코프 코프 학습’을 적용하여 계획한 협동 학습을 차시별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한다. 교육 대상은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사용하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설정하였다. 이 협동 학습은 학생들이 뉴 미디어의 개념과 특성과 관련된 학습을 한 이후에 진행하므로 교수·학습을 위한 선수 학습 능력을 갖춘 상태로 가정하였다. 교수·학습 자료는 총 3차시의 학습지를 제공한다. 먼저 세부 주제에 대한 탐구를 통해 협동 학습을 시작하는 1차시 수업에 관한 계획이다.

<표 30> 1차시 교수·학습

1차시	<p>* 학습 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뉴 미디어 매체를 비판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고 성평등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기른다
	<p>* 협동 학습 수업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듈별 토의
	<p>*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교육 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가 생각하는 남녀가 평등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 - 수업 목표와 관련하여 자기 평가하기 - 세부 주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과 관련하여 이야기
	<p>* ‘유튜브’ 영상 비판적으로 분석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섬네일, 댓글 논쟁 양상 등을 성평등 가치관에 따라 분석하기
	<p>* 분석 결과 발표하기</p>

1차시의 수업은 학습 목표를 제시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 수업의 학습 목표는 ‘젠더 감수성’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고려하여 ‘뉴 미디어 매체를 비판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고 성평등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기른다.’라고 구성하였다. 뉴 미디어는 학습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언어

와 매체’ 교과서에 등장한 개념이다. 비상 출판사의 교과서에서는 ‘뉴 미디어’를 이동 통신 기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미디어로 생산과 수용이 쌍방향적이라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¹¹⁵⁾ 뉴 미디어 매체 중 하나인 ‘유튜브’를 학습 제재로 삼았기에 ‘뉴 미디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유튜브’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학생들과 친숙한 매체가 ‘유튜브’ 외에도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이 여러 종류가 있으므로 이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선정하였다. 즉, 뉴 미디어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뉴 미디어를 향유할 때에도 수업 시간에 배운 바를 적용하여 실천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한 표현이다. ‘성평등한 문화 발전’은 젠더 감수성을 고려하여 사용한 표현이다. 학생들이 젠더 감수성이라는 표현보다는 ‘성평등한 문화’라는 표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젠더 감수성을 신장하는 것이 곧 성평등한 문화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의 본질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학습 목표를 정하였다.

학습 목표를 제시한 후에 교사가 학생들에게 협동 학습의 방식을 설명하며 도입 단계에 진입한다. 협동 학습을 위해 조를 구성하는데, 조를 구성할 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학습 능력, 친숙도, 성별 등 학생들의 특성이 이질적인 학습자들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이질적인 학습자로 집단을 구성할 때 젠더 감수성의 수준이 확연히 차이가 나는 학습자로 구성된 조에서 토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학습자의 젠더 감수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한 사전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전 검사와 함께 학생의 성별, 학생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교사가 상황에 맞게 조 구성 방법을 정해야 한다.¹¹⁶⁾ 젠더

115) 비상, 『언어와 매체』, 2019, 26쪽.

116) ‘성평등 교육’을 할 때 학생의 성별 외에도 교사의 성별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교사가 여성일 때와 남성일 때 성평등 교육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성인 교사가 성평등을 했을 때 학생들이 반발하는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가 존

감수성의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는 경우라면 성별을 섞어서 조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젠더 감수성의 수준이 확연하게 차이 나는 경우라면 젠더 감수성의 수준이 높은 학생들이 대다수가 되도록 조를 구성하거나 같은 성별만 있는 조를 구성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구성하든지 교사가 수업 도입 부분에서 토의 활동 시에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를 지도하고 수업 중에도 수시로 학생들이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지 않도록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나누었던 대화를 가지고 수업 이후에 학생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 주는 것이 필요하다.

협동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상보적인 관계를 맺어 서로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기 때문에 다양한 특성이 있는 동료 학습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집단에서 예상되는 능력 수준이 집단 간 서로 비슷한 수준이어야 경쟁심을 유발하는 데 효과적이다. 이 수업에서는 동기를 유발하고 학습에 참여하는 것에 집단 간에 경쟁심을 유발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문제에 대한 정답을 맞히는 것과 같이 정량적인 점수를 높이는 데 경쟁심을 높이는 것은 지양한다. 조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집단의 안정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집단을 자주 바꾸는 경우 다양한 학습자와 대화할 기회를 얻게 되어 폭넓은 교류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집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조원들 간 친숙도가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할 수 있다. 본고는 집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업 방식을 설정하였다. 학생들의 발전 정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조원 구성을 실질적으로 맞추어야 평가의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다음은 본격적인 협동 학습을 시작한다. 먼저 학생들이 기존에 성평등한 사회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을

제한다. 따라서 성별이 다른 교사들이 팀티칭을 통해 여학생과 남학생 모두 참여하여 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만하다.

진행한다. 학생들은 학습지에 마인드맵이나 그림, 단어 나열하기 등 편리한 방법으로 각자 성평등한 사회에 대해 자기 생각을 작성한다. 주제에 대해서 평소 진지하게 고민하는 학생, 왜곡된 시각을 가진 학생 등 다양한 양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교사는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이 작성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교사가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교육의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이 모두 작성한 후에는 교사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그린 그림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면서 교사도 학생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성평등한 사회가 무엇인지 학생들이 정의를 내려보고 교사가 정의한 바를 설명해 주면서 학생들이 진정한 성평등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첫 번째 자기 평가를 진행한다. 자기 평가는 5점 척도로 점수를 계산한다. 이때 진행하는 자기 평가는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자신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학생들이 솔직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교사들은 여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조를 구성하기 전에 다른 조원들이 보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평가를 하는 것도 학생들이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편하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기 평가의 문제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31> 1차시 자기 평가표

미디어 리터러시	복합 양식 텍스트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있다.
	유튜브 영상을 학습 도구로 사용할 때 목적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면서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뜻을 조사한다.
	유튜브 영상을 감상한 후 내용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평소에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였다.
협동 학습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의 말에 경청하며 듣는다.
	친구들과 대화할 때 공감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어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젠더 감수성	친구들과 성평등, 성차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유튜브 영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을 흥밋거리로 여기며 친구들에게 사용한 적이 있다.
	유튜브 영상을 감상한 후 성차별적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젠더 감수성, 협동 학습을 모두 고려하여 평가 기준을 작성하였다. 먼저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된 평가는 앞서 ‘어휘 이해하기, 요약하기, 대화하기’를 강조한 것을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과 같은 복합 양식 텍스트의 특성을 이해하고 다양한 형태의 기호가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을 인지하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것에 중점을 둔다. 학생들이 선수 학습에서 배운 내용이기도 하며 만일 학생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경우라면 교사가 보충 설명을 해 주면서 ‘유튜브’의 복합 양식 텍스트로서의 성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미디어 리터러시 기준의 2-4번째 기준은 협동 학습에서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능력과도 관련이 있다. 그리고 5번째 기준은 이 수업의 성취기준인 ‘[12언매 03-06] 대중문화의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향유’를 고려하여 작성하였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지식, 기능, 태도를 모두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만들며 학습 목표에 충실하였다.

두 번째로 협동 학습과 관련된 평가는 대화 과정에 있어서 ‘경청’과 ‘공감

적, 비판적 듣기·말하기'를 강조하였다. 공감은 젠더 감수성을 기르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평소에 자신의 듣기 태도를 점검할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또한, 성평등, 성차별과 관련하여 상대와 나의 경험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 비판적 듣기 고려하여 평가 질문을 만들었다. 학생들은 자기 생각과 다른 친구에게 무 맥락적인 비난을 하지 않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성평등에 대해서 매체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 왜곡된 시각을 가진 학생이 있을 수 있다. 혹은 성평등, 성차별에 대해 막연한 반항 심리를 지닌 학생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 학습이 심각한 갈등으로 치닫지 않도록 학생들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대화할 수 있는 공감적, 비판적 듣기·말하기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평가는 평소에 학생들이 성평등, 성차별에 대해 지니고 있던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학습의 목표를 다시 한번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다. 학생들은 이 수업을 통해서 진정한 평등은 무엇인지, 성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생각을 정립할 수 있다. 학생들은 '유튜브'에서 혐오 표현, 차별 표현을 본 적이 있을 것이고 문제의식 없이 재미로 평소에 사용한 적도 있을 것이다. 학생들은 평소 자신의 언어습관을 점검해보는 동시에 이 질문을 통해 내가 사용했던 언어 표현에 성차별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볼 수 있다. 이에 더해 3번째 질문을 통해 혐오와 차별이 단순히 흥미라는 목적으로 합리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번째 질문은 학생들이 얼마나 차별과 혐오 표현에 민감한가를 알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무심코 흘려보냈던 표현에 성차별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깨닫고 비판적으로 매체를 누릴 수 있

는 태도를 기르는 것을 의도로 만든 질문이다. 학생들이 혐오, 차별 표현을 사용했는지를 성찰하는 데 있어서 교사가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성차별적 표현을 예시로 들어주는 것이 좋다.¹¹⁷⁾

자기 평가 이후에는 협동 학습의 세부 주제인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적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세부 주제는 최근 끊이지 않는 여성 혐오 범죄로서 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학생들이 관심을 보여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정하였다. 교사는 학생들이 평소에 뉴스나 기사 등 매체에서 세부 주제와 관련하여 접한 내용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한다. 먼저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학급 전체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이나 처음부터 학급 전체 사이의 대화를 진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 교사는 학생들의 대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세부 주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로 알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고 왜곡된 생각을 지닌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사는 대화의 결과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현재 수준을 평가하고 다음 수업 준비에 적용해야 한다.

1차시 수업의 마지막 활동은 ‘유튜브’ 영상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활동이다. 교사는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 군대 내 불법 촬영 사건 영상, 중학교 학생의 단톡방 성희롱 사건 영상의 섬네일을 제시한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섬네일을 구성하고 있는 기호들이 무엇인지 분석하도록 지도한다. 섬네일은 글과 이미지가 결합한 복합 양식 텍스트라는 점을 학생들이 이해하도록 한다. 그리고 영상 생산자가 이러한 섬네일을 통해서 수용자들에게 어떤 의도로 무슨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예측해 보도록 한다. 예측하는 활동을 한 이후에는 학생들이 섬네일을 낯설게 바라보도록

117) 김지수, 윤석민(2019)는 1인 미디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혐오 표현으로 ‘보슬아치, 상폐녀, 김여사’ 등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이러한 혐오 표현을 예시로 들어 주면서 학생들이 평소에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였는지를 되돌아 보도록 지도해야 한다.

지도한다. 낯설게 바라보기는 섬네일 속에 성차별적인 표현이 있는지, 성적 대상화를 의도한 표현이 있는지 등을 도출해 내도록 하는 것이다.

먼저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대표적인 ‘유튜브’ 학습 자료는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이다. ‘유튜브’ 영상 섬네일은 다음과 같다.

<표 32>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 섬네일¹¹⁸⁾



이를 통해서도 공감과 관련된 교육에 초점을 두었다.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을 두고 맥락 없는 비난과 조롱이 담긴 댓글을 작성하는 원인 중 하나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평소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학생들은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별생각이 없을 수 있고, 무섭다는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행동은 사람들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 이후에 달라진 생각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생들은 이 영상의 섬네일을 자막, 이미지, 사진 등을 기준으로 삼아 분석하고 영상 생산자의 창작 의도와 내용을 추론해야 한다. III장에서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섬네일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에게 폭력을 가하는 구도의 이미지를 통해 여성 피해자가 다수인 현실과 여성 혐오 구조를 연결지어 보아야 한다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폭력적인 이미지가 섬네일

118) 여성가족부, “희망 그림 캠페인 8편 ‘데이트 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는 ☆’” <https://youtu.be/erKy-yIZf0M> (접속 일자: 2022. 05. 08.)

에 있는 것에 대한 양면적인 영향을 분석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자막에서 ‘데이트 폭력’이라는 명칭이 적절한가를 평가하는 것도 함께하면 좋은 활동이다.

다음으로 댓글 논쟁 양상을 분석하는 활동이 이어진다. 먼저 교사는 비난과 조롱의 댓글을 보여주면서 댓글에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 후, 댓글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짚어내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이 먼저 비판할 점을 생각해 보도록 한 후 교사가 댓글들이 어떠한 지점에서 성차별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는지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

<표 33>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 댓글 양상¹¹⁹⁾

번호	댓글 내용	공감 수
A	“집에 잘 들어갔어?”라는 영상의 대사에 달린 댓글	
	- 이걸 누가 저딴 의미로 쓰냐 ㅋㅋㅋㅋ	823
	- 헛소리를 당당하게하는중	189
	- 킹정ㅋㅋㅋㅋㅋㅋㅋ 겁나 당당하게 하네	69
B	남자들끼리도 잘 들어갔냐는 말 안부처럼 하는데 ㅋㅋㅋ 미치겠네 야가주 깎	35
C	저 개소리 듣고 나 진짜 구라안치고 현실로 우와.....그랬음 와....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집 잘들어갔어?가 도대체 안부인사가 아니면 뭐야...?잠정적 가해자를 피하고 숨어서 24시간 걸려서 복귀한거야???? (중략)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10번을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됨	6
D	멋진 ** 님, 좋은 광고 감사합니다	221
E	의미있는 목소리에 용기를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54
F	영향력 있는 분이 꾸준히 목소리 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9

처음 질문은 ‘캠페인의 주제에 공감하나요? 아니면 공감하지 않나요? 이 유와 함께 작성해 봅시다.’이다. 두 번째 질문은 ‘댓글에서 A, B, C와 D, E,

119) 여성가족부, “희망 그림 캠페인 8편 ‘데이트 폭력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길 바라는 ☆’” <https://youtu.be/erKy-yIZf0M> (접속 일자: 2022. 05. 08.)

F의 다른 점 비교하고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이다. ‘공감’은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해서 필요한 정의적 태도이다. 데이트 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을 본 후에 영상 주인공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반응을 보인 댓글을 통해서 이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캠페인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왜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 고민해 보지 않고 자신을 기준으로 삼는 태도를 보고 학생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이 겪어보지 않았다고 해서 피해자를 지우려는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한 행동이기 때문이다. 즉, 댓글에서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공감과 젠더 감수성 함양의 차이로 인해서 생겨났다는 것을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학생들은 캠페인 영상에 달린 댓글 양상의 변화를 통해서 매체의 긍정적인 기능을 배울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매체를 부정적인 쪽으로 한정되게 바라보는 것을 지양하고 있다.¹²⁰⁾ 따라서 캠페인을 응원하고 앞서 부적절한 댓글을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을 보면서 매체의 선한 영향력을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120) ‘언어와 매체’ 교육과정에서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이해와 관련된 지도에서는 대중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강조하는 것을 지양하도록 명시해 두고 있다.

다음은 ‘불법 촬영’과 관련된 ‘유튜브’ 영상 분석 대표 자료이다.

<표 34> ‘군대 내 불법 촬영 사건’ 섬네일¹²¹⁾



‘불법 촬영’과 관련하여 대표적인 학습 자료는 군대 내에서 벌어진 불법 촬영 사건이다. 섬네일에서 불법 촬영 도구나 폭력적인 이미지는 사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자막에서 ‘여군’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를 특정 짓기 쉬운 표현을 굳이 사용해야 하는 것과 관련하여 토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군대의 미흡한 후속 조치와 관련된 댓글을 통해 군대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을지 이야기해 보고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어떤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지 조사해 보는 활동도 필요하다. 10대 피해자가 많은 동영상 범죄가 심각한 상황에서 만약 학생들이 피해자가 되었거나 협박을 받는 상황이라면 어떤 사회단체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지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불법 촬영과 관련해서는 가해자에게 원인을 찾는 것 이외에 불법 촬영의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인 것과 관련하여 구조적 차별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121) SBS 뉴스, <불법 촬영 풀더마다 여군 이름...부대는 "전역할 건데"- 남성 부사관이 여군 숙소 무단침입해 불법 촬영 "불법 촬영 피해자 최소 5명">,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341605&plink=COPYPASTE&cooper=SBSNEWSSEND, (접속 일자: 2022. 02. 23.)

<표 35> ‘군대 내 불법 촬영 사건’ 댓글 양상¹²²⁾

번호	댓글 내용	공감 수
A	진짜 군대 내 성범죄 문제 줄줄이 터져 나오네 ㅋㅋㅋ 문제 생기면 덮으려 한 놈들부터 파면시켜야 문제가 안생기지 진짜 더럽다	196
B	곧 전역할건데 -> 아... 우리 부대에서 사건사고나면 안된다고요 ㅠㅈㅠㅈㅠ	851
C	경찰쪽에서도 여경들 화장실 용변장면 불법촬영한 사건도 있었죠. 같은 남경들이 쉬쉬하며 성범죄 저지른 남경 감싸주다 처벌이 흐지부지 넘어갔던걸로 아는데 성범죄 처벌 제대로 좀 합시다. 성범죄자 인권이 강해질수록 정상적인 사람들만 피해봅니다 - 그런 경찰에 왜 처 기어 들어가는데??? 니네 평소 주장이면 겁나서 남자랑 맞살겠다고 여성 전용 임대 주택 잇잖아 경찰 성범죄 많다면서 여경은 왜케 지원 몰리냐???	200
D	같은 공군인데 왜 누구는 감싸주고 왜 누구는 관심병사 취급이나고 심지어 범죄자인데? 그냥 다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 그냥 여군이 왜 필요하나 - 언젠 아몰랑 여자도 군대가!!! 빼애앵거리다가 이젠 여군이 왜 필요하냐고 지랄ㅋㅋㅋ 하나만 해라 - 여성징병제도입하라고할때는언제고이제필요없다네!	1000
E	이런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지...다들 이런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깐 여기까지 온거다 - 그래 남자엔변방 피해자 1000명은 공론화도 안되는 나라^^	1900

‘불법 촬영’과 관련된 댓글 분석에 달린 질문은 먼저 ‘D와 E에서 벌어진 논쟁 양상에서 공감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적어 보기’이다. ‘D’의 댓글을 특정 지은 이유는 학생들이 군대를 둘러싼 성차별 갈등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D’의 댓글에 여군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대댓글을 보면서 여기에 담긴 차별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군대 그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지 않도록 유의하며 군대에 남성들만 주로 가는 것이 ‘역차별’로 말할 수 있는가와 같은 논쟁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든 질문이다. 다음

122) 위의 영상, (접속 일자: 2022. 02. 23.)

질문은 ‘불법 촬영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나 기관을 조사해 봅시다.’이다. 학생들이 불법 촬영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를 알고 있는 것도 필요하므로 이 질문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단톡방 성희롱’과 관련된 대표적인 학습 자료는 중학교에서 발생한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다. 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과 여성을 함부로 성적 대상화 하며 성희롱하는 것은 절대로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

<표 36> ‘단톡방 성희롱 사건’ 섬네일¹²³⁾



위의 영상의 섬네일은 단톡방 성희롱 내용 중 일부를 지나치게 표현한 대화 내용과 단톡방 사진, 자막 “중학생 ‘단톡방 성희롱’... 몸매 순위 매기며 ‘낄낄’”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섬네일에 담긴 다양한 기호들을 분석한 후 섬네일에서 성희롱의 내용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의견을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장난과 성희롱은 엄연히 다른 것임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질문으로 ‘장난과 성희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를 설정하였다. 김선자(2019)는 학생들이 장난과 폭력, 친근감 표

123) MBC 뉴스, <중학생 ‘단톡방 성희롱’ ... 몸매 순위 매기며 ‘낄낄’>
https://imnews.imbc.com/replay/2019/nwtoday/article/5635719_28983.html
 (접속일자: 2022. 02. 23.)

현의 경계를 혼란스러워한다고 이야기하였다.¹²⁴⁾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성희롱을 성희롱으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만일 내가 한 발언이 상대에게서 들었을 때도 부담 없이 웃을 수 있는 발언인지 생각해 보고 웃을 수 없는 발언이라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성희롱 발언을 장난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댓글을 보면 단톡방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이 매체에서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표현을 본 적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설정하였다. 미디어 매체에서 남성들의 성적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이러한 표현 방식에 성차별적인 관점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활동이 필요하다. 다음 질문은 ‘만약 단톡방에서 성희롱하는 가해자를 보게 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요?’이다. 이 질문은 학생들이 방관자가 무엇이고 왜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지 이해하도록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서덜랜드의 차별 접촉 이론에 따르면 학생이 비행을 저지르는 친구와 오랫동안 접촉하게 될수록 비행에 호의적이고 동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고 주장하였다.¹²⁵⁾ 따라서 단톡방에서 친구들이 성희롱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자주 접촉하게 되면 자신도 성희롱을 장난이라고 잘못 합리화하여 가해자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또한, 처음에는 방관자인 상태에서 있던 학생이라도 힘으로 점철된 성희롱을 자주 접하게 된다면 성희롱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자신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통해서 학생들이 성희롱은 성적 욕구를 표출하는 것이라고 합리화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방관자나 가해자가 되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둔다.

124)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교육비평, 2019, 117쪽.

125) 정여주, 선혜연 외 6인,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학지사, 2018, 124쪽.

(2) 2차시 교수·학습 방안

<표 37> 2차시 교수·학습

2차시	<p><개별 학습 진행하기></p> <p>* ‘유튜브’ 영상 분석하고 글 완성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주제를 선정하고 각자 섬네일 분석, 내용 요약하기 활동하기 - 요약한 결과 설명 준비 후 다음 수업에 참여하기 - 영상 내용과 관련하여 성평등한 시각에 근거하여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한 편의 글 완성하기
------------	---

2차시 수업에서는 협동 학습을 위한 준비 격인 개별 학습을 진행한다. 학생들은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과 관련된 소주제를 선정한다. 학생들은 소주제를 선택한 후 이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조사하여 선정해야 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주제와 관련된 영상을 선정하도록 하며 영상을 만드는 주체가 공신력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이 소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교사는 소주제로 선정할 만한 예시를 제공해야 한다. 소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38> 개별 학습 소주제 예시 - 데이트 폭력

<p>* 데이트 폭력</p> <p>‘데이트 폭력을 다룬 영상의 섬네일을 5개 이상 선정하여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도출하고 성차별적인 부분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p> <p>‘유튜브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강의를 3개 이상 감상한 후 내용 요약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사라지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의견 제시하기’</p> <p>‘캠페인 영상 속 여성은 왜 밤길이 위험하다고 했을까를 고민해 보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기’</p> <p>‘연인이 사이에서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어떤 의미인가? 만약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아 폭력을 가한다면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은지 생각해보기’</p>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1차시 수업 때 섬네일을 분석해 보았기 때문에 5개 이상의 섬네일을 선정하여 스스로 성평등한 시선에서 비판할 점을 찾아보는 소주제를 예시로 들었다. 두 번째로는 데이트 폭력 강의를 ‘유튜브’에서 3개 이상 감상한 후 내용을 요약하면서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예시를 들었다. 그리고 이 예시는 데이트 폭력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여 자연스럽게 남녀 간 권력의 차이와 그로 인한 폭력 등을 떠올려 볼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나머지 예시는 1차시 때 활용한 데이트 폭력 예방 캠페인 영상에 관한 예시를 제시하였다. 김수자(2019)에 따르면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이 겪는 불안과 피해 경험 듣고 이렇게 남학생과 여학생이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¹²⁶⁾ 학생들은 영상 속 인물이 혹은 영상에 공감하고 있는 동료 학습자들이 ‘왜’ 공감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공감은 상대의 감정과 상황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시작되는데, 이유를 모르면 쉽사리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유는 여성을 상대로 한 폭력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며 이는 곧 남성과 여성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교사는 학생들이 상대를 공감하는 것과 함께 성차별적 사회로 인한 공포와 불편함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들은 영상에서 말하고 있는 불안이 단순히 예민하거나 허황된 것으로 치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한다.

다음 예시는 상대 발언에 대한 존중의 태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질문이다. 이 질문은 학생들이 데이트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신체접촉에 대한 반응을 상상해 보도록 만든다. 만일 상대가 ‘싫어, 안돼, 나중에’와 ‘해보고 싶어’라는 상반된 반응을 한다면 어떤 의미로 해석하여 받아들일 것인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거절은 거절일 뿐 그 이상의 의미는 없다는 것을

126)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교육비평, 2019, 116쪽.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상대가 명백히 거절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본인이 승낙의 의미로 해석하여 폭력을 저지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자기 몸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자기의 의사를 당당히 밝히는 태도와 함께 상대의 발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갖추어야 한다.

<표 39> 개별 학습 소주제 예시 - 불법 촬영

<p>* 불법 촬영</p> <p>‘불법 촬영을 다룬 영상의 섬네일을 5개 이상 선정하여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도출하고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p> <p>‘유튜브에서 불법 촬영 관련 강의를 3개 이상 감상한 후 내용 요약하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사라지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의견 제시하기’</p> <p>‘군대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왜 남성이 주로 군대에 가는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유 추론하기’</p> <p>‘성평등 교육이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운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p> <p>성평등 교육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p> <p>‘성별과 관련된 성적 고정관념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을 5개 이상 찾아보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서 표현할 수 있는지 의견 제시하기’</p>
--

불법 촬영과 관련한 소주제 예시는 위와 같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은 데이트 폭력 관련 소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은 대표적인 학습 자료를 선정한 이유와 관련이 있다. 군대 내에서 일어난 불법 촬영 범죄를 대표적인 학습 자료를 선정한 이유에는 ‘군대’를 소재로 하여 성평등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학생과 여학생이 모두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성평등 교육은 ‘남자가 더 힘들다’와 같이 누가 더 고통스러운가에 관한 논쟁을 막고 성차별적인 사회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남성들이 ‘역차별’을 말하고 남성이 더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면 억울해하는 부분이 왜 만들어졌는지 거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군대와 같이 권력을 상징하는 것은 남성의 권위와 관련되어 있었

고 이는 가부장제 사회가 만든 것이다. ‘권력, 권위’와 같이 흔히 가부장제 남성성을 옹호하는 사회가 지금도 남성들에게 타인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옳다고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곧 여성이나 군대에 갈 수 없는 남성들과 같이 가부장제 남성성을 지니지 못한 이들을 대상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는 성차별적인 사회로 더욱 견고하게 굳어진다. 남성들이 말하는 ‘역차별’이 남성성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사회가 만든 결과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다면 성평등 교육이 여성 우월주의가 아니라 인간의 진정한 자유와 구조적 차별에 대한 해방을 지향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마지막 예시는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에서 불필요하게 성별을 강조하는 표현이나 성적 고정관념이 담긴 표현을 인지하는 것을 유도한다. 그리고 사람의 고유한 특성인 성별을 이유로 편견을 유발하는 이러한 표현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는 무의식적으로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기에 성차별적인 표현은 아닌지 의심해 보는 태도를 기를 수 있다.

단톡방 성희롱과 관련된 소주제 예시는 다음과 같다.

<표 40> 개별 학습 소주제 예시 - 단톡방 성희롱

<p>* 단톡방 성희롱</p> <p>‘단톡방 성희롱을 다룬 영상의 썸네일을 5개 이상 선정하여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도출하고 성차별적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p> <p>‘유튜브에서 단톡방 성희롱 관련 강의를 3개 이상 감상한 후 내용 요약하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사라지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의견 제시하기’</p> <p>‘유튜브에서 성적 대상화 혹은 성 상품화, 혐오 발언 등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영상의 썸네일이 있다면 3개 이상 찾아보고 이런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성평등한 관점에서 비판하기’</p> <p>‘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남성이나 여성의 성적 욕구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 예시로 들면서 성평등한 관점에서 비판하기’</p> <p>‘만일 자신이 단톡방 성희롱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p>
--

첫 번째와 두 번째 예시는 데이트 폭력 관련 소주제와 맥락으로 설정하였다. 세 번째 질문은 성적 대상화 혹은 성 상품화, 혐오 발언과 관련된 질문이다. 이는 앞서 II장에서 인터넷에서의 혐오 표현을 다룬 ‘창비’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 뉴스 자막에 사용된 ‘괴수를 유인한 금발의 매혹녀는 누구?’를 두고 선정성과 가짜 뉴스와도 연결지었다. 성적 대상화 표현과 같이 자극적인 표현은 사람들의 눈길을 끌기에 편리한 수단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조회 수를 늘려 수익을 증가시키려는 ‘유튜브’ 창작자가 성차별적 시각으로 자극적인 썸네일을 만들었을 때 유인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혹시라도 영상을 감상했을 때 수동적으로 수용하여 영상 대상을 향해 악성 댓글을 다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하며 혐오를 생산하는 매체 환경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비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젠더 감수성 측면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향유 태도 기르는 것을 통해 진행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끊임없이 성차별적 사회 구조와 관련지어서 평가하면서 진정한 평등과 조화에 관해 고민해 볼 수 있다.

네 번째 예시는 미디어에서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성차별적인 시선이 포함되는 것을 인지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매체에서 이성을 두고 성적 욕구를 표현하는 상황에서 혐오적인 시선을 담아내는 관습이 사람들이 성적 대상화를 은연중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인권 보도 준칙에서 발표한 ‘성평등 실천 매뉴얼’에서는 사람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상품화하는 표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성차별적 언어 표현의 유형으로는 “선정적이거나 비하하는 표현, 성별 언어 구조의 관용화된 표현, 불필요한 성별 강조, 고정 관념적 속성 강조”를¹²⁷⁾ 제시하였다. 인터넷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을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다.¹²⁸⁾ 학생들은 매체에서 성적대상화하는 양상을 보면서 사회에서 남성

127)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2014., 32-34쪽.

128) 김지수, 윤석민(2019)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보슬아치, 창녀, 샹페뉴, 삼일한’ 등 심각한

과 여성의 성적 욕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해야 한다. 보통 매체에서 남성이 여성에 대해 느끼는 성적 욕구를 ‘참을 수 없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매체에서 여성은 성적으로 매력있어야 하는 존재여야 하며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사람이라면 몸에 대하여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존중은 타인의 몸에 대한 존중이 당연하다는 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학생들은 매체에서 보는 성적 대상화, 성상품화 표현을 문제 삼으면서 매체를 낫설게 바라보며 젠더 감수성을 기를 수 있다.

마지막 예시는 차별 접촉 이론과 방관자 개념을 염두에 두고 설정하였다. ‘단톡방 성희롱’이라는 세부 주제는 학생들이 단톡방 성희롱이 범죄라는 것을 인지하는 것과 단톡방 성희롱이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상처를 주는 범죄 행위라는 것을 아는 것에 중점을 둔다. 그러므로 설령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끊어내고 자신이 그 행위를 모방하여 동조하지 않는 통제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예시를 제시하였다.

소주제를 선정한 학생들은 휴대 전화나 태블릿, 노트북 등을 활용하여 영상을 선정한다. 교사는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게 가능하도록 교실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이상 찾으라는 경우에는 주제에 맞게 영상을 선별하여 섬네일을 분석하고 영상 내용을 요약한 결과를 적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요약하기 규칙과 관련하여 간단한 설명을 해도 좋고 1차시에서 활용한 수업 자료 중 한 개를 요약한 결과를 예시로 제공해도 좋다. 학생들이 모르는 어휘의 뜻을 조사하거나 요약하는 과정에서 리터러시 능력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성평등한 시선에서 영상을 바라보고 비판할 점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젠더 감수성 신

여성 혐오 표현을 예시로 들었고 이러한 여성 혐오 표현을 두고 창작자와 시청자들이 전체적으로 동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다.

장을 목적으로 한다.

2차시 수업의 마지막 활동은 한 편의 글 완성하기이다. 교사는 한 번에 완벽한 초고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고쳐쓰기를 통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한다. 작문 영역에서 쓰기의 회귀성을 배우는 학생들이기에 작문 영역의 교육과정을 참고하여 쓰기 지도를 겸비하는 것이 필요하다.¹²⁹⁾ 그리고 교사가 학생들이 예상 독자이자 청자인 동료 학습자를 고려하여 간결하고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글은 ‘처음-중간-끝’의 3단 구성을 갖추고 주장과 근거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선정한 ‘유튜브’ 영상을 근거로 인용하고 출처를 따로 표시하여 글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한다. 교사는 학생들이 글을 작성할 때, 성평등한 가치관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글을 완성해야 함을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조원들과 토의가 끝난 후에는 학급 전체 발표가 있다는 것을 다시 예고해 주어야 한다.

129) ‘화법과 작문’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에서는 “글을 쓰는 과정이 선조적이거나 고정된 것이 아니라 회귀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임을 체험하도록 한다.”와 같이 쓰기의 회귀성을 언급하고 있다. (교육부(b), 83쪽.)

(3) 3차시 교수·학습 방안

협동 학습의 마지막 단계인 3차시 수업 계획은 다음과 같다.

<표 41> 3차시 교수·학습

3차시	<p><협동 학습 진행하기></p> <p>* 토의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성된 글을 친구들에게 설명하기, 질의·응답하기 - 모르는 어휘 의미 조사한 경우 이야기하기 - 모둠별로 결과를 모아서 발표할 내용 정리하기
	<p>* 토의 내용 발표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장이 발표하기, 발표한 내용을 두고 질의응답 - 교사와 학생이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p>* 토의 후 활동하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튜브’ 영상이 성차별 혹은 성평등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 자신이 ‘유튜브’ 영상과 같은 매체를 앞으로 활용할 태도 다짐 적기 - 자기 평가 후 발전 점수 적기 - 동료 평가하기

3차시 수업은 토의 학습으로 시작한다. 조원들이 각자 써온 글을 요약하여 간단히 발표한 후 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학생들이 자신의 글을 독자를 고려하여 표현하는 활동은 국어과의 다른 영역과 통합하여 총체적인 언어생활을 고려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총체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언어와 매체 교과에서 목표로 하는 총체성은 언어와 매체와 국어과의 다른 영역과의 통합을 통해 도모할 수 있다. 본고가 제시한 협동 학습은 학습자가 언어와 매체 교과의 교육 내용을 배우고 이를 ‘화법과 작문’의 교육 내용과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3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공감적, 비판적 듣기를 통해 상대의 말을 듣는 청자의 입장, 정보 전달이나 설득 등을 목적으로 말하는

화자의 입장이 동시에 될 수 있다. 화자는 완성된 글을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자신이 뜻을 조사한 어휘가 있다면 이를 설명해야 한다. 청자는 화자의 발표를 경청하여 존중과 예의를 갖춘 태도로 질문해야 한다.

조원들이 돌아가면서 각자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때 조장은 학습지에 전체 발표를 위한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교사는 조장이 완벽한 글을 작성하는 것보다 핵심 단어만 적어서 개요로 삼아 발표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전체 학급 발표 시간에는 학생이 혼자 교탁에 나가서 발표하는 방식도 좋지만, 여건이 된다면 원탁으로 책상을 옮겨서 대화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교탁에서 서서 하는 발표는 경직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므로 원탁 토의 형태의 좌석 배치는 학생이 발표한다는 부담을 줄이고 발표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때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발표자가 응답자이고 미 발표자가 질의자로 고정되지 않아야 한다. 발표자가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다른 조에서 답변이 가능한 학생이 대신 답변하는 것도 다양한 관점을 접할 좋은 기회가 된다.

전체 발표 시간에 교사는 학생들의 발표 후에 첨언을 더하면서 소주제를 설정한 의도를 설명해 주면서 학생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보완해 주어야 한다. 혹시 교사의 의도와 다르게 성평등에 대한 왜곡된 생각을 가지는 방향으로 결론지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발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한 후에 젠더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하는 수업이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지어 주어야 한다.

전체 발표 이후에는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 진입한다. 먼저 학생들은 ‘유튜브 영상과 성차별 혹은 성평등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하기’라는 질문에 답을 한다. 이 수업은 총 두 가지의 측면에서 젠더 감수성을 신장시키는 양상을 다루고 있다. 먼저 ‘유튜브’라는 매체와 학습자 간 영향 관계와 관련된 젠더 감수성이다. 학생들은 ‘유튜브’가 젠더 감수성과 관련하여

학습자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을 총 3차시 수업을 통해서 배웠다. ‘유튜브’에는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내용이 담긴 영상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성평등이 무엇인가에 관해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들어 바람직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영상도 존재한다. 수업 자료에서 활용한 ‘유튜브’ 자료에서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예방에 나서고 문제의식을 지니는 양상을 살펴보면서 매체가 수용자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도 함께 관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유튜브’가 젠더 감수성에 미치는 양면적인 영향을 이해하도록 한다.

다음 질문인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차별 문제 혹은 성평등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하기’에서 수용자 간 상호작용과 젠더 감수성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 학생들은 협동 학습을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이에 더해 젠더 감수성 신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학생들이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성차별적인 표현을 대화를 통해 알게 되거나 성평등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는 친구들을 관찰하는 등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젠더 감수성 신장이라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 활동은 ‘자신이 유튜브 영상과 같은 매체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짐 적기’이다. 이 수업의 ‘매체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주체적 향유 태도’라는 목표를 학생들이 어느 정도로 달성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설정한 활동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간단히 작성하는 것도 요약하기 활동이기에 리터러시 능력 향상을 마지막까지 고려하려고 한다. 본고는 젠더 감수성을 ‘성차별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성평등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실천 의지를 가지며 행동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학생들이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면서 성차별적인 표현이나 내용을 인지하는 인지적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마지막 질문을 통해서 확인하다. 또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주체로서의 의지를 확인하여 주체적 향유 태도라는 정의적 능력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한다.

협동 학습을 종료한 후에는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를 한다. 먼저 자기 평가는 1차시에 했던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발전 점수를 측정한다. 1차시의 자기 평가는 학생의 현재 상태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3차시의 자기 평가는 수업 후에 발전된 상태를 진단하는 데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질문 내용은 다르다. 하지만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기 평가라는 공통점을 가진다. 자기 평가 문항은 다음과 같다.

<표 42> 3차시 자기 평가표

미디어 리터러시	유튜브 영상을 주제에 맞게 선정하였다.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과 댓글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유튜브 영상을 감상할 때 모르는 어휘를 조사하였다.
	유튜브 영상을 감상한 후 재구성하여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였다.
	분석과 요약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였다.
협동 학습	토의 활동에서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다.
	상대의 말을 공감적, 비판적 듣기를 통해 수용하였다.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전체 발표 활동 이후에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였다.
젠더 감수성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성평등 가치관을 바탕으로 매체를 활용할 지침을 분명하게 들 수 있다.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였다.

위의 자기 평가는 3차시의 수업의 과정에 따라 구성하였다. 자기 평가는 5점 척도로 계산한다. 먼저 1-5번째 문항은 학생들이 1차시와 2차시의 활동을 되돌아보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첫 번째 질문은 목적에 맞게 자료를 선정하여 쓰기를 계획하는 준비를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의도에서 설정하였다.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것이 작문 영역과도 관련이 있어서 총체적인 국어 생활을 고려하였다. 또한, 이 질문을 통해 학습자가 협동 학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질문은 ‘유튜브’ 썸네일을

분석함으로써 매체의 복합 양식적 특성을 이해하고 이와 함께 젠더 감수성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비판적 이해 능력을 길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질문이다.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까지 질문은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 향상 여부와 관련된 질문이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하여 ‘어휘력, 요약하기, 대화하기’를 핵심적인 학습 요소로 삼았던 것을 고려하여 질문을 구성하였다.

6-9번째 질문은 화법 영역을 고려하면서 토의 학습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여섯 번째 질문은 원활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경청의 자세를 갖추고 있는지 물어본다. 일곱 번째 질문은 청자로서 화자의 말을 공감적, 비판적으로 듣고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 여덟 번째 질문은 학생이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 아홉 번째 질문은 전체 학급 발표 이후에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했는가를 물어보고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협동 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의 태도를 평가하고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계획한 교사의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할 수 있다.

10-12번째 질문은 3차시의 수업을 마무리하고 나서 수업의 목표를 달성했는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열 번째 질문은 학습자가 성평등한 사회를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지 물어보고 있다. 이 질문을 통해 ‘유튜브’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활용하여 학습자가 생각하는 성평등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즉, 젠더 감수성 신장과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함께 고려한 질문인 것이다. 열한 번째 질문은 학습자가 배운 내용을 종합하여 앞으로 실천해야 할 매체 향유 태도를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열두 번째 질문은 학습 목표를 고려한 문항으로 1차시 자기 평가의 문항과 동일하다. 그리고 학습자는 이 질문을 통해 대중문화를 향유하는 수용자로서의 주체성이 향상되었는가와 관련된 발전을 판단할 수 있다. 교사는 학습자는 자기 평가의 점수를 합산한 후 1차시

의 자기 평가와 차이를 비교하도록 한다. 1차시와 3차시의 자기 평가는 각각 12문제로 5점 척도로 구성하였다. 질문의 층위는 ‘미디어 리터러시, 협동 학습, 젠더 감수성’으로 각 층위마다 수업 전과 후의 변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변화 정도를 파악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 내용을 다르게 설정하였다. 하지만 1차시 수업 전의 상태와 3차시 수업 후의 상태를 가정한 질문으로 구성하여 ‘수업’이라는 처치 후에 달라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개별 질문끼리 이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1차시 자기 평가를 발전 정도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최대한 타당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동료 평가를 통해 평가를 마무리 짓는다.

<표 43> 동료 평가표

토의를 위한 준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을 완성했다.
토의 시간에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매체를 비판적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보였다.

동료 평가는 협동 학습의 단점을 방지하는 것을 고려하여 문항을 설정하였다. 동료 평가할 때에는 자리 배치를 원래대로 되돌려서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학습지라는 근거가 남아 있으니 최대한 진솔하게 평가해야 함을 지도한다. 학습자들은 동료 평가를 통해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협동 학습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성찰하면서 동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교육방안은 학생들이 매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상위 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성평등’과 관련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세울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V. 결 론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성평등 교육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교육은 일상생활에서의 사소한 부분에서 사회 구조까지 성차별적인 부분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차별을 없애고 성평등한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주체를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교육방안을 제공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매체에 집중하였다. 매체는 ‘유튜브’를 선택하였으며 ‘유튜브’를 교육 제재로 삼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젠더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교육방안을 제시하기에 앞서 2015 교육과정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부분과 관련지어 보았다. II장에서는 2015 교육과정이 제시한 핵심 역량을 젠더 감수성,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지어 본 연구가 설정한 목표의 타당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이 개선 방향으로 내세운 민주 시민 교육의 요소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와 성평등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역량 중 ‘비판적·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대인관계 역량’을 연구의 주제와 함께 살펴보면서 국어교육과도 관련이 깊다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이에 더해 미디어 리터러시와 관련이 있는 성취기준을 살펴보면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교육방안이 학생들의 수준에도 적합하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교육과정을 분석한 이후에는 ‘언어와 매체’ 교과서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유튜브와 관련된 학습 활동’, ‘매체 향유 태도와 관련된 학습 활동’, ‘젠더 감수성과 관련된 학습 활동’이라는 기준을 설정하였다. ‘언어와 매체’ 교과서에서는 이미 ‘유튜브’와 같은 뉴 미디어 매체를 학습 내용으로 선정하고 있었으며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학습 활동이 있었다. 하지만 젠더 감수성과 관련하여 ‘차별, 혐오’와 같은 표현에 관련된 구체적인 학습 활동은 존재하지 않

았다. 교과서 학습 활동을 분석한 것을 바탕으로 ‘실천적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의성 있는 화제 선정,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학습 활동 필요’라는 결론을 내렸다.

III장에서는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재를 탐색하였다. 교육 제재 선택 기준을 살펴보면서 학습 내용이 ‘성과 관련된 내용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것 금지, 실제 매체 언어생활 점검에 도움, 공감 능력 신장’과 같은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연구 주제와 관련 지었다. 이러한 기준을 고려하여 ‘유튜브’에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과 내용, 댓글을 분석하여 세 가지의 교육 방향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는 비판적 주체적 향유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유튜브’에서 구현된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의 양상을 분석하며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는 교육이다. 두 번째는 젠더 감수성 함양을 위한 협동 학습이다. 협동 학습은 다양한 가치관을 지닌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여 자신의 언어생활, 매체 생활을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미디어 리터러시 신장을 위하여 ‘어휘, 요약, 대화’를 주요 요소로 삼았다. 이 요소들은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자신의 언어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거쳐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과정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다.

IV장에서는 협동 학습의 세부 방법으로 ‘코프 코프 학습’을 선정하여 구체적인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는 자신이 생각하는 성평등한 사회를 정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학생들의 현재 젠더 감수성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세부 주제인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에 대한 ‘유튜브’ 영상의 썸네일, 댓글 양상을 분석하여 미디어 리터러시에 초점을 맞춘 학습 활동을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유튜브’ 영상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서 영상 속에 담긴 성차별적 이데올로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다. 그리고 1차시에 자기 평가를 시행하여 자신의 발전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기준이 되도록 하였다.

2차시 수업은 개별 활동 시간으로 세부 주제에 대한 소주제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신이 선정한 소주제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선정하고 영상의 썸네일을 분석하고 내용을 요약한다. 특히 분석하는 요소 중에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가에 초점을 두도록 한다. 영상을 분석한 이후에는 성평등한 시각에 근거하여 성차별적인 이데올로기를 비판하고 한 편의 글을 완성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3차시 수업에서는 자신이 쓴 글을 바탕으로 토의를 진행한다. 자신의 글을 친구들에게 설명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서 타인의 의견을 공감적·비판적 듣기를 통해 듣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모둠별로 토의한 내용을 전체 발표를 통해 나누면서 모둠 이외 학습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발표 이후에는 ‘유튜브’ 영상이 성차별 혹은 성평등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보는 활동을 한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어떻게 누릴 것인지와 관련하여 다짐하는 활동을 한다. 전체 활동이 끝난 이후에는 자기 평가를 통해 1차시 수업의 자기 평가와 비교하여 자신의 발전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동료 평가를 통해 협동 학습의 효과를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본 연구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토대로 하여 젠더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뿐 아니라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연구 목표의 타당성과 시의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였다. 또한, 교육 제재로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밀접한 ‘유튜브’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실제성을 고려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학교 밖의 매체 생활까지도 염두에 둔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젠더 감수성 함양을 목표로 한 교육은 학생들이 성평등한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① 학술 논문

- 권김현영, 「불평등 감각의 젠더 차이: 성차별 현실에 대한 부정과 인정」, 『창작과 비평』 47, 창비, 2019, 35-53.
- 권혜진, 신수진, 「청소년의 성미디어 리터러시, 성희롱성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간호학회지』 34, 한국보건간호학회, 2020, 22-34.
- 김감미 외 4인, 「여혐-남혐 갈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22, 한국정치정보학회, 2020, 29-54.
- 김경희 외 2인, 「인터넷 혐오표현 대응방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노출경험 사례 및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 한국콘텐츠 학회, 2020, 499-519.
- 김민정, 「소셜미디어 플랫폼상의 혐오표현 규제」, 『방송문화연구』 32, KBS 공영미디어 연구소, 2020, 7-54.
- 김민정, 「“성평등의식이 차이를 만듭니다”: 온라인상의 성차별 혐오표현 사례별 시민인식조사」, 『미디어, 젠더&문화』 36,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59-95.
- 김수아, 「온라인상의 여성 혐오 표현」, 『페미니즘 연구』 15, 한국여성연구소, 2015, 279-317
- 김수아, 「남성 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페미니즘 주제 토론 가능성-역차별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2,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7, 5-45.
- 김수자, 「학교현장에서의 페미니즘 교육실천 현황과 과제 - 성평등한 공간, 성평등한 주체를 위하여」, 『교육비평』 43, 교육비평, 2019, 94-125.
- 김순구,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 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 한국산

- 학기술학회, 2021, 268-278.
- 김양례, 「여성 스포츠리더 교육이 성인지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성체육학회지』 33, 한국여성체육학회, 2019, 1-14.
- 김영한 외 3인,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413.
- 김지수, 윤석민,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혐오발언은 어떻게 비즈니스가 되는가?: 유튜브 및 아프리카 TV 토크/캠방 방송에서의 여성혐오발언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33, 한국방송학회, 2019, 45-79.
- 김현, 손병우, 「여성혐오 담론의 경합과 공존: 소설 <82년생 김지영> 현상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103, 한국언론정보학회, 2020, 83-111.
- 박건우, 이정읍, 「한국의 여성혐오에 관한 실증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70-99.
- 방상호, 「문식성 변화와 디지털 읽기·쓰기 수업의 방향」, 『한국어문교육』 23권 0호,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17, 5~32쪽.
- 배상률 외 3인,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I: 초등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1-475.
- 백승대, 안도현,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태도가 여성혐오 의식에 미치는 영향- 남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6,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7, 205-235.
- 서지은, 양성은, 「포괄적 성교육 개념에 근거한 나다움어린이책의 젠더감수성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 한국콘텐츠학회, 2021, 593-607.
- 엄진, 「전략적 여성혐오와 그 모순-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의 게시물 분석을 중심으로」, 『미디어, 젠더&문화』 31,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6, 193-236.

- 엄혜진, 신그리나, 「학교 성평등교육의 현실과 효과 - 젠더 규범의 재/생산, 위험한 성평등교육」, 『페미니즘 연구』 19, 한국여성연구소, 2019, 51-90.
- 오세란, 「성인지감수성의 관점에서 본 청소년소설」,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7,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20, 97-131.
- 원진숙, 「인공지능 시대의 국어 문식성 교육의 혁신」, 『한국초등교육』 31권 특집호,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교육연구원, 2020, 162.
- 이나영, 「여성혐오와 젠더차별, 페미니즘 - 강남역 10번 출구를 중심으로」, 『문화와 사회』, 한국문화사회학회, 2016, 147-186.
- 이순영 외 2인, 「인쇄 텍스트와 디지털 텍스트 문식 활동에 대한 초·중·고등학생들의 인식 연구」, 『교육종합연구』, 제11권 제4호, 교육종합연구원, 2013, 118.
- 이승현, 「여성혐오적 표현과 표현의 자유의 한계」, 『이화젠더법학』 8,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16, 1-34.
- 이원섭, 「미디어 교육 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 성향에 미치는 영향 -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 한국콘텐츠학회, 2014, 795-809.
- 이정녕, 「온라인 혐오발언과 의사표현의 자유- 유럽인권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2016, 37-56.
- 정사강, 홍지아, 「국가페미니즘, 여성가족부, 여성혐오」, 『미디어, 젠더&문화』 34, 한국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2019, 209-253.
- 정현선, 「언어문화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한국학 연구』 25, 고려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2004, 81-96.
- 최유숙, 「미디어상의 혐오표현과 해결방안으로서의 대응표현 연구: 교양 교육에서의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교양학연구』 15, 다빈치미래교양연구소, 2021, 285-334.
- 최윤정, 이종혁, 「부모 중재와 미디어 교육이 청소년 유튜브 이용에 미치는

- 영향: 학년에 따른 효과의 차이 분석」, 『방송통신연구』, 한국방송학회, 2021, 141-171.
- 홍성수, 「혐오(hate)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혐오에 관한 법과 정책-」, 『법학연구』 30,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191-228.
- 홍지아, 정사강, 「성인지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한국여성학』 36, 한국여성학회, 2020, 153-196.

② 학위 논문

- 김민서, 「청소년의 인터넷 1인 방송 시청 경험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 김자혜, 「고등학교 문학교육에서의 페미니즘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2.
- 김주연, 「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2015 개정 국어 교과서 연구 -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김청송, 「미디어 리터러시를 활용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8.
- 이원지, 「젠더적 관점에서 비판적 다시쓰기 교육방안 연구 - 중학교 국어 교과서 수록 현대소설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21.
- 장민혁, 「젠더 감수성 신장을 위한 규방가사의 교육적 활용 방안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20.
- 장진화, 「페미니즘 소설 교육 방안 연구 - 박완서의 「엄마의 말씀」 연작을 중심으로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19.
- 정지혜,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문학교육 방법 - 김동인의 감자를 중심으로 -」,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2004.
- 조도자, 「여성혐오에 대한 청소년활동가의 인식과 성인지 교육 수용성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9.

③ 단행본

노명완, 「인간, 언어, 교육, 그리고 문식성」, 『문식성 교육 연구』, 한국문화사, 2008, 16.

신명희 외 8인, 『교육심리학』, 학지사, 2020.

우에노 치즈코, 나일등 옮김, 『여성 혐오를 혐오한다』, 은행나무, 2012.

원진숙 외 6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 아카데미, 2016.

추성경, 손은주,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과학사, 2019.

④ 기타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보도준칙-주요 분야별 요강 매뉴얼」, 2014.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Hate Speech 리포트」, 2019.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2020.

⑤ 교과서 및 교육과정

교육부(a),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해설 고등학교』, 교육부 고시 제 2015-74호, 2020.

교육부(b),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5]. 2015.

교육부(c), 『더 나은 미래, 모두를 위한 교육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2021.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 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2016.

미래엔, 『언어와 매체』, 2020.

비상, 『언어와 매체』, 2019.

지학사, 『언어와 매체』, 2019.

창비, 『언어와 매체』, 2019.

천재(민), 『언어와 매체』, 2019.

⑥ 웹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m/search/searchView.do>,

(접속일자: 2022. 05. 08.)

네이버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33501>

(접속일자: 2022. 05. 08.)

닷컴페이스 <https://youtu.be/w4MCb6MHb4E> (접속일자: 2022. 02. 23.)

여성가족부 <https://youtu.be/erKy-yIZf0M> (접속일자: 2022. 05. 08.)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https://bogun.nodong.org/xe/khmwu_6_1/485690

(접속일자: 2022. 06. 11.)

JTBC 뉴스 <https://youtu.be/OAWvxlljwM> (접속일자: 2022. 02. 23.)

JTBC 뉴스 <https://youtu.be/9dBa8j4anJo> (접속일자: 2022. 02. 23.)

JTBC 뉴스 <https://youtu.be/V4YHw2plfTU> (접속일자: 2022. 02. 23.)

KBS 뉴스 <https://youtu.be/XKIF3rIIKA4> (접속일자: 2022. 02. 23.)

KBS N <https://youtu.be/KF0Kn2PyOtM> (접속일자: 2022. 02. 23.)

KBS 시사적격 <https://youtu.be/RFI70SioRQw> (접속일자: 2022. 02. 23.)

my Mapo 마포구 <https://youtu.be/8zcO-HMbbno> (접속일자: 2022. 02. 23.)

MBC 뉴스 <https://youtu.be/dWU0NFmYF1U> (접속일자: 2022. 02. 23.)

MBC 뉴스 <https://youtu.be/M2CtUXI5ack> (접속일자: 2022. 02. 23.)

MBC 뉴스 <https://youtu.be/0yFy0tKvd10> (접속일자: 2022. 02. 23.)

MBC 뉴스 <https://youtu.be/j-QEAKpM0IU> (접속일자: 2022. 02. 23.)

SBS 뉴스 https://youtu.be/dpuB_i8jOpQ (접속일자: 2022. 02. 23.)

SBS 뉴스 <https://youtu.be/j-I4KGHq34s> (접속일자: 2022. 02. 23.)

SBS 뉴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

(접속 일자: 2022. 02. 23.)

tvN D STUDIO https://youtu.be/c-R_GPMawWc (접속일자: 2022. 02. 23.)

YTN 뉴스 <https://youtu.be/00LHblcWWX4> (접속일자: 2022. 02. 23.)

YTN 뉴스 <https://youtu.be/db8f2QXXFaA> (접속일자: 2022. 02. 23.)

YTN 뉴스 <https://youtu.be/HShzHO3Xo-g> (접속일자: 2022. 02. 23.)

ABSTRACT

Korean Language Department Media Literacy Education for Youth Gender Sensitivity

- Regarding misogyny crimes embodied in YouTube
videos -

Lee, Minyeong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dia literacy education plan to foster gender sensitivity of adolescents. Gender sensitivity is a necessary quality for adolescents to grow into democratic citizens. Democratic citizens should have a attitude of respect and consideration and have empathy ability. Not become a person who expresses discrimination and misogyny by dividing humans by gender is laying the foundation for growing into democratic citizens. Therefore, education for cultivating gender sensitivity also has a reasonable purpose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at the curriculum aims for.

This study suggest an educational plan that combines education and

media literacy to cultivate gender sensitivity. This is because media literacy education is an education that can critically detect various sexist elements encountered by teenagers in digital media and develop an attitude of enjoying themselves. In addition, YouTube, one of the most closely related media with teenagers, was selected. Because as its influence grows, it often has an adverse effect on gender sensitivity. Therefore, the activity is proposed to critically analyze the sexist elements found in videos on YouTube. Chapter II suggests a valid reason to be interested in cultivating gender sensitivity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language and media' education by linking the curriculum and research topics. And textbook analysis and YouTube analysis are conducted in Chapter III, and based on this analysis, Chapter IV presented an educational plan based on cooperative learning.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posed an educational plan for adolescents to have gender equality values by selecting timely topics such as media literacy education and gender sensitivity.

[Key word] Gender Sensitivity, Media Literacy, 2015 Korean Language National Curriculum, Language and Media

<부록> [협동 학습 학습지]

학습 목표: 뉴 미디어 매체를 비판적으로 향유하는 능력을 기르고 성평등한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자세를 기른다

※ ‘내가 생각하는 남녀가 평등한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려도 좋아요)

복합 양식 텍스트의 개념과 특성을 알고 있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을 학습 도구로 사용할 때 목적에 맞게 선정할 수 있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을 감상하면서 모르는 어휘가 있다면 뜻을 조사한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을 감상한 후 내용을 요약하여 말할 수 있다.	1	2	3	4	5
평소에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였다.	1	2	3	4	5
친구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의 말에 경청하며 듣는다.	1	2	3	4	5
친구들과 대화할 때 공감하지 못하는 바가 있다면 상대를 배려하고 예의를 갖추어 반대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1	2	3	4	5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다.	1	2	3	4	5
친구들과 성평등, 성차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	1	2	3	4	5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에서 나타나는 혐오 표현이나 차별 표현을 흥밋거리로 여기며 친구들에게 사용한 적이 있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을 감상한 후 성차별적인 부분을 인지할 수 있다.	1	2	3	4	5
합계					

※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유튜브 영상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1) ‘데이트 폭력 캠페인 영상’

* ppt 속에 담긴 영상의 썸네일 보기

* 영상의 썸네일의 자막과 이미지, 사진, 제목을 보고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영상에 달린 댓글과 대댓글 양상 살펴보기

번호	댓글 내용	공감 수
A	“집에 잘 들어갔어?”라는 영상의 대사에 달린 댓글	
	- 이걸 누가 저판 의미로 쓰냐 ㅋㅋㅋㅋ	823
	- 헛소리를 당당하게하는중	189
	- 킹정ㅋㅋㅋㅋㅋㅋㅋㅋ 겁나 당당하게 하네	69
B	남자들끼리도 잘 들어갔냐는 말 안부처럼 하는데 ㅋㅋㅋ 미치겠네 야 가주 깎	35
C	저 개소리 듣고 나 진짜 구라안치고 현실로 우와.....그랬음 와...진짜 그렇게 생각한다고....?집 잘들어갔어?가 도대체 안부인사가 아니면 뭐야...?잠정적 가해자를 피하고 숨어서 24시간 걸려서 복귀한거야???? (중략)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10번을 생각해도 이해가 안됨	6
D	멋진 ** 님, 좋은 광고 감사합니다	221
E	의미있는 목소리에 용기를 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54
F	영향력 있는 분이 꾸준히 목소리 내주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69

* 캠페인의 주제에 공감하나요? 아니면 공감하지 않나요? 이유와 함께 작성해봅시다.

* 댓글에서 A, B, C와 D, E, F의 다른 점 비교 후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2) 군대 내 불법 촬영 사건 영상

* 영상의 섬네일의 자막과 이미지, 사진, 제목을 보고 성차별적인 시각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영상에 달린 댓글과 대댓글 양상 살펴보기

번호	댓글 내용	공감 수
A	진짜 군대 내 성범죄 문제 줄줄이 터져 나오네 ㅋㅋㅋ 문제 생기면 덮으려한 놈들부터 과면시켜야 문제가 안생기지 진짜 더럽다	196
B	곧 전역할건데 -> 아... 우리 부대에서 사건사고나면 안된다구요 ㅠㅈㅠㅈ	851
C	경찰쪽에서도 여경들 화장실 용변장면 불법촬영한 사건도 있었죠. 같은 남경들이 쉬쉬하며 성범죄 저지른 남경 감싸주다 처벌이 흐지부지 넘어갔던걸로 아는데 성범죄 처벌 제대로 좀 합시다. 성범죄자 인권이 강해질수록 정상적인 사람들만 피해봅니다 - 그런 경찰에 왜 처 기어 들어가는데??? 니네 평소 주장이면 겁나서 남자랑 못살겠다고 여성 전용 임대 주택 잇잖아 경찰 성범죄 많다면서 여경은 왜케 지원 물리나???	200
D	같은 공군인데 왜 누구는 감싸주고 왜 누구는 관심병사 취급이냐고 심지어 범죄자인데? 그냥 다 구속시켰으면 좋겠다 - 그냥 여군이 왜 필요하나 - 언젠 아몰랑 여자도 군대가!!! 빼애웁거리다가 이젠 여군이 왜 필요하나고 지랄ㅋㅋ 하나만 해라 - 여성징병제도입하라고할때는언제고이제필요없다네!	1000
E	이런걸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줘야지...다들 이런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니깐 여기까지 온거다 - 그래 남자엔변방 피해자 1000명은 공론화도 안되는 나라^^	1900

* D와 E에서 벌어진 논쟁 양상에서 공감하거나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이유와 함께 적어보기

* 불법 촬영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대나 기관을 조사해 봅시다 (인터넷 검색 허용)

(3) 중학교 내 단톡방 성희롱 사건 영상

* 영상의 썸네일의 자막과 이미지, 사진, 제목을 보고 성차별적인 시각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영상에 달린 댓글과 대댓글 양상 살펴보기

번호	댓글 내용	공감 수
A	차별 수준을 높여라	52
B	시바 제가 이런 학교에 다녔다는게 참 부끄럽고 수치스럽네요	6
C	이게 학교냐? 우리학교 ㄹㅇ 뭐하자는...	7
D	근데 걸려서 이러지 모든학교에서 한 그룹씩 있음	2
E	이거 실화에요. 대놓고 하는세끼도 있음	21

* 장난과 성희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댓글을 보면 단톡방 성희롱이 만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와 같이 매체에서 성적 대상화, 성 상품화 표현을 본 적이 있나요?

* 만약 단톡방에서 성희롱하는 가해자를 보게 된다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요?

※ 작성한 결과를 바탕으로 조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

※ 유튜브 영상 성평등한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1) 소주제 선정하기

* 위에서 살펴본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 단톡방 성희롱’ 영상과 관련하여 더 자세히 조사하고자 하는 주제 생각하기

(제시된 예시 이외에 다른 주제도 자유롭게 선정 가능)

<소주제 예시>

* 데이트 폭력

‘데이트 폭력을 다룬 영상의 썸네일을 5개 이상 선정하여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도출하고 성차별적인 부분을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

‘유튜브에서 데이트 폭력 관련 강의를 3개 이상 감상한 후 내용 요약하고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사라지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의견 제시하기’

‘캠페인 영상 속 여성은 왜 밤길이 위험하다고 했을까를 고민해 보고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떠올려보기’

‘연인이 사이에서 상대가 거절 의사를 표현했다면 이는 어떤 의미인가? 만약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아 폭력을 가한다면 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가?’

* 불법 촬영

‘불법 촬영을 다룬 영상의 썸네일을 5개 이상 선정하여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도출하고 성차별적인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

‘유튜브에서 불법 촬영 관련 강의를 3개 이상 감상한 후 내용 요약하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사라지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의견 제시하기’

‘군대에 관한 생각을 자유롭게 쓰고 왜 남성이 주로 군대에 가는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유 추론하기’

‘성평등 교육이 여성 우월주의를 내세운다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성평등 교육은 어떤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성별과 관련된 성적 고정관념을 사용한 유튜브 영상을 5개 이상 찾아보고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쳐서 표현할 수 있는가?’

* 단톡방 성희롱

‘단톡방 성희롱을 다룬 영상의 썸네일을 5개 이상 선정하여 공통으로 드러나는 특징을 도출하고 성차별적 부분이 있으면 근거를 들어 비판하기’

‘유튜브에서 단톡방 성희롱 관련 강의를 3개 이상 감상한 후 내용 요약하고 불법 촬영 피해자가 사라지기 위해서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지 의견 제시하기’

‘유튜브에서 성적 대상화 혹은 성 상품화, 혐오 발언 등을 본 적이 있는가? 이러한 표현이 나타나는 영상의 썸네일이 있다면 3개 이상 찾아보고 이런 표현이 왜 문제가 되는지 성평등한 관점에서 비판하기’

‘드라마나 영화와 같은 매체에서 남성이나 여성의 성적 욕구를 주로 어떻게

표현하는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 예시로 들면서 성평등한 관점에서 비판하기’

‘만일 자신이 단톡방 성희롱을 목격한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2) 유튜브에서 영상 조사한 후 썸네일 분석하기 (휴대 전화, 태블릿 사용)

- * 영상의 썸네일의 ‘자막, 사진, 이미지’ 등에서 성차별적 표현이 있는지 비판적으로 분석하기
- * 영상의 썸네일을 보고 어떤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 예측하기

(3) 영상을 감상하고 내용 요약하기

- * 영상의 내용을 요약하면서 모르는 어휘가 있으면 뜻 조사하기
- * 영상을 본 후 세부 주제에 관한 글을 작성하는 데 있어 참고 내용 요약하기

(4) 세부 주제에 맞게 글 작성하기

영상의 썸네일, 내용, 댓글 양상 등을 근거로 하여 타당한 의견 제시하기
성평등 가치관에 따라 자기 생각 자유롭게 작성하기

(5)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원들에게 발표하고 질의 응답하기

토의 결과를 조장의 학습지에 간단히 정리하여 발표하기/ 발표 메모

(6)

- * 유튜브 영상이 성차별 문제 혹은 성평등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하기
- *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차별 문제 혹은 성평등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정리하기

(7) 자신이 유튜브 영상과 같은 매체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짐 적기

--

(8) 자기 평가와 동료 평가하기

* 자기 평가

유튜브 영상을 주제에 맞게 선정하였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의 심내일과 댓글을 성평등한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을 감상할 때 모르는 어휘를 조사하였다.	1	2	3	4	5
유튜브 영상을 감상한 후 재구성하여 자신의 언어로 요약하였다.	1	2	3	4	5
분석과 요약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편의 글을 완성하였다.	1	2	3	4	5
토의 활동에서 상대의 말을 집중하여 들었다.	1	2	3	4	5
상대의 말을 공감적, 비판적 듣기를 통해 수용하였다.	1	2	3	4	5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의견을 이야기하였다.	1	2	3	4	5
전체 발표 활동 이후에 적극적으로 질의응답에 참여하였다.	1	2	3	4	5
내가 생각하는 성평등한 세상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1	2	3	4	5
성평등 가치관을 바탕으로 매체를 활용할 지침을 분명하게 들 수 있다.	1	2	3	4	5
매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문화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향유하였다.	1	2	3	4	5
합계					
발전 점수					

* 동료 평가

	토의를 위한 준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글을 완성했다.	1	3	5
	토의 시간에 상대의 말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	1	3	5
	성평등한 사람이 되기 위한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	3	5
	매체를 비판적으로 향유하는 태도를 보였다.	1	3	5
	합계			